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지은이 / 사무엘 킵 저
옮긴이 / 정 동 수 역

2판 1쇄 / 2015년 12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며)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 동 수

인천시 남구 학익동 569-7
전화: 032-872-1184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09-8 03230

정가 : 12,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Understandable History of The Bible)

사무엘 김 저
정동수 역

Understandable History of The Bible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1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그리스도예수안에 출판사, 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구원받았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한 부류는 정직하고 열심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진리 편에 서려 하고 또 진리에 대한 지적인 대화를 즐기며 중요한 논제들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애씁니다. 한편 다른 부류는 오늘날 대다수를 차지하는 크리스천들인데 이들은 대개 사실을 알고서도 이 같은 사실로 인해 자기나 혹은 자기가 속한 교파나 교회가 지켜 오던 전통이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실 그 자체를 외면하려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스스로를 ‘근본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자’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공산주의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레닌이 “사실이란 참으로 다루기 힘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그의 평생에 아주 드물게 진리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King James Bible)이 ‘자필 원본’에 가장 가까우며 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다른 모든 현대 역본보다 훨씬 정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성경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을 때 자신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크게 화를 내고 조소하며 이런 사실들로 인해 자기들이 지켜 오던 전통이나 신념이 무너지거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수수께끼 중의 수수께끼’가 아닐까요?

만일 사랑하는 독자께서 후자에 속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책을

읽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정중히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성경 역본에 관한 모든 문제를 명확한 초점 아래 모아 객관적으로 제시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들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사실들에는 ‘회색 지대’ 즉 모호한 ‘중간 지대’란 있을 수 없으며 흑(黑) 아니면 백(白)만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면서 저도 한 번은 금방 출간된 현대 역본을 들고 강단에 서서 “이것은 원본에 가장 가깝고 읽기도 쉬우며 삭제해야 할 고어(古語)로 가득한 어려운 구절들의 의미를 명백히 밝혀주어 그 뜻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하면서 그것을 칭찬하며 추천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곧 이 죄를 깨닫게 해 주셨고 저는 즉시 그분의 용서를 구했으며 그분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에텐의 동산에서 옛 뱀 마귀가 불경스럽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는 말을 내뱉은 이래로 지구라는 유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과 성품 등을 매우 사악하게 중상모략하는 일이 거침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우리가 이 같은 거짓말에 직면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다른 이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여러 모임에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 왔으며 그때마다 성경 역본 문제가 믿는 이들에게는 생과사를 가르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에게 오래전에 영원히 사라진 ‘자필 원본’ 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순전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지금 이 시간 있지 않다면 ‘내일 죽어 지옥에 갈 터이니 지금 먹고 마시고 결혼하자.’ 라는 단 한 가지 대안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독자께서 이 책을 보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당신의 절대적인 최종 권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부끄럼 없이 받아들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면 저는 당신의 친구로서 당신이 많은 친구를 잃고 오히려 수많은 적이 생길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경책으로 인해 알게 된 고귀한 새 친구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성경 문제로 인해 영원히 갈라진 옛 친구들과 이 진리들을 맞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5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저는 사탄의 텃으로 둘러싸인 ‘인생이라 불리는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해 주신 ‘절대적인 최종 권위’가 제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 저는 결코 복음 사역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참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분 곧 ‘육체 안에 드러난 영원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저 ‘에이번의 시인’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작품 중 하나에서 내린 인생의 정의가 논쟁의 여지없이 옳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삶이란 아무 의미도 없으며
단지 헛소리와 분노로 가득한 이야기 즉
어리석은 자가 내뱉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풀러 박사 (Dr. David Otis Fuller)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왜 수많은 성경 역본이 존재하며 이것들은 다 같은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이 전달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지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도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역사를 통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이 전달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사실 이러한 노력 대부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기보다는 학자연합단체들의 흐릿한 언어로 인해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흐려 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독자께서는 이 책의 내용이 참으로 ‘알기 쉬운 성경 역사’임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은 7년 동안 보통 사람들의 손에 의해 현장 조사를 받았고 따라서 그 안의 사실들이 다 검증되었습니다. 제철소의 노동자로부터 그리스어 학자에 이르기까지, 가정주부로부터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제시하는바 이해하기 쉬운 논리와 문체 그리고 사실성에 의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독자께서도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갖고 있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틀림없이 이 책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형제님 혹은 자매님 —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경 신자’(Bible believer)라 부름 — 을 위해 쓰였습니다.

신학 박사 사무엘 킵(Samuel C. Gipp, Th. D.)

온 인류의 생사화복(生死禍福)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啓示)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분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뜻하며 보통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으로 사람의 양심이나 해, 달, 별 등과 같은 자연 만물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시 19:1-6, 롬 1:18-32). 사람이 이런 계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라는 존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계시는 결코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 계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기적, 우림과 둠뭉, 천사, 예수 그리스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객관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그 외의 것은(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크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죽은 몸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전(主前) 1500년부터 주후(主後) 100년에 이르기까지 약 1,600 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40여 명의 거룩한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왕, 정

1) 본서는 김 박사의 『Understandable History of the Bible』 (제1판)을 번역한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6장의 오리겐 부분과 9장의 외경 부분은 사전트 목사(Pastor Robert J. Sargent)가 지은 『영어 성경 사본의 증거』(English Bible : Manuscript Evidence)에서 발췌해서 첨가했다. 한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꺾박을 보충하기 위해 7장에서는 클라우드(David Cloud) 형제가 지은 『로마와 성경』(Rome and the Bible)에서 몇 부분을 발췌하여 첨가했다. 역자 서문은 2000년 8월에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의 서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대구의 박석홍 형제가 부록1을 번역했다.

치가, 제사장, 세리, 어부, 의사, 목자, 사도 등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손 밑에서 완전한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우리는 이를 예비(豫備)의 단계라 부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예비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기에 영감(靈感)이라는 단계를 통해 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딤후 3:16)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감이란 단어는 ‘숨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성경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말한 것’ (벘후 1:21)이라고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총체적 축자 영감’ (verbal plenary inspiration)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자필 원본(自筆 原本)이라고 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존(保存)이라는 단계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순수하게 간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글자마다 친히 숨을 불어넣어 완전하게 만드신 뒤에 만약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보존하지 않는다면 영감의 단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완전한 보존’이 없는 ‘완전한 영감’이란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의 속성 역시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감을 ‘일차적인 기적’이라고 한다면 보존은 ‘이차적인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보존에 대하여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사 40:8)고 확증해 주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고 말씀하심으로

써 말씀의 보존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대부분의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으며,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신약성경 전체를 그 당시 온 세상의 공통어이던 그리스어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보존의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 단계를 통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경로에서 그다음 단계는 번역(翻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후 100년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 결과 수많은 역본(譯本)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번역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기록된 자필 원본이 이 넓은 세상 곳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이 개개인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번역의 단계 역시 영감이나 보존의 단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번역을 위한 대본(臺本)입니다. 자필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필사(筆寫)한 사본(寫本)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사본들을 정리하여 번역을 위한 대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된 대본을 본문(本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볼 때 번역을 위한 본문이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그것을 찍어내는 틀이 어떠한가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성경 역본 역시 본문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내용이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경우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한 『전통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 의식을 가진 그들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보존했기 때문에 20세기 초까지 이 마소라 본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欽定譯) 성경(*King James Version, KJV*)의 구약은 바로 이 본문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1937년에 히틀러 수하에서 일하던 키텔(Rudolph Kittel)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평균 15~20 군데씩 수정하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를 편찬했으며 이 본문은 후에 1967/1977년판 『슈트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로 개정 출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는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약 20,000 군데가 수정된 것을 뜻하며 또한 『신국제역본』(*New International Version, NIV*)과 『신미국표준역본』(*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B*) 등 모든 현대 역본이 『BHS』를 근거로 구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 내용이 그대로 그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어느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구약성경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경우 흠정역 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인데 이 본문의 특징은 신약 교회가 거의 1,900 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며 그 내용이 전혀 변화가 없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에 『다수 본문』이라고도 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 (혹은 동방) 본문』이라고 하며, 루터와 칼빈 등 중

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들과 침례교도들이 한결같이 『공인 본문』만을 사용해 온 것과는 달리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처음부터 『소수 본문』만을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소수 본문』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은 몇 개 되지 않으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신성, 대속, 삼위일체 및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 교리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 보존되어 온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수도원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이 있으며 바로 이 두 사본에 근거해서 1881년에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공인 본문』을 무려 5,604 군데나 수정하여 소위 『수정 본문』이라는 개악된 본문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 본문』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개시킨 단어는 무려 9,970 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성경 본문에 나오는 140,521 개 단어의 7%나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후에 1898년에는 네슬레가 티센도르프의 제8판과 위마우스의 제3판과 함께 신약성경 본문을 편집하여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이 그리스어 성경이 현재 출간되고 있는 모든 현대 역본의 대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흠정역 성경의 내용과 다른 모든 현대 역본의 내용은 그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새로운 역본으로 인한 새로운 기독교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 역본이 출현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고르듯 자기 뜻에 맞는 역본을 선정하고 있으며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비치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 구절은 이 역본이 좋고 저 구절은 저 역본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

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흠정역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신의 말씀의 보존과 전파를 위해 공통 언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이로 인한 현시대의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군에 의해 무참히 패배를 당한 후 보잘것없던 섬나라 영국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두 국가를 통해 두 가지 일 즉 자신의 선민인 유대 민족을 보호하는 일과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고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수행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통해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합쳐진 성경전서가 나오게 되었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지배하의 암흑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빛이 나오게 되었으며, 산업 혁명 등을 통해 인류의 복지 증진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어 중심의 세계 판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어 이제는 영어 자체가 전 세계의 공통어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므로 지난 400 년간 영어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말씀을 전파해 오셨으며 지금도 번역본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되 특별히 전 세계의 공통어가 된 영어로 기록된 흠정역 성경을 표준 척도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1611년 흠정역 성경이 나오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영어 성경이 여럿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읽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주신 성경이라는 호칭 즉 『권위역본』(Authorized Version, AV)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은 흠정역 성경만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흠정역 성경은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사용하는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18, 19세기 미국

및 영국의 부흥과 전 세계 복음 전파에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켰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 (The Holy Bible)하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흠정역 성경의 우수함에 대해 『툼슨대역 한영성경』 편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평을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의 역할을 수행했는바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자료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툼슨대역 한영성경, 기독교회사, 부록 1, pp.4, 1989).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행위와 무관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믿을 터인데 사실 이 같은 믿음의 근거는 단 하나 즉 ‘기록된 성경 말씀’ 뿐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육적, 영적 모든 활동의 표준이 되는 척도이며 따라서 이런 표준 척도는 시대에 따라, 사람의 눈이 밝아짐에 따라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논쟁이 크리스천들간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100 종이 넘는 책들이 소위 ‘성경’ 이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 말에 미국성서공회는 『새 시대를 위한 좋은 소식』(Good News For A New Age)이라는 뉴에이지 성경도 버젓이 출판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 윤리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지난

40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성도들의 표준 척도가 되어 온 흠정역 성경을 번역해야 하는 당위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 성경의 번역에는 총 8년이 소요되었으며 목사,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신학자,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번역과 교정 작업에 참여하고 아낌없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본 성경의 출간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의 보상으로 충만히 갚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성경의 출간을 위해 재정적으로 도와주신 많은 형제·자매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부디 이 성경을 통해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특히 반세기 이상 복음이 가려진 북녘땅에도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미 믿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죽어 가는 자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긴 작업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허락하신 모든 긍휼의 아버지와 친히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피를 흘려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영원히 신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지혜와 판단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소개의 글	2
저자 서문	5
역자 서문	7
1장 시간 여행	19
2장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9
3장 기본 법칙	37
4장 100년 전쟁	42
5장 두 도시 이야기	63
6장 사본의 증거들	77
7장 성경의 대적자	103
8장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150
9장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98
10장 정당성 입증	253
참고문헌목록	257
인용문헌목록	260
부록 1 킹 제임스	270
부록 2 틴데일	292
부록 3 역자추천 참고도서	292



잠깐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제 우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에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현대의 모든 편의 시설도 없다. 그야말로 우리는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 된다. 주위를 한 번 둘러보자. 그곳에는 성경도 없다. 우리는 주위의 삼라만상에 대해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또 인류가 어떻게 이곳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주위를 다시 한 번 자세히 둘러본다. 우리는 나무에서 씨앗이 땅 위에 떨어지고 자라서 결국 묘목이 되며 더욱더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또 이러한 순환 작용이 계속해서 반복됨을 본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이처럼 질서 있게 일어날까 의아해한다.

그 뒤 우리는 드넓은 대양으로 간다. 바다의 조수(潮水)를 유심히 보면서 그것이 대양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런 정화 작용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 '과연 이것은 어떤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수면 밑 깊은 곳으로 시선을 돌린다.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생물체를 본다. 그곳에는 물을 들이마시며 숨을 쉬는 것, 사람들처럼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알을 낳는 것, 새끼를 낳는 것 등 여러 생명체가 있다.

우리는 형태와 크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생물체를 본다. 생명체 중에는 작은 것도 있고 너무 커서 무게가 수십 톤에 이르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은 자신의 낚시대에 달린 미끼로 낚시를 하고 어떤 것은 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잘 움직인다. 어떤 것은 눈이 등 위로 튀어나와 있고 어떤 것은 등불을 가지고 있다.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헤엄을 치며 매우 빨리 달아나므로 우리 눈이 쫓아갈 수 없는 것도 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의아해한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 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본다. 거기에는 새들이 있다.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결코 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새들은 우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중을 날아다닌다. 새들의 뼈는 그것들이 잘 날 수 있도록 가벼운 무게를 제공하기 위해 속이 텅 비어 있다. 그것들의 깃털은 모두 적절한 위치에서 자라며 매해 털갈이를 한다. 또한 많은 새가 매해 같은 장소로 계절에 따라 옮겨다닌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에 필요한 능력과 특징을 다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의아해한다. ‘과연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 뒤 우리는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 우리의 몸을 본다. 우리는 눈의 복잡함과 그 동작 원리를 연구하며 또 귀의 복잡한 구조를 살펴본다. 우리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걸을 수 있는 능력 등의 신비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근육 덩어리 심장을 보며 그 안의 밸브들이 정확히 열리고 닫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인해 놀라움을 멈추지 못한다. 심장은 우리의 도움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멈추지 않게 하려고 해도 멈출 때가 되면 스스로 멈춘다. 다음으로 우리는 신경계와 뇌로 눈을 돌려 그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조화와 체계를 본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단 말인가?’ ‘이것들이 과연 우연히 생겼을까?’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 보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들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있단 말인가?’

‘과연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 모든 신기한 사물을 만드신 그런 분 말이다. 만일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 우리는 땅을 쳐다본다.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 우리는 대양을 살펴본다.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도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이 두 곳은 모두 한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렇게 위대한 존재는 그런 곳에 계시실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는 이 모든 신비한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그분은 아마도 무한하게 보이는 하늘에서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본다. 저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지금 그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어떤 존재가 있단 말인가? 우리를 창조하고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과연 그곳에 있는가?

그러나 기다려라! 만일 그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만일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분은 이 지구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 말이 사실이어서 그분이 우리의 무기력한 실태를 안다면 실로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큰 빛을 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그분은 우리와 의사소통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를 수 있으며 그분께 더 가

끼이 가기 위해 산에 오를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말을 전하게 한다. 그런데 서로 의사를 소통하려면 그분 역시 반드시 우리와 대화를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말씀을 보내야만 한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일이 갑자기 발생한다. 집을 향해 길을 가고 있을 때 저 멀리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본다. 그 사람은 고함을 지르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몸 전체는 흥분된 모습이다. 그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우리는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더 다가가면 그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우리는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당신 지금 무어라고 했소?’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당신이 말하는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우리는 묻는다.

‘주님 즉 하늘의 주(主)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재빨리 위를 쳐다본다. 아! 그분은 분명히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내야만 한다.

‘우리에게 그 주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더 말해 주시오.’ 라고 우리는 간청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

그의 말에 우리는 다시금 하늘을 쳐다보고 무릎을 꿇는다.

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대화를 하셨구나!

우리는 이 사람을 붙잡고 간청한다.

‘부탁이니 제발 말해 주시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조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시오.’

‘당신에게 말해 달라고요? 나는 그분에 대해 당신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가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해 준 것 외에는 없다면 사실 내가 말해 준 것 그 자체를 증명할 방법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지전능하며 사랑이 많은 분이라면 자신의 ‘말씀들’(words)¹⁾을 받아 기록한 대언자(代言者)²⁾들이 다 죽고 없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그것들을 읽을 수 있도록 틀림없이 책에 그것들을 기록해 놓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자기의 소지품 중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 ‘이건 글로 이루어진 책이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글, 즉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에게 묻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한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께서 주신 ‘말씀들’(words)을 우리 손안에 넣게 된 것이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사람들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해 오셨다. 다시 말해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와 대화를 하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들을 단지 하늘에만 간직해 두지 않았다. 즉 그분

1) 성경을 논하며 ‘말씀들’을 언급할 때 이것들은 항상 ‘단어들’(words)을 뜻한다. 즉 성경에 들어 있는 모든 단어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영어 성경에서 ‘prophet’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단’는 뜻을 지닌 ‘대언자’(代言者)이다. 『개역 성경』은 이를 ‘선지자’로 번역하여 마치 예언하는 사람처럼 만들었으나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그리고 영어에서 이 단어는 분명히 ‘대언자’이다.

은 이 말씀들을 이 땅에 내려보낸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간직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문자로 기록해서 이 땅에 내려보낸 것이다.

그분의 의무는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의무는 그 의사소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 같은 의사소통의 말씀 없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만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에게 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이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셨으며 지금 우리 손안에는 그분의 말씀들이 있다. 분명히 그분은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지금 이 시간까지 의사소통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셨다.

질문자

그러나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값진 보화를 우리 손에 놓자마자 그 즉시 어두운 모습의 한 사람이 나타났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바 원래의 그 말씀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생각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몇 가지 근본 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광신자 처럼 되면 곤란합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몇 개의 정확한 문장으로 만족하십시오.’

이 말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며 이번에 새로이 갖게 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역시 공격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그때 우리의 진실한 대언자

가 나타나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는 본래 불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성경책을 기록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설상가상으로 누군가가 이 성경책을 신실하게 믿는 것을 보면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자기 뜻을 굽히고 이 성경책을 믿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의 부패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시간 여행에서 되돌아오다

잠시 후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사는 곳으로 되돌아온다. 시대와 주위 환경이 모두 변했다. 시간 여행을 하며 손에 넣었던 낡고 오래된 그 성경책은 이제 사방으로 돌아가며 금장 처리가 되어 있고 겉장은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성경전서’(Holy Bible)라는 값진 제목이 금색으로 앞면에 큼지막하게 인쇄되어 있다.

이제 우리의 대언자(代言者)가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읽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이 책이 당신을 인도하며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며 감사함으로 성경을 들여다본다. 이 성경책은 참으로 매우 읽기 쉽고 질서 정연하게 쓰여 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귀한 말씀, 즉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계 주셨다니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성

경에 대해 항상 적개심을 품어온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이 책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또 이렇게 우리 손에 쥐여 주시다니 과연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가!

질문자가 돌아오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속삭이듯이 말한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과연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뉘라고요?’ 우리는 그를 쳐다본다. 그는 긴장한 체구에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며 많은 교육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당신의 환상을 깨뜨리기는 싫지만 사실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 그 책은 별로 가치가 없지요. 물론 당신은 그 안에서 어떤 근본적인 교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책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의 무식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제발 광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안에 있는 몇 개의 정확한 문장으로 만족하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말씀을 완벽하게 보존하셨다고 어리석게 말함으로써 기독교에 손상을 입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적으로 좀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말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역시 또 한 번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잠깐 기다려라. 말로써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사라지자마자 우리는 시간 여행을 통해 전에 배웠던 그 교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그래 맞아! 이런 불신자들은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 있구나.’ 안도의 숨을 내쉬며 우리는 대언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확실히 그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데 아주 민첩하고 교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조차도 언젠가 구원받기를 희망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 대언자가 반문한다.

‘그 사람은 신학 대학을 졸업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완전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수 세기에 걸쳐 그 책을 완벽하게 보존해서 지금 당신과 나에게 완벽한 성경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는 자기 뜻을 굽히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지적 교만과 부패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아주 맹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각 개인에게 말씀하는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원래 처음에 기록된 ‘자필 원본’에만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 권의 책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역본들을 믿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순수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던 말인가?’

이 시대는 참으로 변화와 혼돈의 시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은 두려움과 우유부단함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방황하는 이 세상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세대 동안 전해 주었고 앞으로도 그리 할

것이다.

우리 믿는 이들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참으로 여러 가지를 주장한다. 먼저 우리는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분이 서른 살이 넘도록 사람들 틈에서 살았으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은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그분의 죽음이 사형 선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는 반역자의 상징적 몸짓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험하고 처참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곧 하나님 자신의 피였고 단 한 번의 그 사건이 온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속(代贖)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이상하게 들리는 우리의 주장은 결코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훨씬 더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채로 십자가에서 내려져 땅에 묻혔다가 사흘 후에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다고 담대히 주장한다. 또한 죽은 이분이 부활한 후 사십 일 동안 이 땅에서 걸어 다녔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주장은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이 보는 데서 육신으로 하늘에 올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주장으로 그 절정에 다다른다.

그런데 우리 담대한 크리스천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큰 소망을 남겨 두셨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이 이 세대 안에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불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대속(代贖)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단지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오직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 소위 '믿는 자들의 휴거'라 불리는 것을 포함한 장래의 사건들 즉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잘 예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실제로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질문자

우리의 주장에 대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영터리 같은 주장이다! 너무 과격하다! 새로운 미신이다!’ 라고 외친다.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보여 주기 위해 재빠르게 노력하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증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이 인류 스스로 평화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인본주의 철학과 완전히 상치되기 때문이다.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이 괴상한 사람들(크리스천들)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인본주의자, 정치인, 사회 종교적 집단들이 가르쳐 온 잘못된 철학을 거부하지 않은 것과 크리스천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결코 옳을 리가 없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손해 보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주장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영터리란 말인가? 다 과격하단 말인가?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코 현대의 과학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몇몇 이론보다 더 영터리는 아니다. 과연 우리의 주장이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미신이란 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지난 수세기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논쟁은 계속될 것

이다. 만일 우리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이 단지 우리의 의견들을 모아 놓은 우리의 말뿐이라면 소위 과학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들을 주장하는 우리의 대적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시하려는 말씀들은 절대로 헛된 것들이 아니며 더더욱 날조된 이론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한 권의 책이 있다!

아, 얼마나 귀한 책인가! 우리의 주장은 다 이 책 안에 들어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을 열어서 허약한 말을 탄 채 고무로 만든 창(槍)을 들고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이 이 책과 싸우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면 이들은 곧바로 이 책에 의해 격퇴를 당하고 큰 창피를 당하게 된다. 이들은 다시 무장하고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시멘트로 지은 요새보다 더 견고함을 금방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이들을 산산조각 내고 결국 이들은 상처를 입은 채 두려움에 차서 멀찌감치 후퇴한다.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이기에 이처럼 신속하게 대적(對敵)들을 물리치고 자기는 아무 손상도 받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결코 소설이 아니며 상상력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다. 또한 이 책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수년마다 다시 써야 하는 ‘세상의 과학 책’이 아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히 들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영구히 존재하며 파괴할 수 없고 오류가 없으며 바뀔 수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 책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이론들을 즉시 물리치는 책으로 이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책이다.

‘성경’ (Holy Bible)!

이 책은 항상 자기의 대적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현재 우리 손안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나의 회심 경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나는 스무 살이었고 매우 반항적이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구원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내가 예배당에 꿇어앉아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갖고 와서 한 장 한 장 들추어가며 구원의 진리들을 보여 주었다. 나와 함께 기도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지혜로써 기발한 질문들을 했고 또 하나님은 내 삶의 행로를 정해 주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셨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고 믿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나는 ‘네.’ 라고 분명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분께 간구하면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자 그는 매우 기발한 질문을 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내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라고 나는 아주 쉽게 대답했다.

사실 나는 구원받기 위해 그곳에 갔고 이제 막 그 일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닙니다!’

뭐라고! 아니라고!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구원받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는 완전히 어리석은 자가 되어 버렸군! 아마도 내가 잘못된 대답을 하도록 모든 것이 짜여 있었나 보군!

나는 몹시 화가 났고 크게 실망했다. 만일 그가 말해 준 것 외에 구원받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대체 이제 처음 믿으려 하는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실망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며 아주 투명스럽게 말했다.

‘아니라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가 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는 몸 둘 바를 모르게 되었고 사실 그의 행동 자체가 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이 되었다. 그는 한 손에 성경을 쥐고 그 안의 내용을 펼쳐 보이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이 책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주 깜짝 놀랐다. 지금도 나는 그 귀한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서 방금 그 사람이 설명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며 ‘이 책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라고 나 자신에게 질문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완전하신 속죄(贖罪)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굳게 믿었다. 그 날 내게 그렇게 능력 있게 임한 그 교훈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성경! 이 얼마나 능력 있는 책인가!

이 책은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성경!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책.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말씀.
이 책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권위가 약해지지 않는다.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권위 특히 성경의 권위에 대해 반기를 드는 이 악하고 교만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권위를 가진 책 당당히 서 있는 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인 성경이다.



게임 또는 시합을 하거나 혹은 과학적 조사를 할 때 우리는 대개 일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어떤 기본적인 규칙들을 사전에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규칙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며 좋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했다는 사실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려 할 때도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들을 먼저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이 우리의 연구를 통해 도달할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세우는 데 있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우리는 편견을 모두 배제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려는 규칙들은 첫째, 서로 모순이 없어야 하며 둘째, 모든 연구 대상에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에서 유리하게 판명된 편에서는 조사가 참으로 정당했다고 주장할 터이지만 그렇지 않은 편에서는 그러한 결론의 부적합성을 밝히려고 조사에서 사용된 방법의 미비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사하려는 증거들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규칙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조사하려는 대부분의 증거는 그 안에 많은 진리를 담고 있지만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안의 진리들이

예전에 부당한 방법으로 잘못 평가되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서 지금까지 제대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진리들의 증거를 편견 없는 법정에서 완전하게 들려주기 위해 필자는 이 같은 증거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 편견이 없으며 영적으로 건전한 법칙들을 세우려 한다.

물론 학식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이에 반대하는 발언을 할 것이고 그들과 달리 또 어떤 이들은 이에 동의하는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규칙들을 승인해 달라고 양쪽 사람들에게 호소하려 하지 않으며 단지 결론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것들은 참으로 공정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을 세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에 근거해서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조그만 증거라도 무시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공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판단할 것이다. 우리는 사실들을 다루어야 하고 또한 그것들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것을 한 저명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표현했다.

내게 유리한 몇몇 사실이나 혹은 상상에 의지하여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려 중인 의문 사항과 깊은 관계가 있는 참된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주로 사용하는 원리이다.[1]

성경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점을 간과한다면 절대로 합당하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첫째, 하나님은 성경을 처음에 기록할 때부터 그 일에 간섭하셨다. 이 점에 대해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쉽게 생각해 내는 구절은 아마도 베드로후서 1장 16-21절 말씀일 것이다.

16 ...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17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¹⁸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¹⁹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²⁰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²¹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16-17절에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신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 곧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는 부분이다. 분명히 베드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 즉 자기가 직접 들은 그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에게 의해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즉 ‘성경기록’ (Scripture)이 더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믿게 하려는 장사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위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음성의 명령이나 교훈이 그분이 주신 ‘기록된 말씀’보다 확실하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사실 음성에 의한 진술은 구속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된 글은 결코 유동적이 아니며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다.

자신의 말씀들을 글로 기록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 일단 그 말씀들이 기록되었으므로 그것들은 번복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피할 수

없도록 묶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또 우리가 진실로 자신의 말씀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에 대해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또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여서 기록하게 하는 대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책에 영감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자신이 처음부터 성경에 대해 간섭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³⁾을 받아 기록한 '자필 원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생각들'(Thoughts)이 아니고 그분 자신의 '말씀들'(Words)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에 완전하게 영감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사람들이 순전하며 완전하고 또 믿을 만하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와 같은 진술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모든 근본주의 크리스천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줄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같이 귀한 말씀들을 원래의 '자필 원본'을 기록한 사람들에게만 주시고 후에는 그것들이 역사 속에서 잊히고 이단적 가르침에 의해 희석되며 또 감옥과 같이 깊은 곳에 갇혀서 볼 사람도 혹은 믿을 사람도 없게 만드셨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만일 사라져 버린 그 말씀들이나 사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완전한 말씀들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만일 우리

3) 영어로는 'inspiration' 이고 '숨을 불어넣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총체적 독자 영감(plenary and verbal inspiration)이란 성경의 모든 단어가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은 것이라는 뜻이다.

가 이 시대에 '자필 원본'의 말씀들과 동일한 말씀들을 구할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셨을까?

만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처음에 완전한 책을 쓰고는 역사를 통해 그 책이 잊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초림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책을 주고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진리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책만을 준단 말인가?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하면 실수가 많고 위조된 구절이 많고 또 의심할 만한 구절로 가득 찬 그런 책을 말이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성경을 완전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사람의 부족한 속성과 또 시간이라는 장벽을 극복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성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와 동일한 일을 하실 수 없단 말인가?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책과 신약 성경을 마감하는 책 사이에는 무려 1,700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긴 기간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될 수 있었을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이 무어라 말하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 12:6-7)

The words of the LORD are pure words ... Thou shalt keep them, O LORD, thou shalt preserve them from this generation for ever (Psalm 12:6-7)

다시 한 번 7절을 보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라고 말한다. 6절에 있는 ‘the words of the LORD’ 와 7절의 ‘them’ 은 ‘동일한 말씀들’ 을 지칭한다.⁴⁾ 위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말씀들’ (Words) 즉 ‘단어들’ 을 보존한다.

그분께서 과연 그리 할 수 있단 말인가?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뽀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렘 32:17, 27)

기적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과연 너무 어려운 일일까? 창세기에서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까? 노아의 대홍수를 일으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너무 어려웠던가? 홍해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어려웠던가?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준 것이 하나님께 너무 어려웠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 참으로 하나님께 너무 어려웠던가? 약 1,700년 동안 66권의 성경 기록자들이 사람의 부족한 속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기록한 일이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이 같은 성경 기록의 말씀들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나는 ‘성경의 영감’ (Inspiration)이 ‘성경의 보존’ (Preservation)보다 훨씬 더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4)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7절의 ‘them’ 을 ‘말씀들’ 로 번역했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어떤 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그렇게 완전하게 기록할 수 있던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책을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믿을 수는 없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들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으며 지금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믿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2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은 도대체 어디 있으며 다윗 왕이 시편 12편 6-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디 있단 말인가?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Words)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Words)은 과연 어디 있단 말인가?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마태, 베드로, 바울, 누가, 요한 등 원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해 준 귀하고 완전한 그 말씀들이 지금은 모두 잊히고 없어져 버렸단 말인가? 그 모든 말씀들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또 그것들보다 순전하지 못하고 신뢰할 만하지도 못한 다른 말들에 의해 대체되었단 말인가? 소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Bible believers)이라고 불리거나 혹은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강단에 서서는 자기가 들고 있는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설교한다. 그런데 조용히 홀로 연구하거나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실수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며 그 결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성경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잘못이란 말인가?

과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

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필 원본’에는 완전한 말씀들을 주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이라 불리는 책 안에는 그와 똑같은 말씀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처음에 영감을 통해 완전하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완전히 시간만 낭비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약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야말로 신약 시대 초기에 살면서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마태, 누가, 요한, 베드로 등의 제자들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한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그분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통틀어 이 성경책 하나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검은색 표지 사이에 제본된 말씀들뿐이다. 이렇게 제본된 책이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말씀들 전부이므로 이것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유명한 성경학자 피커링(Wilbur Pickering)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표현했다.

만일 성경이 보존되지 않았다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교리는 지금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며 단지 학문적 주제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이 시간에 우리가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말씀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혹은 어떤 것이 그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교리는 아무 쓸모 없게 된다.[2]

그렇다! 만일 하나님께서 시편 12편 6-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속성에 상반되는 일 곧 예전에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시 말해 그분은 헛되이 시간을 소비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필 원본’에 있던 것과 똑같은 말씀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자필 원본’의 감동 그 자체가 헛된 것

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이 세상의 다른 책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정말로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간섭하신 ‘영적인 책’(spiritual book)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성경의 증거를 공부하려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제1법칙

제1법칙: 우리는 성경이 영적인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책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그분이 그와 똑같은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성경을 보존하시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위대한 모방자

이 같은 법칙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져온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능동적으로 간섭하셨다면 자연히 그분을 (혹은 그런 일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세력도 존재해야만 하지 않을까? 사실 성경을 크게 대적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사탄이다!

성경도 이 세상의 다른 책처럼 종이 위에 인쇄되어 누구나 다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간섭하신 ‘영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부정적인 능력의 소유자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사탄에 대해 우리 모두가 아는 일반적 진리 중 하나는 그가 한때

하늘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서 불법이 발견되었고 그 결과 그는 내어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가 행한 범죄는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처럼 경배 받기를 원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사야서 14장 13-14절 말씀은 이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사 14:13-14)

그는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사탄은 그 같은 사악한 목표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따라서 그는 지금도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방해야만 한다.

사탄은 가장 위대한 모방자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분을 대신하려는 사탄의 노력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때부터 그는 전 인류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모세가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자 사탄의 마술사들 역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모조품 재앙을 만들었다.

수도원이나 회교 사원 그리고 큰 성당들은 사탄을 섬기는 종교적 열심을 보여 주는 증거이며 또한 자신의 추종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는 그가 큰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그를 루시퍼, 바알, 아스다롯, 마리아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당신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를 주어 보라. 그러면 그는 진리의 일부를 취해서 속임수로 이어진 방법으로 그것을 왜곡시킬 것이며 또한 할 수 있다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마저

도 속이려 들것이다(마 24:24).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필사적으로 간청하는 바가 바로 '자기에게 꿰어 엮으려 경배하는 것'임을 금방 발견하게 된다.

사탄은 온 우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모방자이다. 하나님의 참된 계시에 대해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의 모조품을 만든다. 예를 살펴보자.

하나님의 방법과 사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사탄의 방법
한 하나님(one God)	많은 신(many gods)
한 그리스도(one Christ)	많은 그리스도(many christs)
한 복음(one Gospel)	많은 방법(many ways to heaven)
한 기독교(one Christianity)	많은 종교(many religions)
한 성경(one Bible)	많은 성경?(many bibles?)

하나님께서 어떤 긍정적인 일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사탄 역시 모조품을 통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받을 존귀와 경배를 훔쳐가려 한다.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드러난 사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경배'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살펴 보라. 또한 이 같은 경배가 하나님과 그분의 대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참 기적들 - 이런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음 - 을 모방하려는 사탄의 모방 기적들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하나님의 경고

사탄을 지은 하나님은 그가 운행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자신의 기적들을 모방하려는 사탄의 능력에 대해 조심하라고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셨다.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이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네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신 13:1-3)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기적들을 잘 알고 계시며 또 그 결과를 심판하기 위해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사탄의 거짓 기적들을 대적하려면 반드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만 한다. 욥도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 만일 이브가 사탄의 계락을 거절했다면 그 녀도 분명히 그리했었을 것이다.

사탄의 욕망

사탄은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하며 이것이 바로 그의 모든 행동의 근본 원인이 된다. 자신의 가장 큰 원수인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하기 위해 사탄이 사용한 방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1.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시험을 한다(마태 복음 4장). 물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경배받는 일에 실패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 하셨다(마 4:10).

2. 사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를 만든다(마 24:23-24). 사탄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잘 다룬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의 사역에 의해 지옥으로 들어갔으며 여기에는 부다, 모하메드, 간디, 조셉 스미쓰 등이 포함된다.
3. 사탄은 많은 이들의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단지 한두 명의 거짓 증인들을 제시하나 이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마 26:60; 막 14:50). 반면에 예수님께는 많은 증인이 있었으며 그분의 죽음 이후에 그분이 부활한 것을 본 증인들은 무려 500명이 넘었다(고전 15:16).
4. 사탄은 원래 그리스도는 없어졌고 따라서 어느 곳에서도 그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거짓말을 만든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자신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마 28:13-14).

사탄이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방자’이다.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세 가지를 살펴보자.

1.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임하는 대왕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신다. 만일 사탄이 경배를 받으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자신의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로 그분을 대

체해야 한다.

2. 기독교: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젓값을 다 치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이런 크리스천들은 현재 하늘에 계신 자기들의 구원자로부터 떨어져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사탄이 경배를 받으려는 일에서 이들이 가장 큰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그는 이들을 공격하고 자기의 거짓 크리스천들로 이들을 대체해야 한다.
3. 성경: 성경은 성령님의 가장 큰 업적이다. 이 책은 땅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하늘에 계신 구원자께로 가는 생명 줄이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사탄이 경배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책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의 거짓 성경 중 하나로 이것을 대체해야 한다.

이제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만일 천국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실이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사실 그렇게 죽으셨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 다시 오신다면(사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만일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왕좌에서 몸소 다스리신다면(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거짓 없이 이야기해 주는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별 필요가 없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과 사람 사이의 전달 매체로서 성경을 사용하시며 그것을 통해 자신에 관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혹은 알아야만 할)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

만일 사탄이 성경을 제거할 수 있다면 하늘로 향한 우리의 생명 줄을 끊을 수 있다. 만일 그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모든 노

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분께서 인도하는 모든 진리는 성경에 들어 있다. 만일 사탄이 자기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격해야만 한다.

제2법칙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제2법칙은 ‘사탄이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철저히 깨뜨리려 하며 결국 자기 자신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탄의 성경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말만을 담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일이다. 그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해서 중요한 교리를 변개시키고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한다. 따라서 위조지폐와 참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 이 둘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듯이 참 하나님의 성경과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도 자세히 비교해 보아야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기본 법칙 복습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기본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그 책을 기록하셨으므로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초자연적 능력으로 그 책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2. 사탄은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한다. 그는 하나님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철저히 깨뜨리려 하며 결국 자기 자신의 역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대체시키려 한다.



거의 지난 100년 동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는 질문으로 함축되는 성경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세상이 성경을 자기들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우리는 이에 대한 반대를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세상이 성경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신학자들 역시 에덴동산 사건 이래로 성경(말씀)을 대적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수행해 오고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전쟁은 길을 잃어버린 세상과 거듭난 크리스천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다. 지난 100년간 크리스천들이라 불리는 집단 내에서 한 종류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20세기 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단지 하나의 성경 즉 『킹제임스 성경』만이 사용되었다. 물론 다른 역본들도 있었지만 주후 1603년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의 분부에 의해 번역이 시작되어 1611년에 출판된 이 성경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성경』(Authorized Version)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임스 왕 자신이 이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을 읽고 감명을 받아 그 권위를 널리 인정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자연히 ‘권위를 부여받은 성경’ 혹은 줄여서 『권위역 성경』(AV)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 저명한 본문 비평 학자인 힐즈 교수(Dr. Edward

Hills)는 이렇게 말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종종 『권위역 성경』으로 일컬어지곤 하는데 사실 교회나 정부의 공권력이 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모든 계층의 보통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예임에 분명하다.[3]

또한 러크맨 박사(Dr. Peter S. Ruckman)는 이렇게 지적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1611년판 『권위역 성경』은 왕실의 후원이나 추천도 받지 않았고 또한 의회의 영향력도 받지 않았으며 대학 출판부는 그 성경과 함께 어떤 다른 번역본도 출판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4]

맥클루어(Alexander McClure)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 기원과 역사가 너무도 강력하게 이 성경의 신뢰성을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승인을 받아 표준역으로서 신속하게 널리 사용되었으며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한 왕실의 어떤 선전이나 의회의 영향력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5]

맥클루어의 저서에 있는 위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각주가 첨가되어 있다.

에딘버그 대학의 학장인 리 박사(Dr. Le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강제로 『권위역 성경』을 사용하라는 법령의 선포나 혹은 그와 비슷한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앤더슨의 연대기에서 언급되었듯이 시몬즈 박사는 ‘현재 『킹제임스 역본』은 어떠한 권위의 개입 없이 자신의 길을 홀로 개척하며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역본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려고 발표된 어떤 선포령, 법령 혹은 규약 등의 자취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권위역 성경』의 번역이나 출판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왕의 개인 비용이나 국고에서 한 푼도 기부된 바가 없다는 것도 최근에 밝혀졌다.

그러나 1800년대 후반에 웨스트코트(Brooke Foss Westcott)와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라는 이름의 두 학자가 한 이론을 제기했다. 그들의 이론은 한 마디로 『권위역 성경』의 근간이 되는 ‘전통 본문’(Traditional Text)이 사실은 성경을 필사한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편집자들이 조작한 ‘합성 본문’이며 따라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론은 마치 다윈의 진화론처럼 수년 동안 단지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다. 이 이론은 결코 증명된 적이 없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 풀러(Fuller)는 ‘최근 들어 학자들의 동향은 원래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입장에서 벗어나 있다.’는 마틴의 말을 인용하며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다.[6]

성경 변경의 시조가 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은 이 책의 뒷부분(제8장)에서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혁명

영국에서 발생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혁명적 이론은 1870년 경에 무르익게 되었고 1871년에 영국의 ‘성경개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출간된 모든 현대 역본들은 이들이 변개시킨 ‘수정 그리스어 본문’(Revised Greek Text)을 근간으로 해서 번역된 것들이다.

자,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과연 어떤 본문이 ‘자필 원본’의 본문에 더 가까운가? 물론 우리의 최종 질문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영어로 된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20세기로 들어서서도 전 기독교계는 여전히 동일한 질문 즉 ‘지금 우리에게 영어로 기록된 완전한 성경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해 양분되었고 이 전쟁은 아마도 20세기 말까지도 계속될 것이며 만일 주님이 재림을 늦추신다면 21세기에도 계속될 것이다.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어로 기록된 완전한 성경이 있는가?’

이것은 전혀 놀랄 만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 문제는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동안 한 번 혹은 여러 번 부딪히게 될 자연스러운 문제이다. 만일 독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순진한 어린아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이 없는 학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에 성경을 쥐여 주고는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성경을 요리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또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책을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학자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지만 그래도 유창한 말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완전한 성경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줄 때 결코 놀라서는 안 될 것이다.

믿지 않는 학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최종 권위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결코 책과 — 비록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할지라도 — 경쟁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창조되지 않고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이론을 믿는다. 그러나 만일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조사한다면 그것이 절대로 사실일 수가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불신자를 화나게 만드는가? 아니다! 그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최종 권위로 만드는 것임을 잘 알기에 그것을 굳게 믿으려 할 것이다. 그가 진화론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맹세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소수의 광신자들(참 크리스천들)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관한 크리스천 학문 곧 소위 신학이라 불리는 학문을 다루는 데서도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 크리스천 학자

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는 분명히 ‘성경 속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영어 성경 하나를 건네주면 ‘거기에는 없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떻게 근본주의 성경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설교단에 서서는 ‘이 성경은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선 설교단을 내려와서는 그 안에서 오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는 주장이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 주는 매우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아니라면 사실 이 같은 모순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절대적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거둬나지 못한 이 세상과 우리가 같지 않다는 데 대해 우리는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절대적 지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지침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펼쳐서 높이 들고는 이렇게 외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하며 오류가 없고 실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외치지만 속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성경이 ‘자필 원본’이라면 믿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실수투성이 역본에 불과해.’

오늘날 많은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어로 완전히 보존해 주셨다는 사실을 격렬히 거부한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참된 성경은 결코 우리 손에 짚 수 있는 어떤 영어 성경도 아니다.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완전한 영어 성경은 없다고 말할 때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어 필사본에 대해 조금이라도 연구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어 필사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 번역한 글이 제대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을 쉽사리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어와 그 밑에 영어가 동시에 기록된 『그리스어/영어행간성경』(*Greek/English Interlinear Bible*)을 살펴보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완전한 성경이 없다.’고 믿는 — 그것도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믿는 — 어처구니없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단 말인가? 또한 성경 문제로 인한 크리스천 형제들 간의 분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위의 질문에 대해 몇몇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즉각 떠오르는 첫 번째 대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이러한 분쟁이 생긴 주된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필사본들이 현재 기독교계에 범람하고 있는 새로운 역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소수의 광신자 집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독교 역사는 이 같은 대답을 지지하지 않는다.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한 본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루터, 칼빈, 웨슬리, 무디 등 진실한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사용해 온 본문이다. 이 본문은 현존하는 방대한 필사본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본문일 뿐만 아니라 최고로 좋은 그리고 가장 오래된 본문도 지지하는 본문이다. 또한 이 본문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신자들이 줄곧 사용해 온 본문이다.

문제점!

열등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필사본에 기반을 둔 새로운 역본들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낫다는 주장이 기독교 내에 세력을 떨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이 일은 사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발생한 큰 실수이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용해 온 가장 좋은 본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즉 기독교 내의 새로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대개 이들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교리와 역사에 있어서 명백하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향하는 필사본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카톨릭 교회에 의해 순교 당한 크리스천 형제들의 피를 통해 지난 수 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한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른 바 ‘좀 더 나은 그리스어 본문’에서 나온 ‘새 역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초기 크리스천 형제들이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사용하기를 거부한 그 부패된 성경을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부패한 사본을 사용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진리의 속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며 인본주의를 날개 삼아 크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 주의의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또 그것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닌가?

나는 위의 말이 사실 매우 강경한 진술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통해 역사의 진실만을 밝히려 할 뿐이며 결코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은 형제들을 비난하려 하지는 않는다. 나는 먼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대한 그들의 진술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며 그 뒤 이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나의 형제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듯이 진

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그들을 대할 것이다.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100년 전쟁’은 배도한 옥스퍼드 운동⁵⁾의 지지자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흠정역 성경』의 모체가 된 ‘그리스어 공인본문’(*Received Text*)⁶⁾을 자기들이 만들어 낸 로마 카톨릭 그리스어 사본으로 대체시키고 자기들의 본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종교 개혁자들과 근본주의 신학자들의 위신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배도자들의 일제 사격에 대해 버건(Burgon), 윌슨(Wilson), 스크리브너(Scrivener), 머로(Mauro), 호스키어(Hoskier), 쿡(Cook), 살몬(Salmon), 베킷(Beckett), 말란(Malan), 그리고 윌켄슨(Wilkenson) 같은 신실한 성경 신자들이 반격을 가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성경 신자 및 학자들이 계속해서 맹렬하게 반격을 가하고 있다.

맹목적인 분노!

성경 문제로 인해 편이 갈린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광신자, 이교도, 파당을 짓는 자, 성경 거부자, 마귀에 사로잡힌 자 등으로 부른다. 양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우며 지키려 했던 사실들이 전투로 인한 먼지로 뒤덮여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계

5) 183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영국 국교회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의, 예식 등을 접목시켜 부활시키려 했던 운동

6) ‘공인본문’(*Textus Receptus* 혹은 *Received Text*)은 보통 ‘TR’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어 성경 본문은 많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이 본문을 수용했다는 의미로 ‘공인본문’(公認本文)이라 하며 결코 공식적으로 누가 이 본문을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본문’(公認本文)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후자의 의미로 ‘공인본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또한 ‘표준원문’이라 부르곤 하는데 사실 누구도 그리스어 신약 본문에 표준을 정한 적이 없으므로 이 같은 명칭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속해서 서로를 치고받다 싸우고 있다. 또한 이들은 매우 직설적이며 크리스천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어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곤 하며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들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서로를 물고 혈뜬다.

나는 결코 양편의 사람들이 탁자에 마주 앉아서 훌쩍거리며 차를 마시고 아침을 먹으며 부드럽고 조용한 어조로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도시의 부드러운 신사가 아니다. 사실 나는 마귀, 죄, 이단 그리고 배교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매우 호전적인 성경 신자이다. 다만 나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근본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진정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교묘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두 편으로 갈린 자신의 적들에게 — 즉 프로테스탄트들에게 — 다음과 같이 말해 왔다. ‘당신과 그가 싸운다면서요, 내가 저고리를 들고 있을 테니 잘 싸워 보시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아주 유효한 군사 전략 중 하나는 ‘분열시킨 뒤 정복해라.’가 아니었던가? 실제로 프로테스탄트 근본주의자들은 두 편으로 분열되어 ‘카톨릭 성모교회’ (Holy Mother Church)의 발아래 자기들의 저고리를 맡기고는 지난 100년간 ‘서로 다른 편을 구획을 훑치는 일’을 해 왔다. 기독교 안에서의 이런 싸움을 보고 로마 카톨릭 교황이 함박웃음을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과연 누가 우리의 적인가? 이제는 그를 찾아내서 그와 싸우자. 오늘날 성경 전쟁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 내의 양 진영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믿고 가르치며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과 일치하지 않는 형제들의 결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그것을 공격하는 일인 것 같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나는 이 말만 하겠다. 만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내가 믿는 바가 거짓으로 입증된다면 나는 기꺼이 '상대편이 제안하는 바른 성경'으로 바꾸겠다. 다시 말해 내가 믿는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좋은 성경을 누가 줄 수 있다면 나는 언제라도 그 성경을 나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적이 있으므로 이제 나는 프로테스탄트 근본주의자인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그 적을 대적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아님을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의 원수는 서로 치고받으며 싸움을 하는 크리스천들의 저고리를 들고 있는 바로 그 사람(단체)이다.

이 성경 전쟁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맡은 적군의 개인 참호 안으로 뛰어들어 적군 병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결국 서로를 목졸라 죽게 하는 병사의 역할과 비슷하다.

우리는 종종 양편에서 불평하는 이들과 마주쳐야 하지만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대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 주며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주장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릇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갈 4:16)

시험해 보라

그런즉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벧후 1:21)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 12:6-7)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는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과연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words)이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들이 이미 사라져 버리고 없는가?

첫 번째 구절인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때에 능동적으로 활동하셨음을 보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 ‘영감을 받은 책’이라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떠한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이다. 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실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분은 바로 큰 능력의 소유자 하나님이였다.

두 번째 구절인 시편 12편 6-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수한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6절) 그것들을 보존하는 중요한 일도 하고 계심을 보여 준다. 6절의 주어가 ‘그분의 말씀들’ 이지 결코 그분의 생각들이 아님에 주목하라! 인본주의 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말씀들을 주시며 또한 보존하신다.

세 번째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12편 7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보강해 주신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자신의 말씀들이 — 자신의 생각들이 아니고 —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하늘은 여전히 우리 위에 있고 땅은 여전히 우리 발밑에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들도 우리의 손이 미치는 곳 즉 여기 이 땅에 있어야만 한다. 이 땅 어딘가에 말이다.

만일 그분의 말씀들이 그리스어 ‘자필 원본’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들은 그리스어 학자 정예 부대에게만 제한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행하던 방법이 결코 아니다. 언제나 그분은 학자적이고 종교적인 냄새를 피우는 소수를 지나치사 자신의 말씀들을 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 당시에는 단지 바리새인들 혹은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완전히 틀을 갖춘 이른바 공인된 구약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로서 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려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소수의 학자들을 지나치사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말씀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고 성직자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지침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요 16:13).

만일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리스어 본문’에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 이제 또다시 필수적으로 고등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철학을 택했다라면 결코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들은 학문을 연구하지 않았고 성경 또한 그들이 마치 배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행 4:12-1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베드로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 사도행전 1장 15-22절, 2장 14-36절, 4장 8-12절에 기록된 그의 언변을 보라. 비록 배우지 못해서 무식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교육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려 할 때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결코 '교육을 반대하는 사람' (Anti-education)도 아니며 '대학을 반대하는 사람' (Anti-college)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첫째 조건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행 4:13).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그들은 자기 손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소리로 들려 온 하나님의 말씀들'보다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로 주신 말씀들'보다 더 확실한가? 시편 138편 2절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이셨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된 영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가?

공통어

전 세계 공통어에 대해 논의할 때 『흠정역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영어로 완벽한 성경을 주셨다면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언어로도 그와 같은 완벽한 성경을 주셔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독일어, 불어, 일본어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 언어에도 완전한 성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같은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이 지구 상에는 그 외에도 다른 언어가 많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모두 그리스어로 기록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도 물론 이 지구 상에는 수백 종의 언어가 있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사도행전 13장 46절, 28장 28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11절 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주기로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 시대 세계의 공통어인 그리스어로 그것을 제공하셨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질문 : 언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의 완벽한 책으로 합쳐졌을까요?

답변 :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공통어가 될 영어를 택하셨을 때

중세 암흑시대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이미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국가들의 언어는 전 세계의 공통어가 될 수 없었다. 비록 그 당시에 훌륭한 ‘라틴어 역본’ 및 ‘시리아어 역본’이 있었으나 이런 역본들의 언어는 전 세계적인 공통어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은 로마 카톨릭 주의를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 즉 ‘순결의 섬’과 아주 묘사적이고 간단해서 자신의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필요로 하셨다. 그런데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필요충분조건은 다 영국에서 충족되었다. 그곳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굴레를 벗어난 민족이 있었고 또 북극에서 남극까지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모스크바 및 북경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속으로 뻗어 가려는 새로운 언어가 있었다. 다름 아닌 영어가 바로 그러한 언어였던 것이다!

현재 영어는 만국 공용어이기 때문에 구소련의 항공기 조종사들도 이 말을 배웠으며 동양의 사업가들 역시 사업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 또한 영어는 사람들이 달을 정복한 뒤 달에서 처음으로 입밖에 낸 언어였다! 지금 영어는 전 세계에서 모든 민족들이 배우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언어가 바로 영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기에 가장 정결한 형태의 영어를 사용하려 하셨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사용된 영어가 지금까지의 영어 역사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정결한 형태의 영어였음은 참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맥클루어는 다음과 같이 『흠정역 성경』의 영어를 찬양하고 있다.

그때 즉 17세기 초반까지 영어는 큰 변화를 많이 겪었고 드디어 순도와 강도에 서 최고봉에 올랐다. 『흠정역 성경』은 영어로 기록된 고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이 성경은 학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어체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7]

영어는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정형화되었다. 영어는 사실상 덴마크어, 고대 노르웨이어, 라틴어, 그리스어, 불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방언이 섞인 매우 유동적인 언어였다. 그러나 1500년경에 있었던 구두 발음법, 어형변화, 그리고 철자법 등의 대개혁으로 인해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영어는 굳건히 정착되었다. 사실 이 모든 변화는 영적으로 볼 때 궁극적인 영어 작품 즉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을 위한 준비였다.

『흠정역 성경』이 17세기에 공통적으로 쓰이던 영어로 출간되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공통적으로 쓰이는 영어로 다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이 같은 주장에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 우리는 『흠정역 성경』에서 사용한 영어가 그 당시의 공통어였을 뿐만 아니라 영어 역사에서 가장 정결한 상태의 영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사실 영어는 1611년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모습까지 계속해서 변질되어 왔다. 그러므로 성경을 ‘현대 영어’로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록 고의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오늘날의 변질된 영어 속에 넣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같은 시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 또한 그런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슨 수치인가!

고어 반대로

『흠정역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크게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성경에 ‘고어’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순수하고 묘사적인 원래의 영어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잘못으로 부과된 벌금을 과연 성경이 물어야 하는가?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바 소위 ‘그 성가시고 오래된 고어’의 의미를 잘 익혀서 우리의 어휘에 덧붙여 사용했다라면 현재의 영어는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 우리 스스로 참으로 묘사적인 어휘들을 성경에서 제거하여 성경이 천박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과연 그 성경 안의 단어들이 ‘고어’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오래된 골동품’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상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혹시라도 그런 상점의 주인은 그 골동품이 오래되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비싼 값을

매겨 그것들을 진열해 놓은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런 일은 지금부터 백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가 몇 년 전 대서양 연안에서 잡힌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물론 그 물고기는 멸종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다! 또한 과학자들이 그 물고기가 백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주장했으므로 그들의 말을 믿고 누구나 다 그러려니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이 세상이 백만 년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성경과 과학적 증거들이 지구의 생성 연대를 6,000년 정도라고 확실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살펴보자.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Only let your conversation be as it becometh the gospel of Christ)

여기에서 ‘행실’로 번역된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생활태도’나 ‘친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대화’나 ‘담화’를 의미하는 말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행실’ 대신에 ‘삶’ 즉 ‘lif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행실’이라는 의미의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삶’을 의미하는 ‘life’보다 더 묘사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삶’(Life)이 사람들과 ‘대화’(Conversation)하는 것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 준다.

그렇다면 현대 영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단어들은 더 이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다루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올바르게 답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성경 그 자체가 오늘날의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현재 그 의미가 변해버린 단어들을 성경이 어떻게 다루는가 살펴보고 그대로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성경이 ‘고어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 분명히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리가 없다! 사무엘상 9장 말씀을 살펴보자.

1 이제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사대 손으로 베냐민 족속이며 능력 있고 강력한 자더라.

2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의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3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리며 자기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니

4 그가 에브라임 산과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들이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것들이 거기에 없더라. 그가 베냐민 족속의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니라.

5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치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삼상 9:1-5)

위의 성경 구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준다.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나귀들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기스가 자기와 및 자기의 종을 염려할까 두려워서 그것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가기로 결심했다.

6 그(중)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 줄까 하나이다, 하므로

7 그때에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우리 그릇에 있는 빵을 다 썼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예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매

8 그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게 여기 은 일 세겔의 사분의 일이 손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 달라 하겠나이다, 하니라. (삼상 9:6-8)

자, 이제 다음 구절에 ‘고어’가 그 모습을 드러낼 터이니 주의하여 보도록 하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주신다!

9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쭙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the seer)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10 그때에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잘 말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하고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도시로 가니라.

11 그들이 도시를 향한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어린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선견자(the seer)가 여기 있느냐? 하매 (삼상 9:9-11)

부디 하나님께서 11절 본문에 소위 ‘고어’라 할 수 있는 선견자 (the seer)를 그대로 남겨 두고 있음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분은 결코 그 단어를 소위 현대어라 할 수 있는 ‘대언자’ (the prophet)로 바꾸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분은 본문을 바꾸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본문에서 사용하려고 선택한 단어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지 결코 ‘현대판’ 혹은 ‘최신판 단어’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다시 쓰지 않고 어떻게 ‘고어’를 처리하는가를 보여 주는 성경적 실례 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 근본주의자들은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인다.

나는 우리가 위의 말을 글자 그대로 행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영어가 변천되는 과정에서 퇴색된 단어의 의미를 정말로 그 단어가 뜻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나는 결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로 달려가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사전에 의존하고 ‘고어’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용례’ 등과 같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지 말며 좋은 영어 사전을 참조하여 그 단어가 보여 주려는 그대로 그 본문을 지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부끄러운 말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본문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말씀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온 그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것들을 향상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위대한 설교자는 ‘성경은 다시 쓸 필요가 없고 다시 읽을 필요만 있다.’고 말했는데 나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 (Bible believer)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큰 목소리로 외치며 확실히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책을 우리 스스로 읽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고향으로부터 온 긴 편지를 받고는 3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할까? 혹은 3 페이지는 그냥 넘기고 4 페이지는 빨리 읽고 5 페이지는 대충 넘기고 6 페이지는 반만 읽을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페이지를 이해하기 위해 건너 뛴 1 페이지로 되돌

아갈까? 만약 이렇게 한다면 참으로 우습지 않겠는가?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 자기가 사랑하는 고향과 그 편지를 쓴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병사는 분명히 그 편지의 모든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뚫어져라 쳐다보고 다시 읽고 또 읽을 것이다. 그 안의 모든 말들을 말이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사모하는 자신의 군사들인 우리에게 ‘고향으로부터의 편지’를 보내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읽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분은 시편만 읽으라고 성경책 전체를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뿐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읽어야 한다. 고린도전후서에 영감을 주신 동일한 저자께서 역대상하에도 동일한 영감을 주셨다. 우리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말라기서도 읽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읽어야 한다!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도착한 후 임무가 끝난 것처럼 조용히 성경을 옆으로 치워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두 가지 사건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죽음과 휴거! 이 사건들 이외의 다른 이유들은 정말로 나약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외친다. ‘그러나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깊고도 어려운 뜻을 지닌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어려운 구절을 발견하면 그들은 대략 5분 정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시간을 드리고 그다음엔 답을 찾기 위해 ‘좀 더 나은 역본이나 주석서’를 찾아본다. 그들은 마치 차를 몰기 원하는 네 살짜리 어린아이와 같다. 그 아이는 정말로 차를 몰기 원한다. 운전하기 원하는 그의 동기는 순수할지 모른다. 그는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당장에 답을 원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없으며 심지어 자전거 타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그는 세발자전거보다 더 큰 그 어떤 것도 운전할 수 없다. 완전히 성장한 후에 비로소 그는 더 크고 더 복잡한 것을 운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이다. 우리는 처음 성경책을 읽으면서 네 번 혹은 다섯 번 혹은 여섯 번 읽어야 알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 요구하곤 한다. 물론 우리는 진지하게 그 답을 원한다. 우리의 동기는 순수하다. 그 답을 다룰 수 있다고 믿고 당장에 그것을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 번째 혹은 열한 번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기로 준비해 두신 것을 결코 처음 읽을 때에 보여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 성장해야만 하며 거기에는 지름길이 따로 없다. 성경 주석서들과 다른 역본들로 가득한 선반은 지름길로 가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허사가 되고야 말 것이다. 나는 결코 성경 주석서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주석서들이 성경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으며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신 성령님을 대체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오직 나는 우리 손에 있는 단 하나의 최종 권위인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시간을 늘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특별한 성경 역본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단 말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대신할 다른 영어 역본들은 완전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증거들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필사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조사해 보자.



계열 분쟁

사본들과 사본들의 분류 그리고 본문들은 다음에 검토할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존하는 필사본들이 시작된 중요한 장소들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이다. 이후에 전개될 내용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의 사본들은 대개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며 이 두 집단은 여러 영역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모든 성경 역본은 대개 이 두 종류의 필사본 집단 중 하나를 근거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본 집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한 하나님(one God)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올바른 사본 집단 역시 하나뿐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성경 번역을 위한 본문들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두 종류의 필사본들이 생겨난 고대 도시들을 조사해 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작업이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기본 법칙'을 세웠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두 가지 '기본 법칙'을 복습하고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이 두 가지 '기본 법칙'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 줄 때부터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한 '영적인 책'이라는 것을 확증했고 따라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성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일한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둘째로, 우리는 사탄이 경배받기

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증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바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성경 역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파괴하기 위해 매우 활발히 일해 오고 있다.

성경 필사본의 두 계열 혹은 두 집단 사이의 불일치가 주로 하나님의 신성과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는 처음의 ‘자필 원본’에 담겨 있는 것과 동일한 ‘보존된 본문’ 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변경시킨 본문’이라는 것을 쉽사리 눈치챌 수 있다. 사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공격했고(마 4:1-11) 앞으로 있을 7년 환란기에는 스스로 그분을 대신하려고 시도할 것이다(계 13:1-8). 만일 누가 일어나서 진리의 원수인 사탄이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 주신 것 중 유일하게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것 즉 성경을 그대로 놔두겠는가? 결코 아니다. 사탄은 성경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탄은 가장 저속한 성경 본문 비평가가 될 것이고 자신의 역본으로 참 성경을 대신하려 할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우리는 ‘자필 원본’ 으로부터 시작하여 두 계통 혹은 두 집단의 성경 사본 역사를 살펴보려 한다.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친히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수행하셨다. 따라서 그분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택하여 자

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사실 신약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역설’이었다. 신약 성경은 그때까지의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한 완전히 낯선 것이었다. 예수님 시대 이전까지 이 세상은 성경적으로 볼 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 그룹은 ‘유대인들’(Jews)이었으며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즉 선민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율법서, 대언서, 시가서 등 현재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39권의 책들의 가르침 위에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지상에 임하시 자기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고 예루살렘에 기초를 둔 왕국을 건설할 통치자를 기다렸다.

한편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다른 집단은 ‘세상의 이방인들’(Gentiles)이었다. 이방인들은 신약 성경에서 대개 ‘그리스인’(Greeks)이라는 집단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그들 역시 매우 종교적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섬기는 이교도들처럼 행했다. 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의 중심 도시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온 도시가 ‘온통 우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행 17:16).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을 본 후 사도 바울은 ‘너희가 너무 미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내가 알았노라.’(행 17:22)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사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비기독교적인 교육과 철학과 종교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테네와 같이 이교도의 종교적 관습을 갖고 있던 또 다른 지역은 로마였다. 로마에서는 수많은 이교도 신 — 남신 및 여신 — 을 숭배하기 위해 신상들을 세운 사원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 신상들 중 몇몇은 주피터, 아폴로, 미네르바 등 그리스/로마 신화를 통해 이름이 잘 알려진 신들의 형상이다.

한편 그 당시 교육과 철학으로 유명했던 또 다른 이교도들의 도

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다. 당시의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는 도서관과 학교 때문에 유명하게 되었고 신약 시대 전에는 세계 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약 100년경에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교도 철학의 대부분을 아테네로부터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된 ‘신약 시대의 기독교회’ (New Testament Christian Church)가 생겨나자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신약 교회를 아주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았다. 사실 유대인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교의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했고 이방인들은 크리스천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이 완성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했다. 이 같은 크리스천들의 주장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교도 철학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어긋나는 것이었다. 또한 기독교는 이교도들의 아름다운 사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의 미신적인 종교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고전 1:22-23)

신약 시대의 교회는 성장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지역과 이교도 철학이 넘치는 지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어떤 새로운 지역이 필요했다. 또한 그 장소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리한 지역이어야만 했다. 스테반이 죽었을 때 신자들은 주로 베니게, 키프러스, 그리고 안디옥으로 향했다(행 11:19). 그러나 이 모든 도시 중에서 최종적으로 성령님께서 기독교 활동의 근거지로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안디옥이었다.

안디옥은 주전 300년경에 셀레쿠스 1세가 세운 도시이다. 안디옥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지중해까지 그리고 아라비아 어로부터 소아시아까지의 고대 무역 항로의 십자로에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우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안디옥이 오론텐스 강에 인접한 항구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두 도시 즉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의 세속 역사와 더불어 성경이 이 두 도시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지 검토하려 한다.

어떤 주제나 혹은 단어가 성경 속에서 처음 언급되는 구절을 공부해 보면 대개 그 주제나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이것은 성경 신자들 간에 ‘첫 번째 언급의 법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어떤 주제나 단어가 언급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성경 해석의 황금률과도 일맥상통한다. 손수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 책 안에 있는 모든 단어의 뜻도 주셨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집트

성경 사본들의 두 계통 중 한 계통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생겼으므로 우리는 먼저 이집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집트는 창세기 12장 10-12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러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래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 두리니 (창 12:10-12)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이 이집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여 주고 있음을 금방 발견하게 된다.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다름이 아니라 사탄의 원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 즉 핏줄이 끊어지는 것에 관해 두려워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 뒤에 나오는 이집트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그를 파라오의 소유물을 맡은 직무 수행자요, 호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 37:36)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 역시 부정적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 도시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출 1:11)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이집트에서 박해받는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을 발견한다. 같은 장의 15, 16절에는 사탄이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할 ‘씨’를 공격하려고 이집트의 파라오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집트는 ‘속박의 집’ 곧 ‘종살이하던 집’으로 불리며 신명기 4장 20절에서는 ‘쇠 용광로’라고 불린다. 또한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더불어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문장이 주는 진지한 경고에 주의하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이집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예레미야서 46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징계가 나온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무리와 파라오와 이집트를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왕들과 더불어 벌하리니 곧 파라오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또 에스겔서 20장 7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 보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눈의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 이니라, 하였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성경이 이집트에 대해 맨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구절에서는 배도한 예루살렘이 소돔과 이집트로 비유되어 있다.

그들(두 증인)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이니라. (계 11:8)

위에서 이집트에 대한 성경 구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자께서는 이런 몇 개의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음을 쉽게 깨달았을 것이다. 자, 이제는 우리 연구의 초점이 될 이집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살펴보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의 중심지였고 거기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은 주전 3세기부터 고대 그리스 시인이나 작가들의 본문을 복구하

기 시작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플라톤의 철학과 구약 성경을 접목한 인물이다. 초기 그리스천들 중 어떤 이들도 필로의 철학을 신약 성경에다 적용시켜 소위 ‘영지주의’ (Gnosticism)⁷⁾라는 이단을 만들었다. 알렉산드리아는 또한 ‘영지주의’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바실리데스(주후 125년경)와 발렌티누스(주후 120-160년경) 등의 유명한 영지주의자가 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

한편 주후 180년경에 펜태누스라는 사람이 복음 선포자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알렉산드리아에 교리 학교를 설립했고 주후 19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이 학교를 인수했으며 결국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교의 창설자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A. 알렉산드리아 학교의 학자들

1.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주후 150-217년)

그는 ‘알렉산드리아 기독교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철학이 기독교의 하녀라고 믿었으며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른 것과 섞지 않고 순수하게 전하는 것보다는 이교도들의 철학으로 옷 입혀서 전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2. 오리겐 (주후 185-254년)

오리겐에 대해서는 밑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B. 알렉산드리아 학교의 성격

알렉산드리아의 교리 학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추론적이고 철학적이며 비유적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나 주신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신비한 의미가 있

7) 주후 1-4세기경 그리스, 로마, 유대, 소아시아, 이집트 등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유행한 이단 사상으로 신의 세계와 물질 세계의 극단적인 2원론을 주장하면서 역사적 예수님/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는가 알아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C. 알렉산드리아 학교의 영향

알렉산드리아 학교는 온 기독교계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동방에서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같은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서방에서는 히포의 어거스틴 같은 인물을 통해서 나쁜 것들이 기독교 내로 널리 파급되었다.

위에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고 이제부터는 성경이 이 도시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잠시 살펴보려 한다.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된다.

그때에 리베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여기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직접 관련되었음을 발견한다. 한편 사도행전 18장 24절에는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비록 그가 나중에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되기는 했지만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처음에 그는 오순절 이후에 주어진 성령님의 침례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자 요한의 물 침례를 가르쳐서 그곳 사람들을 무심코 잘못된 길로 인도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알렉산드리아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성경의 엄중한 경고

지금까지 우리는 크리스천들의 최종 권위인 성경이 이집트와 알

렉산드리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경이 성도들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이집트나 혹은 그에 속한 알렉산드리아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권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단 말인가?

솔로몬 왕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경고를 무시했다. 열왕기상 3장 1절이 그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한 뒤 자기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가 끝낼 때까지 그녀를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두니라.

또한 열왕기상 10장 28-29절은 이렇게 말한다.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과 아마 실을 가져오매 왕의 상인들이 한 값에 아마 실을 받았으며 병거는 한 대에 은 육백 세겔, 말은 한 마리에 백오십 세겔을 주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왔더라.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곧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좇은 것을 쉽게 발견한다(왕상 11:3-4). 그러나 이 같은 불순종으로 인해 솔로몬에게 가증한 일들이 닥쳤고(왕상 11:5,8) 마침내 열왕기상 11장 9-43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명백한 저주를 무시하고 이집트와 그곳의 산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넘어졌을진대 참으로 우리는 이집트에서 말들을 사서 무역을 하기 전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것처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디옥

자, 이제 안디옥에 대해 성경이 무어라 말하는가 살펴보자. 사도 행전 6장 5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곱 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의 한 명이 안디옥에서 온 니콜라라는 이름의 신자임을 보여 준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안디옥이 처음 성경에서 언급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안디옥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또다시 언급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안디옥은 로마의 박해로부터 크리스천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역할을 한다. 사실 성경에서 안디옥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는 새로운 삶을 예표로 보여 주고 있다.

성경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좀 더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이 기록된 배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은 친히 이방인들로부터 제자들을 불러내셨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 또한 계속해서 그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신약 시대 교회의 중심지로서 더 이상 예루살렘을 사용하려 하지 않음을 보여 주신다.

우리의 안디옥

새로운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 안디옥은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와 로마 등과 같은 이방인들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인들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안디옥은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의식주의의 삶이나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삶과는 전혀 다른 크리스천들의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상징한다. 이 점에 대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곧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처소를 세우기 위해 이교도 시절의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증거를 보이기 위해 의식주의를 버려야 한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도 그리스인(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2-33절에서 그는 신약 시대의 온 인류를 세 집단 즉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나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처소를 주시듯이 새로 태어난 신약 시대 교회에게도 새로운 실제적 장소를 주셨다. 사도행전 12장 이후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았고 그들의 사역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한 번 더 언급됨을 알 수 있다. 이 일은 사도행전 2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에 그들은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잠깐 기뻐했으나 곧바로 다시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그곳의 신약 교회에서 유대교의 형식주의를 가르치려 하자 이 같은 잘못을 범한 베드로를 직접 책망했다.

확실히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유대교, 이방인들의 신화, 그리고 이교도들의 우상숭배 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안디옥과 그곳의 크리스천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디옥에 거주하려 하는 것을 보여 준다. 키프러스와 구레네 사람들 중 몇 명이 안디옥에 와서 그리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우리는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옮겨오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바나바는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만든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그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닌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갔다가 거기에서 바울을 찾아내고는 그를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행 11:26).

우리는 신약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울이 실제로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6-29절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사역을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날 때부터였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 일컬음을 받은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대언자들이 안디옥에 정착했음을 발견한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 형제들을 돕기 위해 안디옥의 크리스천들이 구제 헌금을 보낼 필요를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3절이 보여 주듯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은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른 곳은 다름 아닌 안디옥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마친 뒤 알렉산드리아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안디옥으로 되돌아 왔다(행 14:26-28).

그런데 유대교에 젖은 어떤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그곳 신자들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다(행 15:1).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섰으며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할례에 대해 베드로와 야고보 등의 큰 사도들과 변론했다. 그들로 인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안디옥으로 되돌아 왔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들과 친교를 갖게 되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실라였다(행 15:22). 실라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고 이들의 이름이나 사역은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다(행 15:33-34). 반면에 안디옥에 남은 실라는 그 이후에도 신약 성경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남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도행전 11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 거처를 옮기셨고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에 정착한 사람들만 사용하셨다.’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마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같은 경우에 속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거주했고(행 15:35) 다시 안디옥을 떠나 선교 여행을 갔다.

한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속으로 결정했음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같은 결정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1장 4절, 21장 10-12절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도 주목하기 바란다. 바울은

그 일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고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부터 그의 사역의 마지막이 시작된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로든지 크리스천이 자기의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위치'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만일 신약 시대의 기독교를 위한 중심지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안디옥이 그 장소였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들어온 소위 '자필 원본'이라고 불리는 책들 중 상당수가 바로 안디옥에서 기록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신실하게 보존되고 번역되었을 것이라고 믿어도 될 것이다.

이집트는 이 세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안디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크리스천의 새로운 삶을 나타낸다. 자, 이제 독자는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곳을 사용하시리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본성에 위배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집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주고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사용한다면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일까?

사실 신약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다는 기록조차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안디옥은 신약 시대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곳이다. 바울은 결코 예루살렘에 거주한 적이 없었고 항상 안디옥으로 되돌아 왔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영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안디옥이 '참된 성경 본문'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에 매우 이상적인 장소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 조사에서 처음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자필 원본’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또한 그런 ‘자필 원본’이 우리에게 있다면 교회에 올바른 성경을 정착시키는 작업 역시 한층 더 간단하고 쉬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 작업은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미 인정하 바와 같이 현재 우리에게는 ‘자필 원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자필 원본’은 이미 오래전에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필 원본’이 곧 낡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재질 위에 기록되었고 따라서 원래의 저자나 혹은 ‘자필 원본’을 보존하고 필사한 사람들이 몇 번이고 필사한 이후에 자연히 낡게 된 이 원본들을 없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초기 교회들이 ‘자필 원본’ 그 자체보다는 ‘그 원본의 말씀들’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점이다. 사실 원본안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들은 사라져 버린 것이 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이런 일이 결코 생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시편 12:6-7; 마 24:35).

이제부터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 기록의 증거들을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1. 성경 번역을 위한 본문에는 두 계통이 있고 이 두 계통의 본문들 간에는 엄

청난 차이가 있다.

2. 이런 사실 때문에 성경 보존 문제를 다룰 때는 역사적 측면과 아울러 반드시 영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부디 성경이 세상의 다른 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처음 쓰인 뒤 시대의 물결에 따라 표류하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성경이 처음 시작된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섭하실 것임을 늘 명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도 성경 보존을 방해하거나 말씀 자체를 파괴시키기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 박물관 등에 보존되어 성경 역사 연구에 금방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은 다음의 세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사본

1. 복사본(Copies)

이 땅에서 ‘자필 원본’이 사라진 이래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성경 기록은 다 복사본뿐이다. 이 복사본들은 다음의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A. 초서체 혹은 소문자 사본

이 사본들은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고대 복사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어의 ‘초서체 문자들’ (Miniscules, 미니스쿨)

은 영어 알파벳의 소문자와 비슷하다. 이러한 형태의 오래된 복사본들은 파피루스 사본들이며 대개 서로가 꿰매진 두루마리 형태를 취하고 있다. 파피루스(Papyrus)는 지금의 신문 용지와 같이 그리 비싸지 않은 종이다. 초서체 문서 중 어떤 것들은 또한 벨럼(Vellum)에 기록되었는데 벨럼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벨럼은 파피루스보다 훨씬 더 비싸긴 했지만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곤 했다. 초기 복사본에는 대개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 없이 기록했다. 또한 하나님(God), 아들(Son), 아버지(Father) 같은 낱말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단축해서 기록했다.

— — —
God-gd, Son-sn, Father-ftr

그러나 후기 복사본들은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단어들 사이를 띄었다. 예를 들어 영어 요한복음 1장 18절 즉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은 다음과 같다.

— — — — —
no-man-hath-seen-gd-at-any-time-the-only-begotten-sn
—
which-is-in-the-bosom-of-the-ftr-he-hath-declared-him.

어떤 초서체 사본들은 두루마리 형태가 아니고 책의 형태로 구성되어 '코덱스' (Codex)라고 불리는데 이 코덱스 역시 파피루스나 벨

럼 위에 기록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두루마리나 코덱스 형태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본들은 원래 사본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사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B. 대문자 또는 영설 사본

대문자(Majuscules, 마주스쿨) 또는 영설(Uncials)은 영어 알파벳의 대문자와 비슷하다. 위에서 언급한 요한복음 1장 18절을 영설 사본처럼 영어 알파벳의 대문자를 사용하여 기록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NOMANHATHSEENGDATANYTIMETHEONLYBEGO — TTENSNWHICHISINTHEBOSOMOFTHEFTRHEHAT — HDECLAREDHIM</p>

대문자 사본들은 초서체 사본보다 그 수가 훨씬 적고 또 4세기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C. 성구집

성구집(Lectionaries)은 오늘날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에 해당한다. 초기에는 성경 복사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알려 주기 위해 이 같은 교독문 형태의 성구집을 사용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성구집은 신약 시대 초기에 만들어졌고 따라서 이것들의 연대는 '자필 원본'이 기록된 시기에 매우 근접해 있다.

역본

성경적 증거의 두 번째 집단은 고대의 ‘역본들’(Versions)이다. 하나님은 그 당시 세계의 공통어인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 하길 원했지만 기록된 성경을 그리스어로만 보존하려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파 하기 위해 초기 그리스어 사본들은 그 당시의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시리아어 역본인 『페시토』(*Peshitto*)와 라틴어 역본인 『구 라틴 별게이트』(*Old Latin Vulgate*)는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대문자 사본(Uncial MSS)보다 더 오래되었다. 『페시토』는 주후 150년경에 그리스어 원본으로부터 번역되었고 『구 라틴 별게이트』는 주후 157년경에 번역되었다. 이것들 외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본으로는 『고딕 역본』(*Gothic Version*), 『사히딕 역본』(*Sahidic Version*), 『보헤이릭 역본』(*Bohairic Version*), 그리고 『콥틱 역본』(*Coptic Version*) 등이 있다.

교부들

성경적 증거의 세 번째 집단은 ‘초기의 교부들’(Church Fathers)⁸⁾이다. 이 교부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 초기 몇 세기 동안 기독교계를 이끈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이들의 초기 설교, 책, 그리고 주석서 등의 기록이 있으며 이것들은 지금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여러 구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어쩌면 교부들 중 많은 이들이 실제로 ‘자필 원본’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8)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부(敎父) 즉 ‘교회의 아버지’란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용어들이 천주교를 통해 세속 역사 속으로 그리고 기독교로 유입되어 지금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자도 보편성 때문에 ‘교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말 자체가 틀린 것임을 밝혀둔다.

자, 위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적 증거의 세 가지 출처를 살펴보았다. 이것들은 복사본, 역본, 그리고 교부들이다. 이 세 그룹은 모두 5,250개 이상의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 중 3,000개 이상이 그리스어 필사본이다. 이같이 현존하는 고대 사본, 역본, 그리고 참고를 위한 교부들의 글이 많으므로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이 신약 성경 ‘자필 원본’의 그리스어 문이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낼 수 있다.

편들기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의 증거들은 일반적으로 두 그룹으로 또는 두 종류의 본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본문이 성경의 주요한 교리에 관해 시종일관 서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본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피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에 관한 구절들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런 중요한 교리에서 이 본문들은 서로 매우 다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의 증거들이 정확한지(하나님께서 보존한 본문) 혹은 그것들이 속임수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지(사탄이 변개한 본문)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들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좋은 사본들

우리가 검토할 두 종류의 본문 중 첫 번째 종류는 ‘다수 본문’(Majority Text)인데 ‘다수’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약 99% 이상의

현존하는 필사본이 즉 다수의 필사본이 이 본문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믿음에 꼭 필요한 기독교 교리를 다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를 통해 ‘다수 본문’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왔다. 이 본문은 ‘다수 본문’, ‘종교개혁 본문’(Reformation Text), ‘전통 본문’(Traditional Text), ‘황제 본문’(Imperial Text), ‘비잔틴 본문’(Byzantine Text)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다수 본문’은 우리가 『흠정역 성경』으로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어 공인본문』이 되어 그 절정에 이르렀다.

참으로 나는 ‘다수 본문’을 나타내는 이름들의 긴 명단에 또 다른 이름을 첨가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같은 ‘다수 본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용어를 찾고자 하며 이 본문이 역사를 통해 정통 크리스천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책에서는 ‘다수 본문’을 ‘보편적 본문’(Universal Text)이라 부를 것이다.

힐즈 박사(Dr. Edward Hills)는 이같이 부르는 것이 옳음을 보여 준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사본 대다수에서 발견되며 또 수 세기 동안 그리스 교회를 통해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비잔틴 본문’(Byzantine Text)이 신약 성경 자필 원본의 신실한 복사판이며 또한 이것이야말로 대부분의 신약 성경 사본들과 일치할 보이지 않는 본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성스러운 표준이라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확실하다.[11]

이 같은 본문이 ‘현존하는 사본들의 대다수’에서 발견되는 본문을 나타내고 또 초대 교회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기 우리는 ‘보편적 본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본문을 설명하려 한다. 이런 사본들은 곧 자필원본을 대표한다. 달라스 신학교의 핫지스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고대 저서들의 사본 전통은 대개 '자필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들로부터 복사본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아주 합리적이 고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어져 왔다.[12]

심지어 『영국개역성경』을 만든 호르트 박사조차도 핫지스 교수가 각주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 자명한 이치는 호르트 역시 오래전에 마지못해 인정한 바 있다. 역사를 통해 원본이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현존하는 사본의 대부분이 선조 문서들의 대다수를 나타내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아직도 변치 않는 사실로 남아 있다.[13]

그래서 핫지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된 '다수 본문'을 실제로 자필 원본을 대표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증거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 같은 주장은 '다수 본문'에 대한 학자적 판단이라는 확실하지 못한 의견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역사를 통해 신약 성경 본문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다수 본문'이 우월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현실에 기초를 둔 것이다.[14]

신약 성경 본문의 부패는 초기의 '자필 원본'이 완성된 이후에 시작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부패시킬 만한 '자필 원본'이 없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자필 원본'과 '자필 원본'에서 처음으로 개악된 사본에서 동일한 비율로 복사본이 만들어졌다면 정확한 신약 성경 본문이 항상 대다수 사본에서 발견되었을 것이다. 또한 정통 기독교회들이 개악된 성경을 거부했고 그런 성경을 복사하는 것 자체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더한다면 올바른 본문이 대다수 사본 안에 있으며 또 그런 사본들이 권위를 가진 것으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과 단지 소수의 천재들만이 부패된 본문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존재하는 사본들의 증거에 의해 이미 밝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풀러는 이렇게 기록한다.

밀리는 '전통 본문'이 처음부터 수 세기에 걸쳐 교부들의 저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됨을 보여 준다.[15]

'보편적 본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의 관문인 안디옥까지 진격했고 드디어 북쪽으로 영국을 향하여 진격했다. 마침내 이것이 영국에 도착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언어 즉 영어로 번역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었다.

안디옥으로부터 온 — 안디옥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기억하자 — '보편적 본문'은 유럽에 진출했고 시리아어 역본인 『페시토』와 라틴어 역본인 『구 라틴 별게이트』를 통해 시리아와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다. 주후 150년 이래로 이 '보편적 본문'이 성도들 간에 가장 널리 보급되었다는 증거로서 지금도 약 350개의 『페시토』 역본이 존재하고 있다.

『구 라틴 별게이트』

『구 라틴 별게이트』(*Old Latin Vulgate*)는 왈덴시안 혹은 왈도파(Waldenses), 골파(Gauls), 켈트파(Celts), 알비파(Albigenses)와 및 유럽 전역의 여러 개 근본적 그룹 교회 내 신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다. 이 라틴어 역본은 정통 크리스천들에 의해 점점 더 빈번히 사용되었고 '별게이트'(Vulgate)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에게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정통신자들에 의해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별게이트'란 단어는 라틴어에서 '공통적인'(common)이라는 의미를 갖는 '별가'(vulgar)로부터 나왔다. 『구 라틴 별게이트』 역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충실하게 다루었고 또 원본들을 정확하게 재생했기 때문에 초기 크리스천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초기 크리스천들은 그 후에 나온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본인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를 결코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한편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 역본은 주후 380년에 천주교 교부 중 하나인 제롬이 부패한 사본들로부터 번역한 것인데 그 이후에 거의 1,000년 동안 진실하고 성경대로 믿으려 하는 크리스천 신자들은 절대 이 역본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는 라틴어가 더 이상 보편적 언어로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었을 때 특히 주후 1227년에서 1242년까지의 교황 그레고리 9세의 통치 기간에 그가 참된 크리스천들을 지독하게 박해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사용되었다.

왜곡된 수법

『구 라틴 별게이트』 역본은 주후 157년경에 출간되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명령으로 번역된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는 주후 380년경에 출간되었다. 그런데 주후 1,280년에 이를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정통 크리스천들은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를 거부했다. 그러자 교묘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실한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가 신도들을 위한 진정한 ‘공통 성경’이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것을 ‘별게이트’ 즉 ‘공통 성경’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마치 미국의 『뉴스코필드 주석성경』(*New Scofield Reference Bible, 1967*)과 『공통 성경』(*Common Bible, 1973*)을 만든 사람들이 이용한 수법과 동일한 수법이다. 『뉴스코필드 관주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본문을 쓰면서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주장하며 『공통 성경』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공통 성경이 1611년에 만들어진 『킹제임스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1973년도에 나온 『공통 성경』이 마치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는 성경인 듯한 인상을 준다.⁹⁾ 그러나 사실 이 같은 속임수는 크리스천들의 윤리와

9) 한국의 경우에도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합작품인 『공동번역』이 이 같은 인상을 풍긴다.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몇 세기가 지나면서 참 신자들은 ‘보편적 본문’을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이 본문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세를 오랫동안 남부 이탈리아로만 한정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역사의 증거들이 이런 사실을 명확히 보여 준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박해와 고문과 성경을 불사르는 일 그리고 살인 등을 통해서 ‘보편적 본문’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야 비로소 미신적인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의 그물을 사용하여 전 유럽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배워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의 ‘보편적 본문’이 통치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이 ‘덜 깨끗한 본문’에 의해 제거되면 하나님은 그런 복을 철회한다. 자, 우리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개역시킨 『영국개역성경』(*Revised Version*)이 출간된 이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 이후로 대서양을 끼고 양쪽에 위치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수정판이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왜곡된 사실이 첨가되었다. 그렇다! 영국의 ‘외국성경공회’(British Foreign Bible Society)가 네슬레(Eberhard Nestle)가 편집한 이집트 본문으로 성도들이 지켜온 『그리스어 공인본문』을 대체해 버린 1904년 이후로 대영 제국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역사를 사실 그대로의 역사로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라. 그때의 일이 지금의 일과 다를 바 없다. 해 아래 과연 새것이 있단 말인가! 단지 우리가 참된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배도하는 일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나쁜 사본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다른 본문은 ‘소수 본문’(Minority Text)이다. 이 본문은 말 그대로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 본문’이라 불리며 이것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대속, 삼위일체 및 그 밖에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 교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소수 본문’은 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영국개역성경』이 나온 이후에 출간된 모든 역본의 기초로 사용되어 왔다.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이 사본들 안에서 발견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정통 기독교 신자들이 단 한 번도 이런 ‘소수 사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오직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무력으로 이 사본들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즉 ‘다수 사본’과는 달리 이 ‘소수 사본’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소수 본문’은 ‘이집트 본문’(Egyptian Text) — 이집트에 관한 우리의 연구를 기억하자 — ‘헤시키안 본문’(Hesychian Text),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본문’(Alexandrian Text) —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경고를 기억하자 — 등으로 알려져 왔으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개정 그리스어 본문’의 기초가 되었다. 1881년에 만들어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개정 그리스어 본문’은 1898년에 네슬레가 티센도르프의 제8판과 위마우스의 제3판과 함께 편집한 이후로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그리스어 본문이 바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현대 역본의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수 사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본들은 주후 4세기와 5세기 경에 만들어진 몇 개 안 되는 앙설(대문자) 사본이다. 그런데 이러

한 영설 사본들은 오류로 가득 차 있어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으며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크게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본들 중 하나는 ‘시내 사본’ (Sinaiticus)이라 불리는데 이 사본은 분류상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 (Aleph)로 표기되어 종종 ‘알레프 사본’으로 불린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본은 아주 멋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두루마리가 아닌 책의 형태 즉 코덱스 형태로 값비싼 벨럼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본은 총 147과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면은 38cm X 32cm이며 면마다 48줄이 4개의 난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 사본은 ‘허미스의 목자’, ‘바나바 서신’ 등의 위조문서도 포함하고 있으며 시내 산의 동방 정교회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본은 오랫동안 잘 보존되어 왔으나 외형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안의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유명한 그리스어 학자이며 『영국개역성경』 편집 위원을 지낸 바 있는 스크리브너 박사(Dr. Scrivener)는 자신의 저서 ‘시내 사본’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 이것이 전혀 믿을 만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그는 ‘시내 사본’에서 발견되는 수정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내 사본』에는 적어도 10여명의 본문 수정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정된 부분이 수없이 많다. 이런 부분은 장마다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가끔씩 혹은 단편적인 부분에서만 발견된다. 이런 본문 수정자들 중 몇몇은 이 사본을 처음 집필한 사람과 동시대에 살았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주후 6-7세기경에 살았다.[20]

마틴 박사(Dr. Alfred Martin)는 ‘시내 사본’ 즉 ‘알레프 사본’은 수 세기를 지나면서 10여 명의 본문 교정자들이 수정해 놓은 것을 보여 준다.’라고 말하면서 스크리브너 박사의 저서에서 발견되는 내용을 되풀이해서 입증해 준다.[21]

거짓 서기관들이 행한 수정 작업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버

건 박사(Dr. Burgon)¹⁰⁾는 티센도르프 박사(Dr. Tischendorf)가 이 사본을 극구 칭찬하려는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대부분 부모의 사랑이 무분별한 경우가 많은 것처럼 티센도르프는 『시내 사본』을 검토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 안에 무분별한 것이 짝 차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레프 사본』 즉 『시내 사본』을 신봉한다.[22]

독자들은 티센도르프 박사가 바로 『시내 사본』을 발견한 인물임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는 1859년 2월에 시내 산에 있는 동방 정교회의 성캐더린 수도원(St. Cathrine's Monastery)에서 『시내 사본』을 발견했다. 『시내 사본』이 주후 4세기경에 쓰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티센도르프는 ‘오래된 것일수록 더 좋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에 속아 넘어갔고 즉시 『시내 사본』에 의거하여 자기가 편집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제7판에서 약 3,500군데 이상을 고쳐 버렸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때 그가 자신의 ‘신약 성경 제7판’은 완전하므로 더 이상 대체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시내 사본』 즉 『알레프 사본』에 기초한 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제8판’은 제7판보다 무려 3,500배나 더 정확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10) 버건(John William Burgon: 1813-1888)은 학문에 있어서 앤드류스(Lancelot Andrews)와 윌슨(Robert Dick Wilson) 같은 사람들과 어깨를 견주는 굉장한 지식인이었다. 그는 한때 영국 치체스터 대학의 학장(Dean)을 지냈기 때문에 ‘딘 버건’ (Dean Burgon) 즉 ‘버건 학장’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버건 박사는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채택하여 『영어개역성경』을 펴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와 동시대 사람으로 『공인본문』의 수호자였고 동시에 그 본문을 반대하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무기력한 논쟁을 무자비하게 응징한 사람이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와는 달리 그는 이론이라는 모래보다는 사실이라는 탄탄한 기초에서 얻게 된 결론들을 믿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면서 돌맹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뒤져보려 했으며,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매우 신중한 학자였으며 동시에 재치 있는 위트와 신랄한 혀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및 다른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을 전방에서 몰아냈다.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대한 반대 논쟁’, ‘마가복음의 마지막 12절 논쟁’ 등 성경 변경을 막기 위해 펼친 논쟁에서 그가 제시한 자료들은 현대 학자들이 그와 동시대에 살았다 하더라도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힐즈, 풀러 등과 같은 『킹제임스 성경』 옹호자 중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흠정역 성경』을 변호한 무적의 용사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그의 작품들은 정직하고 객관적이며 진정된 학자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작품의 모범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로마에서 온 거짓 증거

이 집단에 속하는 또 다른 사본은 『바티칸 사본』(Vaticanus)이라 불리며 이것은 보통 'B 사본'으로 분류된다. 사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왔다. 아무도 이 사본이 언제부터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그 도서관 안에 있다는 사실은 1841년경에 알려졌다. 『바티칸 사본』 역시 『시내 사본』처럼 책의 형태 즉 코덱스 형태로 값비싼 벨럼에 기록되었다. 이 사본은 크기가 25cm X 26.3cm이며 모두 759쪽으로 되어 있고 쪽마다 41줄이 3개의 난에 쓰여 있다.

『바티칸 사본』은 성경에서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보여 주는 부분을 많이 생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티칸 사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46장 28절까지, 시편 106편부터 138편까지, 마태복음 16장 2-3절, 바울 사도의 목회 서신, 계시록,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이후의 모든 구절을 삭제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 도서관에 소장된 사본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인 미사(Mass)를 전혀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완전히 삭제했다는 것은 확실히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부디 독자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0-12절 말씀을 자세히 읽기 바란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천주교의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영원히 드린 속죄 희생을 무시하고 모일 때마다 사제가 계속해서 빵 조각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제사 의식이며 이로써 기독교의 '단번 속죄' 교리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로마 교회는 미사와 연옥 교리를 합쳐서 영원한 돈벌이 기계로 사용해 왔다. 만일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래전에 이미 붕괴했을 것이다! 또한 『바티칸 사본』은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대언자의 자세한 예언(시편 22편), 그리고 계시록 17장에서 의 큰 음녀인 바벨론(로마)의 멸망에 대한 예언 등을 담고 있는 성경구절을 다 삭제해 버렸다.

『바티칸 사본』역시 『시내 사본』과 마찬가지로 외형적으로는 완전하지만 그 문학적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해 마틴 박사는 이렇게 선언했다.

『바티칸 사본』은 기록자가 연거푸 같은 단어나 구절을 두 번씩 쓴 부분을 많이 보여 주고 있다.[25]

또한 스마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사본은 전체적으로 약 10세기경의 몇몇 서기관의 펜에 의해 조작되었다.[26]

이런 이유로 『바티칸 사본』은 처음부터 믿을 만한 사본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사실 수정된 많은 부분과 필사시 변경된 부분들은 분명히 이 사본이 신뢰할 만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부패와 믿을 수 없는 특성은 이 사본들을 면밀히 조사한 버건 박사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잘 요약되었다.

이 사본들이 보여 주는 본문의 불순함은 사실 의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이다. 복음서 부분만을 생각해 볼 때 『바티칸 사본』(Codex B)은 무려 1,491번 이상이나 단어 혹은 전체 절을 생략하고 있다. 이 사본은 또한 쪽마다 부주의한 복사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또한 『시내 사본』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수를 담고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문서에서 이런 실수가 발견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많은 경우에서 10개, 20개, 30개, 40개의

단어가 부주의로 인해 삭제되었다. 철자와 단어 심지어는 전체 문장이 두 번 이상 자주 쓰이거나 곧장 삭제되었다. 어떤 절이 바로 그 앞의 절에 있는 같은 단어로 끝나기 때문에 삭제해 버린 큰 실수가 신약 성경에서만 적어도 115번 이상 발견된다.[27]

만일 참 신약 성경 본문을 평가하기 위해 철저히 비판적이어야 한다면 이 같은 사실을 결코 그대로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본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 사본들이 눈에는 보기 좋으나 그 안은 매우 가치 없고 쓸모없는 부패와 변개로 가득 차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영설(대문자) 사본들과 같은 집단에 속하는 ‘부패한 파피루스 사본들’은 참 본문 즉 ‘보편적 본문’을 수정해서 만든 것이며 이러한 수정 작업은 이집트 출신의 혹은 이집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서기관들이 이집트에서 행한 것이다(부디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기억하라).

이런 진술을 기록으로 남기기 전에 우리는 성경의 문서화 과정에서 언급하게 될 몇 가지 영설 사본과 파피루스 사본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들은 A, B, C, D 그리고 Aleph 사본들이다. 또한 p45, p46, p47라는 이름을 가진 ‘체스터 비티의 파피루스’(Chester Beatty Papyri)과 p66, p75라는 이름을 가진 ‘보드머의 파피루스’(Bodmer Papyri)이 이 부류에 속한다.

오리겐과 성경 부패

이러한 ‘소수 본문’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국지적 본문’(A Local Text)이었고 거기에서 유세비우스는 대염모자 콘스탄틴 황제(Emperor Constantine)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50개의 복사본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기억하라). 그러나 불행히도 유세비우스는 참된 크리스천들이 공

통적으로 받아들인 순수한 본문을 사용하기 위해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고 대신에 이집트에 있던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서 ‘학자들의 수정판’을 얻었다.

그렇다면 왜 유세비우스는 안디옥 대신 알렉산드리아를 선택했을까? 그 주된 이유는 그가 이집트 학자 오리겐을 열렬히 추종했기 때문이다. 오리겐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오리게네스(주후 185-254년)는 성경 본문 부패의 장본인이다. 현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 자체가 로마 카톨릭 교회사이므로 대부분의 신학교 교과서나 참고서는 오리겐을 가리켜 ‘위대한 크리스천 학자요, 고대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던 신학자 중 하나’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다. 사실 오리겐은 한때 그리스의 아테네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 이단자로서 판명되었다(아테네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기억하라). 그는 또한 ‘예수님이 피조된 하나님이다.’라는 이단 교리를 퍼뜨렸다.[28] 이 같은 오리겐의 믿음에 대해 『뉴스탠다드 백과사전』(*New Standard Encyclopedia*)의 제9권은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오리겐의 사상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로고스(Logos) 교리’였다. 이 사상은 요한복음 1장 1-5절과 그 외 여러 기독교 저술 안에도 나타나 있는데 특히 오리겐은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루었다.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란 창조의 신적 원리와 이성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름이었는데 오리겐은 이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적용했다. 그는 아들을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듦으로써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성을 가져다주는 존재 즉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로고스’로 취급하였다. 그리하여 오리겐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살며 가르치기도 하신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무시하였다. 이 같은 교리는 4세기경의 이단 그룹인 아리우스파가 교리를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다시 말해 오리겐은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창조된 신으로 믿은 것이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이 육체로 땅에 거했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았다!

오리겐의 저술에는 많은 모순이 있는데 바로 이 같은 사실은 부패한 사본들 속에 들어 있는 모순을 설명해 주는 열쇠가 된다. 간혹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도 이내 돌아서서는 그것을 부인하곤 했다.

사실 오리겐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변개하고는 ‘말씀(the word)은 한 신(a god)이었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과 ‘신’을 소문자로 쓴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 같은 믿음은 참으로 우리 세대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고수하는 그릇된 교리에서 나온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이단 교리를 부패한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요한복음 1장 1-5절과 3장 13절에서 취하고 있는데 바로 오리겐이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의 이단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보편적 본문’을 변개시켜 여호와의 증인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다. 오리겐이라는 인물이 성경 사본의 변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므로 우리는 그의 생애와 작품과 철학과 성경 변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A. 오리겐의 삶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부유하게 살던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나이에 교사로서 크게 성공했다. 그의 삶은 세르베루스 황제의 박해가 있던 주후 202년경에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순교했고 그의 가정은 가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오리겐은 십팔 세라는 젊은 나이에 클레멘트가 창설한 알렉산드리아 교리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그는 천재였으며 수많은 책을 모으고 읽고 저술했고 또 영지주의자였던 암브로스의 책들을 소장했다. 그는 또한 이교도로서 신플라톤주의를 창설한 사카스 밑에서 공부했고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땅에서 잤으며 심지어 스스로 거세했던 매우 특

이한 인물이었다. 로마 황제의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는 개인적으로 매우 용감했고 인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주후 213년에 로마를 방문했으며 그 뒤 알렉산드리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 주후 215-219년 사이에는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로 이주했다. 후에 알렉산드리아로 되돌아온 그는 주후 231년까지 거기 거하다가 알렉산드리아 지도부와의 마찰로 인한 출회 결정으로 영구히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그 후 232년에 그는 가이사랴에 알렉산드리아 교리 학교에 버금가는 학교를 세웠고 데시우스트라얀 황제의 모진 박해로 인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B. 오리겐의 믿음

비록 오리겐이 초기의 위대한 교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마저도 그가 교리적으로는 정통이 아니었음을 인정한다.

1. 그는 영지주의 신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2. 그는 플라톤 철학에 심취했다.
3. 그는 종종 구약 성경을 신비적으로 해석했고 신약 성경과 더불어 비유적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저명한 학자 피커링은 마쉬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평가한다.[29, 30]

그러므로 자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운 철학에 비추어 볼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면 오리겐은 곧바로 문자적 해석을 버리고 비유 해석을 택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성경이란 그것이 기록된 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쓸모가 없다.’ 이 말은 곧 오리겐이 자기가 느끼는 바가 바로 성경이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피커링, 『신약 성경 본문의 정체』(*The Identity of the New Testament Text*), 1977, pp. 140, 192)

4.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기록을 부인했고 오히려

사람의 혼이란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온 것이라고 믿었다.

5. 그는 또한 죽음 이후에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좀 더 고차원의 생명이나 혹은 저차원의 생명으로 바뀐다는 윤회 사상을 믿었다.

6. 그는 또한 보편적 구원을 믿었으며 악한 자들도 형벌을 받은 후에는 즉 연옥에서 고통을 받은 후에는 구원받는다고 믿었다.[31]

7. 그는 또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별이나 달도 혼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8. 그는 결국에는 마귀들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9. 그는 목사를 제사장(혹은 신부)으로 부른 사람들 중 하나이며 주교들이 큰 죄를 용서하는 데 한몫을 한다고 말했다.

10. 대부분의 교부들이 성경대로 '전천년주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교회가 세력을 확장해서 평화를 가져온다는 '후천년주의'를 신봉했다.

C. 오리겐의 작품

오리겐은 자신의 저서들을 통해서 온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평생에 6,000 여권의 책을 저술했고 초기 교부들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글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의 50% 정도가 그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니케아 종교 회의 이전의 일곱 명의 중요한 교부들이 신약 성경을 인용한 것 중에서 오리겐의 것이 약 18,000 개나 될 정도로 그는 왕성한 저술 활동을 했다.

1. 오리겐의 대규모 작품

- a. 그는 성경의 거의 모든 책에 대한 주석서를 썼다.
- b. 그가 저술한 『제1 원리에 관하여』(*De Principiis*)는 조직신학 책이다.
- c. 그가 지은 『셀수스에 반대하여』(*Against Celsus*)는 변증학 책이다.

d.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헥사플라』(Hexapla)이다.

2. 『헥사플라』: 구약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헥사플라』(혹은 ‘6난 성경’)는 여섯 개의 난에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된 성경 즉 ‘폴리글롯’(Polyglot)으로 구약 성경만을 담고 있다. 이 여섯 개의 난 마다 각각 다른 구약 성경 역본이 들어 있다. 시가서 같은 경우에 그는 서너 개의 다른 번역을 더 추가하여 ‘8난 성경’ 혹은 ‘9난 성경’을 만들었다.

a. 『헥사플라』는 50개로 구성된 매우 큰 폴리오 책으로 그 분량이 자그마치 6,500쪽이나 된다.

b. 이 책은 주후 250년경에 완성되었다.

c. 그는 일곱 명의 속기사와 일곱 명의 필사자와 함께 일했다.

d. 첫째 난은 히브리 본문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소라 본문과 거의 같다.

e. 둘째 난은 히브리어 본문을 그리스어로 음역한 것을 담고 있다. ‘음역’이라 함은 다른 말의 문자를 사용하여 원어 단어의 소리대로 적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히브리 단어인 ‘샬롬’(Shalom)과 그리스 단어인 ‘뱃타이즈’(baptize)는 음역이며 이 말들을 번역하면 ‘평화’(peace)와 ‘담근다’(dip)가 된다.

f. 셋째 난은 아퀼라가 번역한 그리스어 역본을 담고 있다.

g. 넷째 난은 시마쿠스가 번역한 그리스어 역본을 담고 있다.

h. 다섯째 난은 오리겐의 작품으로 현재 『70인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i. 여섯째 난에는 테오도티온의 그리스어 역본이 있다.

j. 『헥사플라』는 주후 638년까지 가이사라의 도서관에 있었으나 그 뒤 모슬렘의 침략으로 인해 소실되었다.

k. 『헥사플라』는 단지 그 일부분만 복사되었고 특히 『헥사플라』의 다섯째 난은 『바티칸 사본』(B 사본), 『시내 사본』(알레프 사

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A 사본), ‘에프리미 사본’ (C 사본) 등에 남아 있다.

D. 신약 성경 본문에 미친 오리겐의 영향

오리겐은 성경본문 비평가들이 소위 ‘가정하여 수정하는 기법’이라 부르는 기법을 사용하여 종종 신약 성경 사본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쳤다. 이 기법은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문을 고치는 것이다. 오리겐이 플라톤 철학의 관점에서 일했으므로 그의 작품은 참으로 신약 성경 본문을 망가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실한 성경학자였던 버건은 다음과 같이 오리겐의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멋진 예를 들고 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한 마태복음 19장 17-21절에 대한 주석에서 오리겐은 예수님이 그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켰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명령이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포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이 모든 명령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며 또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 전체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이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부자 청년이 아직 완전하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오리겐은 사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말씀이 원래의 마태복음에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다시 말해 그는 후대의 어떤 서기관이 이 구절을 집어 넣었다고 믿은 것이다.

위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저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본문 비평가가 자기가 받은 본문에 만족해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상상해서 자기 마음대로 본문에 가감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알

렉산드리아에는 오리겐보다 더 자유롭게 본문을 수정한 학자가 많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으며 바로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부패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 등이 나오게 된 것이다.

완전한 부패

1881년 이후에 번역된 모든 새 역본의 기초가 된 이 ‘국지적 본문’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그 근원을 밝히기 위해 학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통해 드러난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알란드(Kurt Aland)는 이렇게 말한다.

‘P75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이집트의 ‘국지적 본문’을 개정한 것으로서 로마 카톨릭 주교가 성행한 지방에서 강제적으로 사용된 본문이었다.[32]

햇지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확신하고 있다.

이미 학자들은 ‘P75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같은 조상에서 나왔음을 기꺼이 인정하려 한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즉, 이 두 사본의 조상과 ‘P66 사본’은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의 초기에 서로 만나게 된다. 이런 일은 꽤나 가능했으며 결국 이 세 개의 사본은 이것들의 모체가 되는 하나의 사본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모체 사본이 수정되어 이것들을 낳게 되었다.[33]

버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의심스러운 사본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조작된 사본이라는 사실은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만일 정직하게 복사되었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해도 이 두 개의 문서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실제 시간으로는 약 50년에서 100년 정도 서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사본들은 한 개의 공통된 ‘부패한 모체 사본’으로부터 나온 가지들이며 나쁜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이다.[34]

힐즈 박사(Dr. Edward Hills)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서기관들은 ‘전통 본문’을 고의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록하곤 했으며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바티칸 사본』이다. 이 사본은 ‘P75번 사본’을 계속해서 개정하여 만든 것이다.[35]

그는 또한 알란드의 견해에 대해 언급한다.

알란드는 ‘체스터 비티의 파피루스 사본들’도 같은 출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36]

예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를 지낸 바 있는 머로(Philip Mauro)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좀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 서로 일치하는 내용이 사실은 각각 독립적인 두 개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사본은 서로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사실상 같은 모체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그 모체 사본 자체가 부패한 신약 성경 사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결론을 증명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증거가 많이 있다.[37]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흠정역 성경』의 기초로 사용된 본문이 주후 2세기 이전에 모든 곳에서는 아닐지라도 여러 곳에서 매우 넓게 사용된 본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자주 인용한 것으로 입증된 『페시토 역본』과 『구라틴 벌게이트 역본』 등이 이 본문에 대해 충분히 증명을 해 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두 개의 사본은 잘못된 모체 사본을 복사한 것이며 복사할 때마다 더욱더 부패되었다.[38]

이 ‘국지적 본문’이 유세비우스가 대음모자 콘스탄틴 대제에게 공급했던 50개 성경들의 기초로 사용되었다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명한 그리스어 학자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이렇게 말한다.

콘스탄틴 자신이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위해 가이사라의 주교인 유세비우스에

게 50 권의 그리스어 성경을 주문했다.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이 50 권 중 2권이며 아마도 이집트의 서기관들이 이것들을 필사했을 것이다.[39]

그레고리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한다.

이 『바티칸 사본』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내 사본』과 같은 곳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말하자면 이 둘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콘스탄틴 황제를 위해 가이사라에서 기록된 50개의 복사 성경 중 한 쌍으로 서로 아주 잘 들어맞는다.[40]

한편 버건과 밀러는 이렇게 증언한다.

콘스탄틴은 50개의 복사 성경을 유세비우스에게 주문했고 『바티칸 사본』과 『알레프 사본』은 이 50권의 필사본 성경 중 2권이였다.[41]

그래서 풀러 박사(Dr. David Fuller)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단지 오래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사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문서가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금방 소멸되었지만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은 아마도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벨럼 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큰 덕을 보았던 것 같다. 티센도르프와 호르트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이 두 개의 사본이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콘스탄틴 황제가 주문한 50개의 복사본 중 2개일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본들이 멋있는 원고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안의 본문은 필기상의 부주의함을 보여 준다. 『바티칸 사본』에는 대신 기록한 사람이 같은 단어나 구절을 연속적으로 쓴 곳이 여러 군데 나타난다. 『시내 사본』에는 몇 세기에 걸쳐 10명의 서로 다른 교정자들이 만든 개정의 흔적들이 보인다. 버건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방법에 대해 신랄히 비판한 것은 이 두 가지 사본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 너무 심한 것은 아니었다.[42]

과연 누가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신약 성경 본문의 부패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윌켄슨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사도 요한의 죽음 이후 곧 네 사람이 크게 그 이름을 드러내는데 이들의 가르침은 승리를 거둔 이단 사상과 잘못된 신약 성경 사본을 발행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1.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2. 타티안(Tatian) 3.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4. 오리겐(Origen).[43]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국지적 본문’은 주후 500년경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원래의 ‘보편적 본문’은 전 유럽에 걸쳐 널리 퍼져 참 기독교를 전파해 주고 있었다. 호스키어는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펴기 위해 주후 200-450년경에 만들어졌지만 주후 500-1,881년까지는 전혀 사용되지 않다가 비로소 우리 시대에 와서야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쳐 ‘참 본문’으로 낙인찍힌 이집트의 수정판에 의존하고 있다.[44]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일단 ‘보편적 본문’의 순수한 복사본이 이집트에 전달되면 곧바로 다시 복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재복사가 과정에서 그 본문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본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수정되었다. 또한 이 ‘보편적 본문’은 그리스 철학과 이집트의 윤리관을 갖고 있는 본문 비평가들에 의해 면밀한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성경에 복종시키는 대신에 성경을 자신들의 견해에 복종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본문이 바로 이집트의 교육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만 발견되는 ‘국지적 본문’이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탈리아의 남부 지방에서만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지방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을 크게 받아 참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내동댕이치는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1881년에 『영국개역성

경』이 나온 이후에 발간된 새로운 현대 역본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무자비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려고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교황에게 복종해야만 한다(교황 보니파스 8세).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엡 2:8-9)

위에 전적으로 모순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옳을 수는 없다. 당신이 믿는 바는 당신이 어떤 진술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에 대해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만일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누가 '미사'를 필요로 하겠는가? 또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누가 '연옥'을 무서워하겠는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중재자라면 누가 '교황'을 필요로 하겠는가? 만일 교황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사람들을 협박할 수 없다면 어떻게 여러 나라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올바른 성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로마는 무지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자들만 통치할 수 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복음의 선포자로 만들며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따라서 로마는 자신의 부흥을 위해 '참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대치시키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로마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부패한 '국지적 본문'을 받아들

였고 더 나아가 자신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그것을 과감히 변개시켰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같은 수정판을 ‘서방 본문’(Western text)이라 부른다. 이 ‘서방 본문’은 그 자체가 이미 부패된 사본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국지적 본문’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이 본문은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했다.

로마는 매우 지혜롭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든 것을 직접 공격하면 모든 사람이 금방 자기의 음모와 정체를 알게 될 터이므로 로마는 미묘하게 성경을 조금씩 변개시키기 시작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신성을 조금씩 조금씩 빼앗아 버렸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주’(Lord)로 불렀는데 이것은 곧 그가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주(LORD) 즉 여호와임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가 그분을 ‘예수’라 부른 것으로 성경을 변개시켰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 중 하나였으며 따라서 이런 변개를 통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라는 이름과 ‘주 그리스도’라는 신성의 타이틀을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고 있다(눅 23:42).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나오는 그분의 신성을 없앴으며 성경에서 가장 확실히 삼위일체 교리를 보여 주는 요한 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제거해 버렸다.

그런데 독자께서는 혹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면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약화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 카톨릭 교도인 아담(Karl Adam)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카톨릭 교도들은 아무 부끄러움 없이 즉 매우 자랑스럽게 카톨릭 주의가 ‘원시적인 기독교’나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적으로 동일시 될 수 없음

을 인정한다.[45]

그리스도를 삭제해 버림으로써 생기는 빈자리는 마리아와 소위 성인(saint)이라 불리는 사람들로 쉽게 채워진다. 또한 형식주의의 사슬로 너무나 짙게 매여 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진정으로 성경의 복음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다. 카톨릭 주의의 역사가 마치 기독교의 역사인 것처럼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특히 기독교계에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에 대해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직간접적으로 성경 변개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어거스틴과 도나티스트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주 후 4-5세기경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정립하여 성경 신자를 박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히포의 어거스틴이었다. 그는 스스로 성경 신자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출현한 '기독교 박해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사를 통해 기독교회에서 알고 있는 어거스틴과 실제의 어거스틴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와필드(Benjamin Warfield)는 『칼빈과 어거스틴』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창설한 인물이다.' 라고 말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도 아무 주저함 없이 어거스틴을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박사들 중 하나로 인정한다.

어거스틴은 지난 1500년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실행해 온 여러 가지 사악한 일에 대한 교리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런 일을 옹호하는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교훈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형벌이나 고통을 주어 하

나눔을 섬기게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전자의 방법이 더 낫다고 해서 후자의 방법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악한 종들은 더 높은 종교적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형벌 막대기로 쳐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만 한다. 주께서도 친히 명령하시기를 먼저 손님들을 자신의 큰 만찬에 초대하고 듣지 않거든 강권하여 오게 하라고 했다.’ 또한 어거스틴은 만일 국가가 종교적 잘못에 대해 형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형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네안더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말로 표현했다. ‘그의 가르침에는 영적 독재와 무자비 그리고 박해에 대한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결국 중세의 무자비한 종교재판도 그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그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곧장 ‘박해의 교리’라는 것을 실제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첫 번째 교황이라 할 수 있는 레오 교황은 이 같은 초기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라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규정한 이단에 대해서는 사형이 마땅하다고 선언했다.

주후 4-5세기경에 성경대로 믿으려 했던 무리 중 하나는 도나티스트(Donatists)라는 이름의 무리였는데 이들은 어거스틴으로 인해 가혹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도나티스트들은 회개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으로 구성되는 신약 교회를 주장했으며 성직자 체제가 아니고 회중들에 의해 움직이는 형태의 교회를 운영했다. 그들은 또한 신약 시대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교회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행한 침례(혹은 세례)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판단해서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침례를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침례를 주는 자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단 하나의 ‘참된 침례’를 믿는다고 주장했다. 도나티스트 목사인 페틸리안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침례를 두 번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참된 의미의 신약 성경의 침례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가 있다’고 말했으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 ‘한 침례’를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침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점에서 틀린 것이다(베네딕트의 『도나티스트들의 역사』(*History of Donatists*), 1875, p. 49).

다시 말해 이들은 신약 교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침례(혹은 세례) 의식을 통해 입교하여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일 이런 사람이 후에 성경을 깨닫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다시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 실로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처럼 신약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도나티스트들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거듭나지 못한 이교도나 비도덕적인 교회 지도자를 허용하는 ‘느슨한 교회의 원칙들’을 주장하면서 도나티스트들 역시 중앙 집권화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나티스트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성경적 교회관과 이단 교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도나티스트들의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귀양길에 오르게 되었다. 10년 동안 그 당시의 라틴어 자료들을 연구하고 도나티스트들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베네딕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노바티안들과 도나티스트들은 땅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가 반드시 흠 없고 타락하지 않은 자들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름만 가진 채 형식적으로 입교나 세례 의식을 통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므로 ‘순수주의자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이 같은 형식상의 교인이 매우 많았으므로 어거스틴은 도나티스트들의 교리가 많은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 당시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개혁자들은, 그 이후에 있었던 다른 개혁자들과는 달리, 모든 것을 철저히 정리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떠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을 거부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회원과 침례와 규정과 공식적인 종부성사 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나 자기들의 교회에 온 사람은 주교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다시 침례를 받게 하고 다시 임명을 받게 했다.

우리는 결코 도나티스트들의 교리나 실행이 100% 옳다고 이야

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교리나 실행의 대부분이 신약 성경의 믿음 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옳았지만 그들에게 과격한 점도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들에 대한 증언을 잠시 기술한 것은 대부분의 교회사가들이 로마 카톨릭 역사관에 입각하여 이들에 대한 기록을 왜곡하고 이들을 마치 이단인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다른 교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단 교리로 오염되어 있었으며 특히 연옥이라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 그는 제롬과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비유로 해석했고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다시 정의를 내려 이것들을 마치 현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세상 권력의 연합으로 보았다. 그는 잘 알려진 대로 ‘후천년주의’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왕국의 형태를 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주장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어거스틴 편 참조). 또한 그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장하면서도 천주교의 일곱 가지 성사를 통해서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 + 행위’의 저주받은 복음으로 만든 인물이다 (별코프의 『기독교 교리의 역사』(*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pp. 206, 207).

샤프는 어거스틴이 주장한 교리의 초점이 ‘실제로 역사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은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정확하게 규정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사로 잘못 이해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다른 말로 하자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오지 않으며 오직 주 예수님으로부터 신자에게 직접 온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매개체나 매개물도 — 심지어 교회라는 매개체도 —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편 어거스틴은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가르쳤으며 연옥을 창안해 냈고 세례를 받음으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세례중생’ 교리를 가르쳤으며 결국은 유아세례를 강요하여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영원히 멸망받는다를 것을 체계화시켰다. 또한 그는 결국 교회를 성경 위에 두는 큰 실수를 범하고 ‘기독교’가 아닌 ‘교회교’를 만든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 그는 담대하게 이같이 말했다. ‘만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나를 강권하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저명한 침례교 역사학자인 아미티지(Thomas Armitage)는 이렇게 말한다.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권주의, 사제제도, 성사주의의 챔피언이 되었다’ (아미티지의 『침례교도들의 역사』(A History of the Baptists) pp. 216, 217).¹¹⁾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확립시켜 준 어거스틴이 비성경적인 원리나 관행을 교회에 들여와 성경의 교리에 먹칠을 하던 때에 바로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라는 부패한 역본이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부패한 성경’의 출현이 곧바로 성경 신자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성경대로 믿으려 하던 도나티스트들은 ‘부패한 성경’을 손에 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그 당시와 그 이후에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침략 전술

‘보편적 본문’이 그 당시의 일반적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 『구 라틴 별게이트』 — 예수 그리스도도의 참 복음은 유럽 전체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또한 이 성경은 유럽 전체에서 일반적

11) 어거스틴과 프란시스 등 천주교 성인들에 대해서는 『천주교가 기독교와 다른 37가지 이유』(도서출판 말씀과 만남)를 참조하기 바람.

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냥 ‘별게이트’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이 같은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로마는 제롬이라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도움을 얻었다.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그는 곧 부패한 ‘국지적 본문’을 라틴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는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던 ‘열 네 권의 외경’(Apocryphal books)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치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가 『구라틴 별게이트』를 계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 역본에다 ‘일반적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별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문제는 사실 새로운 역본들을 꺼내어 큰 돈벌이를 하는 현대판 성경 상인들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름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쉽사리 알아차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역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으로 많은 현대 역본들이 과거에 팔렸으며 지금도 팔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팔리는 이유는 1881년 이래로 모든 새로운 성경이 소개될 때마다 주로 사용된 대중매체의 ‘전격적인 공격’ 즉 과대 선전 때문이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사용한 것과 똑같은 작전이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탄이 한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사탄이 이브에게 다가가서 단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물어보았다고 독자는 믿는가? 절대로 아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는 사탄과 이브가 나누는 많은 대화 중 일부만을 보고 있다. 사탄은 명백한 사실을 약간 ‘희미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곤 한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성경 판매자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와 ‘더 좋은 역본이 필요하다.’고 서너 번 말할 때까지는 사실

더 좋은 역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원문에 좀 더 가까운 역본’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본조차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이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은 자기들이 열매(새 역본)를 먹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복(『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은 또 다른 역본 즉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역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니다. 힐즈 박사는 ‘성경 매매 사업’의 한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그는 『영국개역성경』(RV)과 같은 시기에 번역판을 출판하지 않기로 약속한 『미국표준역』(ASV) 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들은 『영국개역성경』의 출판 이후 14년 동안은 ‘자기들의 성경’을 출판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자기들은 좋아했지만 영국의 성경 개역자들은 채택하기를 거부했던 본문들의 목록을 자기들의 역본인 ASV의 부록에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46]

‘믿음의 경쟁자들’ 즉 ASV의 편집자들이 판단해 볼 때 동시에 두 개의 새로운 역본이 세상에 나오면 많은 돈을 벌 수 없었음이 확실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영’(spirit)에 의해 인도를 받았으나 나는 ‘그 영’이 결코 ‘거룩한 영 즉 성령님’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제품의 믿을 수 없는 번역본의 표지 위에 쓰여 있는 ‘벌게이트’ 즉 ‘공통 성경’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 책의 판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종종 ‘이탈리아 역본’(Italic)이라 불리기도 하는 『구 라틴 벌게이트』는 교육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존중하는 진실한 크리스천들이 굳게 붙잡고 간직했다.

윌켄슨 박사는 이 『구 라틴 벌게이트』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황권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수용하기 전에 이미 그와 비슷한 역본들이 존재했고 또 잘 확립되어 있었지만 수 세기 동안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 라틴 벌게이트』를 『제롬의 벌게이트』로 대체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야코부스의 말을 인용한다.

『구 라틴 벌게이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려 하지 않던 서부 지방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성경이다.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몰렸던 도나티스트들,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대륙 지방의 아일랜드 교도들, 그리고 주후 12-13세기경 남부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들인 알비파(Albigenses) 등이다.[47]

윌켄슨 박사는 1887년 6월에 열렸던 공개 토론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후 2세기의 하류 라틴 계급 속으로 파고든 『구 라틴 벌게이트』는 라틴어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공용어로 쓰일 때까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제롬의 벌게이트』는 결코 그 성경을 잠식시키지 못했고 단지 라틴어가 살아 있는 언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단지 ‘학식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구 라틴 벌게이트』를 대체하게 되었다. 울필라스(Ulfilas)의 『고딕 역본』도 『구 라틴 벌게이트』와 마찬가지로 그 역본을 기록한 고딕 언어가 소멸할 때까지만 사용되었다.[48]

이제 우리는 참 크리스천들이 로마 교회가 만든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거의 900년 이상이나 사용하지도 않았고 또 원하지도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실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추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책은 내용 면에서 『제롬의 벌게이트』와 매우 다르며 ‘고어체’로 기록된 『구 라틴 벌게이트』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믿을 만한 역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제거해야만 한다면 그들은 지체 없이 그렇게 했다. 이런 사악한 일

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인물이 바로 저 유명한 히포의 어거스틴이었던 것이다.

바울파에 대한 박해

역사를 통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약 시대의 참 크리스천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장본인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박해는 주후 약 600년부터 맹렬하게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도나티스트들과는 다른 무리들이 성경과 배도한 기독교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큰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은 폴리시안(Paulician, 바울파)이라는 그룹이었다. 이들에 대한 박해는 주후 660년경에 로마제국의 동부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실바누스(Constantino Sylvanius)라는 아르메니아 사람은 사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 14권을 선물로 받았으며 이 책들을 보물로 삼아 성경을 자신의 믿음의 척도로 정했다. 아마도 폴리시안(바울파)이라는 이름은 실바누스와 그의 동료 크리스천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교리를 무척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이름에 대한 기원이 어떻든 간에 바울파가 자기들의 기독교를 오직 성경 위에 확립시키려 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뒤 실바누스의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야고보서, 유대서, 요한 1, 2, 3서 등이 추가되었다. 아미티지는 이렇게 말한다.

폴리시안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이 보여 주는 빛을 좇으려고 노력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성경을 내던지고 대신 사람의 전통을 취한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폴리시안들은 목 베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책은 보이는 대로 불사름을 당했으며 그들을 숨겨 주는 사람들 역시 사형을 당하고 재산은 몰수당했다.

이런 박해로 인해 마침내 실바누스는 주후 690년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감독하며 지켜보던 시므온이란 사람은 후에 회심하여 그를 대신하여 폴리시안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끝내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버리기보다는 불에 타 죽는 편을 택해 역시 순교하고 말았다. 또 다른 지도자였던 세르기우스는 도끼로 목이 두 조각 난 채 순교했으며 그 당시에 온 폴리시안들이 한 군데서 죽임을 당했다. 이들에 대한 박해는 처음에 그리스 지방에서 황제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이들이 박해를 피해 이탈리아와 유럽 등지로 흩어짐에 따라 마침내 교황의 눈에도 띄게 되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온 유럽으로 흩어지면서 신앙 성경을 가지고 갔다. 이들에 대해 루터파 역사학자인 모세임은 17세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폴리시안들은 이탈리아에서부터 유럽의 여러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점차 모임의 숫자가 상당히 커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굳게 붙잡았으며 교황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이들은 후에 파테리니, 카타리, 불가리안, 가자리안, 룬카리안, 알비파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저명한 역사학자 기본을 비롯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폴리시안들이 알비파의 선두주자였으며 실제로 알비겐스파였다고 말한다. ‘알비겐스’라는 이름은 주후 1176년 알비 근처의 롬베르스라는 마을에서 열린 공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공회의 목적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리한 어떤 이단들을 조사하려는 것이었다.

이들을 박해하던 자들이 내건 구호는 폴리시안들이 비성경적인

‘마니주의’(Manicheanism)를 추종한다는 것이었지만 신실한 역사학자 중 많은 이들은 실제로 그것이 박해의 이유가 아님을 증명했다. 그들이 이단으로 몰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그들이 오직 성경에만 권위를 두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사람의 전통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와 로마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처럼 세상과 분리된 형제들 곧 로마 카톨릭 주의와 분리된 형제들의 간증을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일반 백성이 신약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처럼 분리된 형제들이 소유한 권위는 성경과 및 성경에서 나온 건전한 가르침에 있었다. 그러나 위협을 느낀 ‘배도한 교회’는 이 같은 권위를 부여한 성경책과 성경 사본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현재 우리에게는 폴리시안들이 기록한 글이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박해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헌으로부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을 뿐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읽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과 지혜와 성화와 기쁨과 복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성경은 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을 가져다주었으며 사람의 전통이나 교권주의의 잘못을 밝히 보여 주었다. 따라서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의 근본을 오직 성경에만 두려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도 교회를 형성하려 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과 짝하여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가득한 거짓된 기독교를 만들려는 사람들과 늘 부딪힐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갈등 속에서 많은 성경 신자들이 성경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자 순교하는 길을 택했다.

왈덴시안들에 대한 박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뒤 약 1000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지닌 성경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며 성경을 보존했고, 둘째 천 년이 시작되어 소위 중세 암흑시대로 들어가면서 ‘왈덴시안’ (혹은 왈도파)이라는 무리가 성경 신자들의 명맥을 이어가며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아미티지에 따르면, 왈도(Peter Waldo)와 그의 동료 신자들은 신약 성경을 번역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교파를 형성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프랑스의 리용 지방 출신으로서 그 당시 교황이던 알렉산더 3세에게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를 당했다.

주후 1160년에 왈도는 두 사람을 고용하여 성경과 및 일부 교부들이 저술한 글의 요약문을 그 당시 유행하던 언어로 번역하게 하고 또 일반 백성을 위한 소책자를 만들었다. 그 결과 성경 필사본이 많이 만들어져 유통되었고 성경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또 다른 이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던 대주교는 이 성경 선생들을 자신의 교구 밖으로 내쫓았다. 성경을 번역한 이들은 안사의 스테반과 이드로스였다. 이에 왈도는 로마에 항소하기로 하고 교황 알렉산더 3세에게 자기들이 번역한 것을 보여 주려고 두 사람을 보냈으나 교황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제들이 이로 인해 실족할 것을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교황 루시우스는 이들에게 정죄를 내리고 파문에 처했다(블랙번의 『기독교회의 역사』(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1880년, pp. 309, 310).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주후 1179년에 열린 제3차 라테란 공회에서도 왈도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공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왈덴시안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의 성직자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이라도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

한편 제3차 라테란 공회에서는 이단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과 그들의 친구들에게도 형벌을 가하기로 결정했고 영주들에게는 이

단들을 노예로 만들어도 좋다고 허락했다. 워딩턴(George Waddington)은 피터 왈도와 ‘왈덴시안’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피터 왈도는 리옹 출신의 평신도였지만 상인이라는 세속 생활의 직업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진상을 면밀히 연구하여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순수함에서 벗어난 부조리로 인해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 뒤 그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는 성경의 진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연합체를 형성했다. 그는 주후 1160년경에 이런 사역을 시작했다. 이미 몇몇 사람들에게 성경의 일부를 일반 사람들의 말로 번역하라고 시켰으므로 그는 그 책들에 대해 강해 설교를 하면서 프랑스와 롬바르디아에서 많은 무리를 규합했다. 이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피드몽 골짜기를 방문했으며 거기에서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당시 그들은 ‘왈덴시안’ 즉 ‘골짜기 사람들’이라고 불렸다. 피터 왈도의 복음 선포는 그들의 의견을 확고히 해 주었고 또한 그들의 교리 등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게 되었고 그 뒤로 그의 성을 따서 ‘왈덴시안들’은 ‘왈도파’로 부르기도 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피드몽 골짜기에서 성경을 보존하며 살던 ‘왈덴시안들’이 왈도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점이다. ‘왈덴시안들’의 역사를 성실하게 기록한 와일리(J. A. Wiley) 역시 이 점에 동의하며 ‘왈덴시안들’의 뿌리와 전통이 초기사도시대부터 내려왔음을 입증했다. 이 당시 ‘왈덴시안들’이 만들어 보급한 성경 역본은 로마어(Romaunt language)로 기록되었는데 이 말은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보다 더 앞선 것이다. 이에 대해 와일리는 이렇게 말한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왈덴시안들이 자기들의 말로 된 신약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로마나어’ 혹은 ‘로망어’는 주후 8-14세기경의 남부 유럽의 공통 언어였으며 중세 시대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쓰는 말이었다. 아마도 12세기경에 전체 신약 성경이 이 언어로 번역되었던 것 같다. 길리 박사는 『요한 복음의 로망어 번역』이라는 책에서 이 점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으며 그 결과 12세기에 『라틴 별게이트』에서 로망어로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왈도의 감독하에 주후 1180년경에 완성된 로망어 역본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영어로 된 그 어떤 역

본보다도 앞선 것이다. 이 역본은 남부 프랑스에 널리 퍼진 ‘피드몽 계곡의 왈덴시안들’이 사용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산 사람들이 로망어 성경을 보존하고 보급했다는 데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현재 6부의 로망어 복사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와일리, 『왈덴시안들의 역사』(*History of the Waldenses*), pp.12,13).

교황 이노센트 3세를 비롯한 여러 교황으로부터 참혹한 박해를 받았던 왈덴시안들은 한 마디로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 이에 대해 아미티지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성경과 그 외 책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회심시켰다. 그들은 오두막이나 귀족의 성에 가서 옷감이나 보석 등을 팔곤 했으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매우 보기 드문 것이지요. 제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석이 있으며 당신의 마음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왈덴시안 상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퍼서 복음을 전했다(『침례교도들의 역사』(*A History of the Baptists I*), p.301).

영국의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프랑스의 『올리베 땅 성경』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왈덴시안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 담긴 하늘에 속한 진리로 인해 부요하게 되었으며 항상 그 진리로 인해 즐거워했다.

17세기에 왈덴시안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에 왈덴시안 교회의 목사였던 레거는 1669년에 출간된 『피드몽 골짜기의 복음주의 교회 역사』라는 책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고대 사본들은 거짓으로 가득하다.’고 기록했다. 그는 또한 종교 개혁 시대에 『공인 본문』을 출간한 베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음을 기록했다.

프랑스 국민들이 프랑스 말로 된 성경을 갖게 된 것은 왈덴시안들의 희생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한편 아미티지는 왈덴시안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여

보여 준다.

왈덴시안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랑한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보물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플레미쉬, 독일,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었다. 그들은 신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했으며 구원받기 위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다(『침례교도들의 역사』(*A History of the Baptists I*), p.308).

이런 이유로 이들은 신약 성경의 믿음을 왜곡시킨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이들이 성경으로 비추어 주는 빛이 로마 교회의 이단 교리를 확연히 드러나게 했기 때문이었다. 아미티지는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얼마나 혹독하게 왈덴시안들을 박해했는지 잘 보여 준다.

많은 이들은 얼어 죽었고 어떤 이들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동굴로 밀려들어 가 입구가 막힌 상태에서 질식사해서 죽었다. 어떤 이들은 목매달려 죽었고 배를 가른 채 죽었으며 익사하기도 했고 말들이 사지를 찢음으로 죽기도 했으며 매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었고 개밥이 되거나 회형을 당하거나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침례교도들의 역사』(*A History of the Baptists I*), p.311, 312).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폭스의 『순교사화』(*Fox's Book of Martyrs*)에는 골짜기에서 약 500미터 높이에 있는 카스텔루쵸 동굴에서 사백 명의 여인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몰살당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왈덴시안들에 대한 핍박에 대해 블랙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거의 번역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일부분이라도 평민들의 언어로 번역되지만 하면 사람들이 성경의 빛 안에서 기뻐하곤 했다. 프랑스의 멧츠 지방에서는 ‘왈덴시안들’이라고 하는 리옹 출신의 가난한 사람들이 프랑스 말로 성경의 몇몇 책을 번역해서 가져왔다. 그러자 그것들을 열심히 읽은 남녀들이 성경을 읽는 연합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에 카톨릭 사제들은 그들이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러자 이 연합체의 회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책

은 당신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에 주교는 교황 이노센트 3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비밀리에 모임을 갖거나 복음을 선포하거나 사제들을 우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려면 반드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제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훈련받은 사람이므로 아무리 그가 무식해 보여도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 같은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블랙번의 『기독교회의 역사』(*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1880년, pp. 314, 315).

그 당시 교황 이노센트 3세의 박해는 매우 야만적이었다. 종교 재판을 시행하는 자들은 주로 세 가지 방법에 의해 피고가 무죄인지 혹은 이단으로 유죄인지를 판명했다. 뜨겁게 달군 쇠로 판결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손에다 빨강계 달군 쇠덩어리를 쥐여 주고는 그것을 손에 쥔 채 아홉 발자국을 걸어가게 했다. 그러고 나서 신부가 그 손을 천으로 싸 주었으며 사흘 후에 손을 검사했다. 사흘 후에 손에 상처가 있으면 피고는 유죄를 받아 죽어야만 했다. 한편 뜨거운 물로 판결하는 경우에 피고는 펄펄 끓는 물에다 손을 팔꿈치까지 담가야 했다. 차가운 물로 판결하는 경우에 피고는 완전히 옷을 벗고 강이나 운하로 뛰어들어야 했다. 만일 그가 떠오르면 정죄를 받았고 가라앉으면 무죄로 판결이 났다. 수많은 성경 신자들이 성경 말씀대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역경의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왈덴시안들에 대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다.

왈덴시안들에 대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채 1세기가 지나지 않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에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그 당시의 박해는 그 후에 있던 박해에 비해 혹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처형을 당했다. 주후 1211년에는 알사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80여 명의 남녀가 처형을 당했고 1214년에는 스페인의 모릴락에서 7명이 화형을 당했으며 1231-1233년 사이에 독일에서는 왈덴시안들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왈덴시안들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북부 및

남부 오스트리아에서는 왈덴시안들이 정기 예배 장소로 정한 학교들이 50여 군데나 생겼으며, 1315년에는 남부 오스트리아의 조그만 지역에서 왈덴시안 마을이 36개나 설립되었다. 그 당시 전 오스트리아에는 약 80,000명의 왈덴시안들이 있었고 그들은 보헤미아, 모라비아, 카린티아, 스티리아, 실레시아, 브란덴부르크, 포머라니아, 폴란드 등에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수행했다.

1315년에 비엔나 근처의 함부르크에서 화형을 당한 왈덴시안 감독 뉴아이스터에 따르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방에 왈덴시안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했다고 한다. 한편 1315년에 실레시아의 슈바이드니츠라는 마을에서 50여 명의 왈덴시안들이 화형을 당했고 1309년에는 폴란드에서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다. 14세기 후반에는 헝가리와 트랜실베이니아에 왈덴시안들이 많이 살았다.

그런데 1390년경에는 위의 모든 지방에서 왈덴시안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왈덴시안들이 이런 지방에서 살아 남게 되었고 특히 남부 보헤미아에는 온 마을 전체가 왈덴시안의 믿음을 갖게 되었고 모라비아 지방에서는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도 부조차도 그 지방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1393년에 브란덴부르크, 포머라니아, 메클렌부르크 등에서는 443명의 왈덴시안들이 이단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많은 왈덴시안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그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고감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호르쉬, 『유럽의 메노나이트파』(*Mennonites in Europe*), pp.7,8).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음모

교황 그레고리 1세는 이러한 참 크리스천들에 관한 역사적 기록마저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변개시켰다. 왈도파에 대해서 길리 박사(Dr. Gilly)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왈도파에 관한 기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약탈 행위는 1658년 몰랜드가 왈도파에 대한 모든 기록을 영국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안전하게 위탁했을 때에도 여전히 수행되었다. 이렇게 오래된 유물들은 ‘A’부터 ‘G’까지 7개의 영어 알파벳 딱지를 붙여 보관되었으나 내가 1823년 그것들을 찾아보려 했을 때 이미 그것들은 지상에서 사라져버렸다.[49]

또한 길리 박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행위에 대한 다음 보고를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

교황의 수행원들은 왈도파의 본질을 증상모략하여 그들의 고상한 과거 행적을 모두 말살하고 또한 그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당한 모진 고난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기 위해 극도의 수단들을 동원했다. 심지어 그들은 고대 기록에서 이단 교리들을 가르친 이단들의 이름을 지워 버리고 대신 그 빈 공간에 왈도파 교도들의 이름을 써놓았다. 이것은 마치 불법 행위를 한 도둑 때의 두목 제시 제임스(Jesse James)에 관한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 버리고 노예해방을 했던 훌륭한 아브라함 대통령의 이름을 적어 놓는 일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예수회 출신의 그렛서는 12-13세기 이단들에 대한 책에서 이단교도들의 이름을 지워 버리고 대신 왈도파 사람들의 이름을 넣었다.[50]

왈도파에 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악한 박해 행위는 1665년 에 일어난 왈도파 대학살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51] 비록 그들이 1800년대 중반까지 이단으로 몰렸지만 그 이후에는 오래 참음 덕택에 이 같은 못된 행동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52]

프로테스탄트들의 반격

1517년 마틴 루터(Martin Luther)라는 이름의 한 젊은 카톨릭 사제가 비텐부르크의 성문에 역사적인 95개 조항을 못 박았을 때 전 유럽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그 못은 수 세기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의 독재하에서 모진 고생을 했던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의 마음속에도 깊이 박혔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새롭고 용감한 지도자에게로 모여들었다. 이때부터 루터교(Lutheranism)가 시작되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의 불길의 타오르게 된 것이다.

마침내 개혁의 조류가 영국의 해안에 닿을 때까지 이런 추세는 온 유럽을 휩쓸고 있었다. 이미 약해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는 진리의 맹공격으로 초토화되었다. 전 유럽의 3분의 2 이상이 인류

의 모든 시대를 통해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 개혁의 기운으로 뒤덮였다. 한편 종교 개혁은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필수적이었다. 영국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권에 의해 침해를 받아 왔다.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됨과 더불어 성경의 최종 권위에 대한 생각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신적 풍속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루터의 무기고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확실한 무기는 1522년에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독일어 신약 성경』이었다. 이 성경으로 인해 ‘보편적 본문’의 순수한 말씀이 ‘성경에 굶주린 크리스천들’에게 되돌아가게 되었다. 사실 종교 개혁은 이 믿을만한 성경 역본을 연료로 해서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영국에까지 퍼져 나갔다.

이러한 시점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운동을 저지시킬 만한 힘이 전혀 없었다. 교황청은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는 ‘진리의 무서운 적’과 싸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급히 두 가지 다른 것들을 포착해 냈다. 주후 1545년 로마 카톨릭 교회는 ‘트렌트 공회’(Council of Trent)를 구성했다. ‘트렌트 공회’는 조직적으로 종교 개혁의 가르침을 부정했으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 안에서 단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사실 이같이 중요한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믿고 있는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공회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만일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믿음이 다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이 같은 확신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53]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죄를 짓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거짓 교회를 사용하겠는가?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은 ‘트렌트 공회’를 사실 ‘종이 호랑이’ 정도로 보았다. 정말로 그 공회는 프로테스탄트들을 통치할 어떠한 권위도 갖고 있지 않았다. 헛간의 문이 안전하게 닫힌 것 같았지만 사실상 말들은 여기저기에서 기뻐 날뛰고 있었다. 그런데 난폭한 ‘트렌트 공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이 생겨났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없는 예수회’ (Jesuits)였다!

극악무도한 예수회

예수회는 1534년 로올라(Ignatius Loyola)라는 이름의 스페인 사람이 설립한 단체이다. 로올라는 1491년 귀프크코아 지방의 로올라 성에 속한 이니고로페즈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고 폭력적이며 복수심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졌으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거칠고 자만에 빠진 군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1521년 로올라는 팜펠루나의 공격에서 큰 부상을 입었다. 그는 다리가 부러져 절게 되었으며 남은 생애 동안 다리를 저는 것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영적 승리’를 갈망하게 되었다.[54]

로올라는 남자들로 구성된 엘리트 군대를 만들어서 전적으로 교황에게 충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의 ‘프로테스탄트들과 이단들’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를 다 포기하고 오직 교황의 명령에만 순종하기 위해 14년 동안 시련과 고난의 훈련을 겪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황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로올라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교황에

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예수회의 우두머리는 ‘검은 교황’ (Black Pope)이라고 불렸으며 군대에서처럼 장군의 칭호를 붙여 주었다. 예수회의 회원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검은 교황’ 과 자기들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로올라의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 모두 상관이 명령할 때는 모든 것이 좋고 올바른 것이라고 확신하자.

또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각이 없는 짐승 하나를 주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 짐승을 주인과 인도자로 여기고 복종해야 하며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그는 더욱 상세히 설명했다.

만일 로마 카톨릭 교회가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만 한다.[55]

사실상 예수회는 이름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단체였다.

마귀의 사복 경찰

예수회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겠는가? 군사력이 될 것인가? 배짱 좋은 행위가 될 것인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옹호자들을 국가나 단체의 지도자로 세우는 폭력의 혁명이 될 것인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예수회는 먼저 바티칸의 사복 경찰 노릇을 해야만 했다. 그들은 어떤 단체의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지도자의 위치를 획득한 비밀 집단이었다. 예수회는 국가나 중요 단체의 특별한 지도자들

을 사로잡는 것이 전체를 정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유명한 프랑스 작가이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사에 대한 권위자였던 빠리(Edmund Paris)는 바티칸이 섬기는 영(靈)이 누구이며 또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보여 주는 귀한 책을 많이 저술했다. 그는 카톨릭 주의의 참모습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정치야말로 그들의 주요 무대이며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모든 노력은 단 한 가지 목적 즉 전 세계를 교황권에 복종시키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단체의 '우두머리'를 정복해야만 한다.[56]

예수회 회원들은 카톨릭 사제들이 입는 전통적인 복장을 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 그들의 옷은 그들이 변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나타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라졌다. 빠리는 다음에 기술하는 바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의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예수회의 33,000명의 공식 회원들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예수회의 비밀 군대는 정당의 수뇌 인사, 장군, 의사, 교수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 즉 교황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57]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이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종교 교파와도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행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영원한 원수인 '프로테스탄트들'을 파괴시키고 동시에 약화시키기 위하여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파괴력을 사용한다. 빠리는 16세기 말에 스칸디나비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574년에 사제 니콜라이와 다른 예수회 회원은 자신들을 공식적으로 루터교 교인이라고 소개하고는 최근에 설립된 기술 학교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 교인으로 개종시켰다.[58]

데상티스 박사는 이렇게 지적한다.

자신들이 당한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회 회원들은 결코 영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실 영국에는 이탈리아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회 회원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 파고 들어가 잠재하고 있었다! 영국의 의회, 영국 국교회의 목사들, 프로테스탄트 평신도들, 심지어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도 예수회 회원이 많이 있었다. 어떻게 예수회 회원이 프로테스탄트 목사가 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프로테스탄트 목사가 예수회 회원이 될 수 있는지 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고해성사 신부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이 되었다고 내게 말함으로써 나의 혼동을 진정시켜 주었다. 따라서 예수회의 일원이 프로테스탄트를 개종시키려고 프로테스탄트인 것처럼 가장해야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59]

거룩한 살인?

예수회 회원들에게는 심지어 살인까지도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수회의 대장은 사탄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예수회의 대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또한 중혼죄, 다른 사람들에게 입힌 상처, 살인, 암살뿐만 아니라 기타 문젯거리가 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악한 행위들이 공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또 그러한 불법행위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말이다.[60]

예수회의 사제들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빠리의 책 『예수회의 비밀 역사』(*The Secret History of the Jesuits*)에 나오는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범죄성이 농후한 예수회의 준칙들 중에 가장 큰 공적 분노를 일으킨 것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검토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수도사나 신부들 혹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금방이라도 비방할 것 같은 자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허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칙은 자기들의 대적자를 제거할 권리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며 심지어 예수회 회원이라도 이런 사실을 입 밖에 내거나 너무 말이 많으면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칙은 『사제 아미의 신학』(*Theology of Father L' Amy*)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이것에 대해 예수회는 다음과 같이 쓸 만큼 매우 냉소적이었다. ‘즉 만일 유혹에 넘어가서 한 신부가 여자를 범했는데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선전하고 다닌다면,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를 모욕한다면, 이 신부는 그 치욕을 피하려고 그녀를 죽일 수 있다!’ [61]

1572년 예수회는 통치자 헨리 3세의 도움으로 프랑스에서 성 바돌로메 날에 프로테스탄트 대학살을 감행했다. 1572년 8월 15일에 발생한 그 악명 높은 사건에서 예수회는 로마 카톨릭 신도인 마가렛 공주와 위그노(프로테스탄트) 신자인 헨리 사이의 결혼식을 위해 모였던 위그노 지도자를 다 죽여 버렸다. 또한 이 살인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을 선동하여 수천 명의 남녀 및 어린이 위그노들을 살육하게 했다.

다행히 프로테스탄트였던 나바레의 헨리는 살해되지 않았으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부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기독교를 부인한 것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는 1593년까지 여전히 프로테스탄트로 남아 있었다. 예수회의 이러한 음모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의 수는 적어도 10,000명이나 될 것으로 추정된다.[62]

한편 헨리 3세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자 1589년에 클레멘트라는 수도사가 그를 암살했다.[63] 이 클레멘트는 예수회 사제인 까말레가 천사라고 부른 인물이었다.[64] 구이가르라는 예수회의 또 다른 사제는 비록 자신이 교수형을 당하지만 클레멘트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사실 그는 헨리 3세를 일찍이 성 바돌로메 날 대학살 때

살해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교설로 그들을 가르쳤다.

클레멘트는 성령에 고무되어 위대한 행동을 했다. 만일 우리가 왕에 대하여 전쟁을 할 수 있다면 전쟁을 할 것이다. 만일 그를 대하여 전쟁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를 죽일 것이다. 우리는 성 바돌로메 날에 큰 실수를 범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 날 왕의 피를 흘렸어야만 했다.[65]

예수회의 살인 방법은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역사에 더 많이 나타나 있다. 헨리 3세가 살해되었을 때 위그노 신자인 나바레의 헨리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카톨릭 주의에 대항하려는 시도를 결코 실현하지 못했고 헨리 4세가 그를 이어 통치를 하게 되었다. 1592년 베리에르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왕을 살해하려 했다. 그는 자신이 예수회의 사제이자 신부인 바라테를 통해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받아 왔다고 자백했다.[66]

1592년 예수회 선생들에게 지도를 받고 자신이 행하려고 한 바를 예수회에 고백한 카틀 역시 프로테스탄트 왕을 죽이려고 했다.[67]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예수회 선생인 사제 구이가르느는 이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교수형을 당했다.[68]

1598년 국왕 헨리 4세는 참 크리스천이던 위그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는 낭트 칙령을 발표했다.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완전한 시민의 권리를 갖게 되었고 자기들이 예배 모임을 가졌던 도시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왜냐하면 헨리 4세는 결국 제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회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이 일을 수행하고자 했다. 빠리는 국왕 헨리 4세의 암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1610년 5월 16일 오스트리아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펴기 전날 밤 그는 마리아나 사제와 수에레즈 사제의 저서를 통해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한 라벨레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두 사제는 이교도의 폭군들이나 또는 교황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헌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살인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암살자가 숨어 있는

동안에 왕에게 편지를 읽게 했던 에페르논 공작은 사실 예수회의 악명 높은 친구였다. 그리고 마첼레는 그들이 이 시도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증명해 보였다. 사실 라벨레는 예수회 신부인 드아우비느에게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고백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판사들이 드아우비느 사제에게 질문하자 이 사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해성사에서 들었던 것을 곧바로 잊어버리는 선물을 주었다고 대답했다.[69]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영’(spirit)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에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보여 준 잔인성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이런 교회를 사용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음모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예수회 사제들의 그림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이러한 음모 뒤에 숨어 힘을 행사하면서도 그들은 자기 주위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 겉으로는 결백한 것처럼 행동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스위스는 결코 예수회 회원들을 자기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적(敵)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고 종종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증오를 받고 있다면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대의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증오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그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조를 퍼트리는데 유용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이와 똑같은 원리를 성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분명히 진리의 원수인 예수회가 과연 진리만을 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건파우더 음모 사건

오류투성이인 『제롬의 별게이트』나 혹은 1582년에 발간된 예수회 성경인 『두에앵스 역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시작한 영국의 제임스 왕(King James)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증오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파이네(Gustavus Paine)가 저술한 『킹제임스 성경 배후의 사람들』(*The Men Behind the King James Version*)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려 한다. 다음에 기록된 이야기는 주후 1605-1606년에 일어난 일이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복잡해서 여기에 자세히 서술할 수 없다. 그러나 10월 26일에 챔버린 성주인 몽티글 경은 의회가 열리는 날에 자기가 의회를 떠날 것을 청원하는 내용의,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편지를 받았다. 그는 세실에게 그 편지를 가져갔고 세실은 11월 1일 한밤중에 있던 회의에서 제임스 왕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자 왕은 기민하게 그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했다.

11월 4일 월요일, 왕족의 대리인은 의사당 밑의 지하실에서 하인으로 변장한 포크스(Guy Fawkes)라는 사람이 장작더미, 목재용 나무, 석탄 더미 옆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대리인은 그 자리에서 나갔고 곧 몽티글과 다른 이들이 함께 와서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포크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포크스는 그들이 가려고 할 때까지 당번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명한 카톨릭 교도인 퍼시의 하인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잠시 후, 한밤중에 병사들은 포크스가 군화를 신은 채 지하실 문밖에서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그리 애쓰는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조사했고 그가 부싯돌 통과 한 다발의 성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아냈다. 이에 그들은 화를 내면서 장작과 굵은 목재용 나무 그리고 석탄을 옮겼고 그 안에서 모두 36통이나 되는 많은 양의 화약을 발견해 냈다. 그 후 포크스는 자기가 의원들과 국왕의 관저를 날려 버리려고 했음을 고백했다.

11월 6일 퍼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왕실에서 이미 자기들의 계획을 알아챈다는 소식을 듣고 던쳐치에 있는 한 여관으로 몰려갔다. 11월 8일에는 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이 밝혀졌다. 의회가 정해진 날을 넘기고 일주일

더 개최되었을 때 침착하고 호의적이며 훌륭한 왕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했고 그 뒤 그 모임은 폐회되었다. 처음에 포크스는 왕실의 추적을 받아 도망하던 중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살된 퍼시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한 번에 의원들의 의사당을 날려 버리려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냈다.

요크 교회 법원의 옹호자이며 대리인이었던 에드워드 포크스의 아들인 가이 포크스는 1570년 4월 16일 성 미카엘 르벨프레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뒤 그의 아버지는 죽었고 그의 어머니는 카톨릭 교도와 재혼했다. 1603년에 포크스는 필립 3세가 영국을 침략해야만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갔다. 그는 상습적인 반역자였고 기만한 음모자들에 의해 충동을 받았으며 결국 그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었다.

이 사람들 중 몇몇은 에세스 백작의 봉기에도 연루되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한때는 영국 국교회 회원이었으며 또 상당한 부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국가를 뒤엎고 제임스 왕을 제거하려고 작정했던 대단히 귀찮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가 교황에 대한 충성 하에서 하나가 될 것을 확신했다.

이 일을 위해 음모자들은 거의 일 년 동안 멀리서부터 터널을 뚫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의사당 밑에서 3m 두께의 벽을 발견했고 하는 수 없이 옆 건물을 빌려서 그 지하실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들은 제임스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들을 체포한 다음 플랜더스에 있는 스페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공공연한 반란을 일으키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왕좌에 앉혀 그녀를 카톨릭 교도와 결혼시키려고 계획했다. 에버러드 덕비 경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주간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인 오버롤(John Overall)이 그들의 처형 광경을 보는 가운데 성 바울 교회 뜰에서 4명이 교수형을 당했고 고궁 뜰에서 또 다른 4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석 달 후 영국 예수회의 수장이라고 생각되는 예수회 회원 헨리 가넷(Henry Gamet)의 재판이 다가왔다. 프로테스탄트로 양육된 그는 음모를 알았으나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알리지 않았고 결국 선택된 희생자들이 모두 죽도록 그대 로 내버려두었다. 법정은 그에게도 사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사건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근심케 했다. 가넷이 성 바울 교회 뜰에서 교수형을 당하는 5월 3일, 그 교회의 감독인 오버롤은 그곳에 참석하기 위해 번역하는 일을 잠시 중단했다. 그와 윈체스터 감독은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크리스천답게 가넷에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하고 살아 있는 믿음과 또 세상에서 범한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고 명백하게 진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들은 만일 더 깊은 반역죄가 그의 머릿속에 있다면 양심의 짐을 덜고 또 그로 인한 슬픔을 보여 주기 위해 그것을 벗어 던지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념이 확고한 가넷은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 것을 원했다. 그래서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형을 집행한 뒤에 오버를 감독은 성 바울 교회로 되돌아갔고 성경 번역 작업을 계속했다.[70]

이렇게 되어 소위 ‘건파우더 음모 사건’ (Gunpowder plot)이란 불리는 음흉한 사건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음모가 있는 곳에는 대개 예수회의 손길이 있었다. 위의 사실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다.¹²⁾ 이 계획의 실패로 인해 예수회가 패배를 당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가넷은 이러한 단호한 계획을 너무 급하게 수행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사실 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열정을 쏟아 붓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행동하는 예수회의 규칙’을 잊고 있었다.

예수회의 새로운 계획

예수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 전에 늘 해왔던 것처럼 그들은 또다시 비밀 활동에 의지하려 했다. 그들의 과업은 어려운 것이었으나 확고한 예수회에게 사실 불가능한 것이란 거의 없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의심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영국 학자들의 지성과 마음에 간직되어 확고한 위치를 지니고 있던 ‘그리스어 보편적 본문’을 몰아내야만 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를 로마 카톨릭 교회 안으로 되돌아오게 해야만 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은 학자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내건 구호는 한 마디로 다음과 같다.

12) 이것을 확인하려면 영한사전에서 ‘Gunpowder’를 찾아보기 바람.

‘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육을 이상처럼 숭배해왔다. 만일 유명한 교육자가 어떤 주장을 한다면 일반 대중은 쉽게 그것을 따른다. 왜냐하면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체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보통 미국 사람이라면 대개 ‘진화론’을 하나의 증명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자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니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학교가 진화론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다!

이제 예수회의 과업은 프로테스탄트 학자들을 부추겨 로마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볼 때 완고한 이교도들 곧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이 개혁자들의 순수한 본문을 고집하는 한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을 로마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없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들은 순수한 『킹제임스 성경』을 『제롬의 별게이트』와 1582년의 예수회 번역판인 『두에랭스 역본』으로 대치시켜야만 했다. 그런데 이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리스천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 개혁 본문’이 믿을 만한 가치가 없으며 또한 그들의 『킹제임스 성경』이 학문적이지 않다는 것을 널리 퍼뜨려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해야만 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 학자들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자기 본위의 학자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성경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돕고 있다고 믿게 될 것으로 그들은 판단했다.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을 순수

하지 못한 역본으로 대체시키는 것이었다.

사실 『킹제임스 성경』은 맥클루어가 지적하듯이 로마 교회가 기 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적이 되었다.

영어 성경의 인쇄는 천주교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또 로마 교황의 자원들을 손 상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이 입증되었다. 원래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 연방의 좁은 한계 내에 살고 있 던 5, 6백만 명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후 영어가 순수성을 잃고 혼란하게 될 때까지 영국 민족의 언어를 형성했으며 동시에 확고히 했다. 그리고 그 후 계 속해서 영국 사람들은 그 영어와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섬과 육지로 나 아갔다.

무서운 일이 발생하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본문으로부터 번역되어 전 세계 공통 언 어가 된 영어로 가장 정확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자 크리 스�천들은 그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 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박했다.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10% 정도의 왜곡된 성경과 90% 정도의 미신 위에 이루어졌다. 사람들 이 무지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그들을 다 스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 예 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고 수할 때는 더 이상 동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톨릭 주의든 혹은 다른 어떤 이단이든 간에 쉽게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적을 돕는 일

무심하게 시간만 흘러보내는 것은 도리어 예수회의 악행을 돕는 꼴이 된다. 대부분의 대규모 교파들은 거의 피할 수 없는 똑같이 이러한 과정을 따르고 있다. 대개 그들은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반짝 부흥회 모임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떠나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도록 만드는 영적 각성 부흥을 통해 발전하기 시작한다. 종교 개혁이 그 좋은 예이다. 사람들은 성경으로 더 가까이 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었으며 그 결과 전 유럽을 휩쓴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나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왔다.

부흥이 지나간 뒤 다음 단계로 ‘교육’이 득세한다.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그들에게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다. 물론 그들은 교육을 위해 로마 카톨릭 철학이 팽배한 학교에 사람들을 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는 기독교 자체의 신학교를 세워서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문화’이다. 일단 어떤 개혁이든지 확고히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문화를 형성한다. 이 같은 과정은 약 50-100년 정도 걸린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개혁 운동 자체가 자기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할 어떤 세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루터교의 경우에도 그랬고 현재의 미국 근본주의 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까지만 해도 근본주의 전도자는 교육도 받지 못한 ‘뒷동산의 시골뜨기’로 취급을 당했고 단지 ‘지옥, 불, 저주’ 등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온 세상은 근본주의라는 것이 어떤 강력한 세력임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근본주의 교회가 미국 내에서 가장 크며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TV나 잡지들도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특

별 기사들을 내고 있다. 1980년도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근본주의 운동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실히 보여 주었다. 이처럼 근본주의는 오래 존속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어떤 교파나 운동의 세력이 확장되면 그 안에 '자만심' 같은 것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이것은 결코 어떤 개인이나 교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고 진리이다. 종교 개혁을 이룬 전도자들은 지하실이나 감옥 등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가장 크고 급성장하는 교회의 강단에 서게 되자 이내 승리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학교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자만하게 되었다. 동시에 새로이 시작된 편안한 삶은 그들 안에 미묘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들은 곧 삶에서 좀 더 고상한 것만을 찾으려 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종교 개혁 초기에 지하실에서 설교하기 위해 양초 하나만 있어도 만족해하던 목사는 25년이 지난 후 깨끗하고 잘 정돈된 건물 안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성도들의 수가 늘고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교회 건물은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 우아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해간다. 실내 장식 등을 멋있게 달고 교회당 천장을 점점 높이며 의자도 좀 더 안락하게 만든다. 창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품인 스테인드 글래스로 장식되고 목사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계속 짓는 건물은 더욱 더 커지고 비싼 석조물을 사용해서 점점 더 좋아진다. 그리고 목사들과 성도들은 그 건물의 우아함을 찬미한다. 이렇게 되면서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동행하는 문화를 갖게 되며 그 결과 이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성직자 혹은 제사장이 되고 말며 결국 로마 카톨릭 전통으로 되돌아가서 신부들이 입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예배드리기 전에 가운을 입고 행렬을 하며 입장하는가 하면 주의 만찬을 미사로 착각하여 목사가 빵을 떼어 성도의 입에 넣

어주는 해프닝이 발생한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아무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또한 성직자 의식으로 인한 분리된 삶과 잘못된 성경 교육으로 인해 그들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 그들의 대학들도 처음에는 목사를 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으나 이제는 예술 과목 중심으로 교육한다.

참된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비록 교육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하기는 하나 사실 문화는 육체에 호소하는 것이다. 일단 육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면 배도가 시작된다. 그들은 일반 대중이 교회나 신학교가 너무 세상적이라고 생각할까 봐 ‘우리는 최고로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혹은 ‘나는 일등이다.’ 라는 말을 늘어놓는다. 물론 신학교의 행정 담당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마 보통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이런 조그만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들은 우리처럼 교육을 받지 못했을 테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손에 든 크리스천이 나타나서는 교회나 신학교에 새로 형성되는 문화를 정죄하는 성경 구절을 내민다. 이제 신학교들은 성경을 믿고 있는 이 무지한 크리스천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박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자기들이 빠져 있음을 재빨리 깨닫는다. 과연 어느 것이 최종 권위인가? 신학교인가? 성경말씀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최종 권위요.’ 라고 대답한다.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웨스트민스터 대학이 그랬다. 미국의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이 그랬다. 교육은 문화를 수태했고 결국 그 문화는 배도를 낳은 것이다.

1998년 6월에 미국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다름이 아니고 루터교와 천주교가 서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루터교가 믿는다고 주장해 온 ‘은혜 은혜’ 교리와 천주교의 ‘은혜 + 행위’ 교리가 같다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일을 본다면 과연 무어라 말할까? 로마 카톨릭 주의의 산물을 철저히 없애지 않는 한 결국 종교통합주의를 통해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바빌론 음녀의 손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배도를 위해 무르익음

1800년대 초반의 영국은 쉽게 배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마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성문에 95개 조항을 붙인 뒤 종교개혁은 참으로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개혁은 전 유럽을 휩쓸었고 성경의 순전한 본문을 가르치는 교회와 학교가 많이 생겨났다. 교육의 토대가 내려졌고 드디어 그 위에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의회를 폭파시키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음모도 가버렸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처형당한 틴데일과 같이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어지게 되었으며 매리 여왕에 의한 폭력 통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에 기초를 둔 교회들은 번창했고 부유하게 되었다. 미미하게 시작을 했던 대학들(신학교들)은 이제는 다 종합 대학이 되어 고등교육을 추구하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교육자들 역시 더 이상 로마 카톨릭 교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제 영국은 그들의 최종 권위를 성경으로부터 교육으로 옮기려는 태세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언제든지 자기들의 교육을 보급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절대 통치는 곧 끝이 나게 되었다.

파괴 공작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공격을 잘 견뎌 왔지만 지금은 다른 권위를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와 비슷하게 만들려는 조직적인 운동에 의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력을 규합하여 『킹제임스 성경』이 약하고 신뢰성이 없으며 부정확하고 구식이며 대개는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그래서 일단 『킹제임스 성경』이 그 권위를 잃으면 교육은 그 자체가 추구하는 권위가 무엇이든 간에 자기의 권위를 드높일 수 있다.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런 식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성경들이 자기들의 부패한 『제롬의 별게이트』와 같은 종류인가를 조심스레 살펴본다.

『킹제임스 성경』과 비슷하게 높임을 받는 역본들은 여러 방면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이것들은 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권위역 성경』의 ‘보편적 본문’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국지적 본문’으로 바꾸는 것이다.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본문 비평’

『킹제임스 성경』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학자들이 사용하는 권위 중 하나는 소위 ‘본문 비평’ 혹은 ‘원문 비평’(Textual criticism)이라는 도구이다. 본문 비평은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세상에 알려져 있으며 학자들이 본문 비평을 과학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소위 교육받은 지성인들은 쉽게 본문 비평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실 ‘본문 비평’이란 성경을 마치 세상 작가들이 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은 책’처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본문 비평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평가해 보려는 자연주의자들

의 방법을 선호하며 또 자신의 말씀을 능히 보존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의 능력을 무시함을 알 수 있다. 사실 본문 비평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차필 원본’에 영감을 넣은 것은 인정하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가 — 대개는 학자의 지식이 — 그 말씀을 보존하는 일을 한다고 믿는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성경이 영적인 책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태시키셨고 따라서 그분께서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살펴보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본문 비평 학자들은 하나님의 보존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본문 비평을 사용할 수는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이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본문 비평이란 오래전에 ‘국지적 본문’을 만들기 위해 ‘보편적 본문’을 변개시킨 이집트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대하는 것이다. 그 당시 많은 교육을 받은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쳐서 성경에 복종시킨 것이 아니고 성경을 쳐서 자신들 밑에 두어 복종시키려 했다. 이 같은 견해로 인해 그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거해 버렸고 대신에 자기 눈에 논리적으로 보이는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스스로 성경 안에 집어넣는 일을 했다. 다시 말해 그들 자신이 바로 성령님이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본문 비평학자들도 이런 점에서 그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본문 비평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에 영감을 주셨으나 그 후에는 단지 어떤 사상만을 보존하셨다고 믿는다.

한편 하나님께서 본문 비평을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생겼기 때문이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시몬(Richard Simon)이라는 프랑스 사제는 성경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들을 종합적이며 과학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했다. 시몬은 현대 성경 비평학의 선두주자였다. 이것에 이르기 위하여 시몬이 사용한 내적 증거는 그가 성경 비평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함을 보여 준다.[72]

이 백과사전은 또한 카톨릭 학자였던 애스트릭(Jean Astruc)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753년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 교회 의사였던 애스트릭은 작은 책자를 펴냈는데 여기서 그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창세기에 두 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상호 교차적으로 쓰임을 보고 모세가 엘로힘이라고 쓴 책과 여호와라고 쓴 책 두 개를 모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독자적으로 이 같은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독일 학자가 이 같은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같은 생각이 세상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독일 사람은 바로 에이콘(Gottfried Eichhom)이었으며 그는 애스트릭의 상상을 크게 발전시켰다.[73]

이 백과사전은 또 다른 로마 카톨릭 불신자에 대해 언급한다.

대담함에 있어서 시몬이나 에이콘을 능가하며 구약 성경의 처음 다섯 책의 기원에 대한 이상한 이론을 부상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스코틀랜드 출신의 카톨릭 사제 게데스(Alexander Geddes)였다. 이 이론은 바로 저 유명한 ‘조각 이론’으로 모세가 모세 오경의 일부분을 기록했으며 전체 모세 오경은 이런 조각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솔로몬의 통치 때에야 비로소 합본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게데스의 이론은 베이더에 의해 1805년 독일 안으로 들어왔다.[74]

윌켄슨 박사는 왜곡된 이집트 사본들을 선호하는 자연주의적이며 구원받지 못한 로마 카톨릭 학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다양한 본문들을 수집한 초기 비평자 중 몇몇은 밀

(Mill)과 벵겔(Bengel)이다. 우리는 1849년에 필라델피아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교였던 캔릭 박사를 권위자로 모시고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베자 사본’, ‘에프렘 사본’ 등과 같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사본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카톨릭 성경인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가 매우 우수한 성경이라고 공포했다.[75]

가만히 멈추어 서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라! 영적이 아니라 자연주의적인 그들의 관점을 눈여겨 보라. 구원받지 못한 채 성경적이기보다는 로마 카톨릭 지향적인 그들의 태도를 살펴보라. 이들은 성경의 신뢰도를 공격하는 이론들을 만들고 전개했으며 결국은 왜곡된 이집트 사본들을 선호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사본은 다 이집트 사본으로서 ‘소수 본문’ 사본인데 이것들을 우수한 사본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이들이 취한 방법에 대해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완전하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과연 이 같은 불신자들을 사용하시겠는가?

어떤 이들은 선하고 경건한 크리스천이 본문 비평을 한다면 그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미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고안한 것이다. 선하고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이런 미사를 행한다면 과연 괜찮은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엘리사는 독을 취해서 그것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었다(왕하 4:38-41).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내던지고 로마 카톨릭 주의라는 독약에 취하게 하려고 만든 그런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취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는 없다. 본문 비평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학문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대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스어 놀이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위해 고안된 또 다른 방법은 다름이 아니고 성경에서 사용된 말이나 번역의 의미를 번개시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은 학생들에게 먼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단어가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스나 히브리어를 연구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학생들은 히브리어 혹은 그리스어 어휘집이나 사전을 살펴보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그 단어를 부적절하게 번역했음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정반대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다. 실제로는 그 어휘집이나 사전이 그 단어를 부적절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엾게도 이 순진한 학생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 가엾은 학생이 원어 어휘집의 첫 페이지를 들치기도 전에 이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가 넘기게 될 페이지들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해 주겠다. 만일 어떤 학생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의심해 보도록 교육을 받는다면 그는 ‘참 뜻’을 찾기 위해 분명히 어휘집이나 사전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의 위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영감을 받지 않은 어휘집이나 사전이 자신의 최종 권위가 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여 있는 어휘집이나 사전을 그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실로 아주 미묘하고 위험한 일이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 일은 완전히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의 진술은 한때 많은 선교사들로 붐비던 여러 나라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함락된 이

유를 잘 보여 주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위 학생의 경우가 어떤지 금방 깨달을 수 있다.

선교사들은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단지 책을 주었을 뿐이다.(즉,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마르크스에 관한 책들이 올바르게 번역되었는가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순전히 그의 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던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근본주의자였던 라이스(John R. Rice)는 『개정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SV*)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최종 권위가 뒤바뀜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를 잘 보여 준다. RSV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KJV)라는 구절을 ‘보라, 젊은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RSV)라고 변개시켰기 때문이었다. RSV 번역 위원회의 의장이던 와이글 박사(Dr. Luther Weigle)는 『히브리어 — 영어 어휘집』에는 KJV에서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alma)가 단지 ‘젊은 여인’을 의미하지 결코 ‘처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히브리어에서 ‘처녀’를 나타내는 단어는 ‘베툴라’(bethulah)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자신이 사용하는 그 어휘집이 불신자 비평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독자에게 말해 주지 않는다.

독일인 동방주의자요, 성경 비평가였던 겐세니우스(Gensenius)에 대해서는 『브리태니커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굉장히 유명한 선생이던 겐세니우스는 셈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철학을 신학적이며 종교적인 선입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철저히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시킨 인물로 평가된다.

그가 저술한 책 즉 『구약의 히브리어 및 영어 어휘집』은 여러 차례나 재판되었다. 자유방임주의자로 유명했던 겐세니우스는 성경의 신학적 용어를 자유주의자들의 용어로 변개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다.

그의 어휘집을 영어로 번역한 브라운(Brown), 드라이버(Driver), 브리그스(Briggs) 등 세 명은 모두 극도의 자유주의자로서 이 중 두 명은 현저한 불신 행위 때문에 장로교단에서 심판을 받았다.[76]

윌켄슨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두 명의 악명 높은 로마 카톨릭 학자들 역시 이 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한다.

시몬과 에이콘은 히브리어 사전의 공동 저자였다.[77]

이 같은 불신자들의 책들이 기독교 내에서 수용되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것들이 소위 유명하다는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선하고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불신자들이 만든 사전이나 어휘집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

그리스바크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교묘히 옹기는 일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이집트의 ‘국지적 본문’에서 나온 신뢰할 수 없는 사본들을 높이 치켜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지금은 이 같은 운동을 위한 기초를 닦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바크(J. J. Griesbach, 1745--1812)이다. 그리스바크는 고대 사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중 하나는 콘스탄티노폴리탄 계열로서 이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보편적 본문’이며 나머지 둘은 ‘서방 계열’과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다.

이미 예상할 수 있듯이 그리스바크는 성경 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진술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어떤 책보다 첨가, 삽입, 얼버무림 등이 많다.[78]

그는 또한 크리스천의 믿음에 관한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구절들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었다. 가능하면 그는 그 같은 구절에 대해 의심을 일으킬 방법을 고안해 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의심해야 할 구절들은 경건함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들이다. 어떤 구절에 대해 여러 가지 본문이 있다면 그중에서 정통 교리를 가장 많이 옹호하는 본문이 가장 의심해야 할 본문이다.[79]

그리스바크 박사는 불신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근본주의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하기 위해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성경을 변개시켜야만 한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스바크 박사는 이단들이 참된 교리를 담고 있는 구절들을 빼거나 변개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거듭난 신자들이 무슨 신성모독 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것처럼 의심하며 반면에 불신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크리스천 학자가 취할 태도란 말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인가? 문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데 있다.

그리스바크를 사로잡아 마치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이 무슨 범죄 행위나 한 것 같이 의심하게 만든 마귀의 사상은 성경 변개로 유명한 또 다른 두 명의 학자를 사로잡았다. 힐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신약 성경 본문 비평가들 중에서 그리스바크를 가장 존경했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그리스바크처럼 정통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신약 성경 사본들을 수정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바크처럼 신자들을 통해 신약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무시해 버렸다. 반면에 이 두 사람은 이단들이 신약 성경

본문에 고의로 수정을 가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데는 매우 열심이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신약 성경 위조 본문 가운데 그 어느 것에서도 교리를 바꾸기 위해 본문을 고의로 뜯어고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렇게 편파적인 이론은 신약 성경 사본의 대다수에서 발견되는 본문을 무시하고 카톨릭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본문을 귀중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80]

이런 속임수를 통해 점차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지하는 이집트 ‘국지적 본문’은 그 안에 교리의 차이를 가져오는 많은 수정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의 ‘보편적 본문’의 권위와 같거나 그 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되었다. 결국 그리스바크, 웨스트코트, 그리고 호르트는 ‘이단들은 결코 성경을 변개시켜 위조하지 않고 참 크리스천들만이 그런 일을 한다.’는 매우 이상한 이론을 확립했다.

이 같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말이나 사상을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크리스천들은 점점 더 의심을 갖고 자기들의 성경을 되돌아보게 되며 그로 인해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연약하게 되어 버린다. 과연 이보다 사탄이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마치 미국의 루터 교회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 안으로 흡수 통합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믿지 못하는 이런 학자들을 비난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순히 자기들이 상상해 보지도 못한 엄청난고도 심각한 계획을 수행하는 앞잡이에 지나지 않는가? 자, 한 번 살펴보자.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인물

로마 카톨릭 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결국 영국의 퇴락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은 와이스먼(Wiseman, 1802-1865) 추기경이었

다. 와이스먼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다시 영국에 심는 일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고 『바티칸 사본』의 편집자인 메이 추기경 밑에서 공부하기 위해 로마로 건너갔다.

와이스먼은 영국을 다시 한 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 넣으려는 야망을 품었다.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였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곳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꼭두각시들

로마에 있는 동안 그는 ‘신프로테스탄트들’(Neo Protestants)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이들을 교황의 권위 아래 들어오도록 했다. 그를 방문한 이들 중 한 사람은 글래드스톤(William Gladstone, 1809-1898)이었는데 후에 그는 영국의 총리가 되었고 보수주의자에서 자유주의자로 탈바꿈을 하였다. 또 다른 방문자는 영국 국교회의 대주교였던 트렌치였는데 그는 『킹제임스 성경』을 수정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갔고 심지어 1871년에는 ‘성경 수정 위원회’에 가담하기도 했다.

한편 또 다른 방문자가 있었는데 그는 뉴먼(John Henry Newman)이었다. 뉴먼은 명석한 국교회 교도로서 옥스퍼드 대학과 국교회 목사회의 지도자였다. 뉴먼은 프로드(Herrell Froude)와 친밀하게 지냈는데 월켄슨은 프로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프로드는 프로테스탄트들을 싫어하며 복음주의자들을 비방하고 자기 아들들도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했던 국교회 지도자의 아들이었다.[81]

뉴먼과 프로드는 케블(John Keble)과 친숙해졌다. 프로드처럼 케블은 고교회파(High Church) 출신으로 역시 프로테스탄트나 복음

주의자들을 반대했다. 1833년에 뉴먼과 프로드는 로마에 있는 와이스먼을 방문했다. 로마 성당들의 아름다움과 고차원의 미사의 장엄함에 압도당한 이 두 명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은 와이스먼에게 ‘영국 국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로 되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와이스먼의 답변은 아주 차갑고 명확했다. ‘영국 국교회는 ‘트렌트 공회’ 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말에 뉴먼은 로마를 떠나면서 ‘나는 영국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바 그 일은 바로 뉴먼, 프로드, 케블, 그리고 퓨지(Edward Pusey)가 연합하여 영국을 로마로 되돌아가게 하고 결국 그들이 가장 미워하던 『킹제임스 성경』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명석했던 뉴먼은 강력하며 지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 퓨지는 도덕주의자였고 케블은 시의 미묘한 말을 통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젊은 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성경의 원리들에 대해 강한 기반을 갖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이 같은 배도자들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뉴먼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술에 걸려들어 1845년 영국 국교회를 떠나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 합류했고 마리아 숭배와 ‘심중유보’(Mental reservation)에 관한 책을 지은 워드와 같이 배도자의 길을 걸었다. ‘심중유보’란 당신이 로마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용서 교리이다.

월켄슨은 뉴먼의 배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845년 저 유명한 옥스퍼드 운동을 주동하던 워드가 영국 국교회의 신조에 따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마리아 숭배와 심중유보를 가르치는 책을 내었을 때 대중들의 반대 감정이 치솟았다. 옥스퍼드 대학이 그로부터 교수의 권리들을 유보시키자 그는 9월에 로마 교회로 갔다. 따라서 뉴먼도 곧 그를 따라갈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10월 8일 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고난회 수도사였던 도미니크 사제가 뉴먼의 집을 방문했다. 집에 들어가서 그는 젖은 옷을

말리며 불 앞에서 있었다. 그때 그는 뒤돌아서서 뉴먼이 자기 발밑에 엎드려 자기로부터 축복을 간구하며 자신의 고백을 들어 줄 것을 애원하는 것을 바라 보았다. 그래서 뉴먼은 로마로 넘어갔고 1년도 채 못되어 150명의 국교파 목사들과 유명한 성도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합류했다.[83]

도대체 와이스먼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그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뉴먼과 프로드의 방문이 있던 지 3년 후인 1836년 그는 자신의 신문인 『더블린 리뷰』(*Dublin Review*)를 통해 ‘옥스퍼드 운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아일랜드로 건너갔다. 와이스먼은 뛰어난 본문 비평학자였으며 예수회로부터 공급되는 정보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성경에 대한 확신을 없애기 위해 미리 계획한 일을 다 마칠 수 있었다.

영국은 결국 ‘부흥’의 단계를 지나서 ‘교육’의 단계로 들어섰고 바로 이 ‘교육’이 배도를 불러오기 위한 특징적인 ‘문화’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때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영국의 배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오늘날 미국과 전 세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신학 대학 안에는 참으로 선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온전히 그분을 섬기려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본문 비평학’을 퍼뜨리고 있다. 그 결과 로마 카톨릭 주의를 대적해야 할 크리스천 군사들 즉 목사들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완전한 킹제임스 성경’을 의심하든지 혹은 의심받기에 딱 알맞은 로마 카톨릭 ‘국지적 본문’에서 나온 신빙성 없는 역본을 사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의 신학교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본문 비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참 성경으로

되돌아가든지 혹은 『킹제임스 성경』과 그 지지자들을 잠재우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을 집요하게 공격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깨달아야만 한다. 『영국개역성경』은 결코 『킹제임스 성경』의 몰락을 가져오지 않았고 오히려 영국의 쇠퇴를 가져왔다. 1881년 이전과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려던 역본들은 현재 다 조용히 무덤에 누워 있다. 아직 죽지 않은 것들도 곧 ‘향상되었음’, ‘참으로 신뢰할 만함’, ‘정말로 정확함’, ‘새로운 전통의 시작’ 등의 구호를 내세우다가 무덤 속에 잠든 다른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곧 무덤에 들어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런 역본들은 도대체 한 번의 부흥도 일으킨 적도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회개하도록 유도해 본 적도 없으며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던지는 데만 성공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같이 손상된 것들을 극복하고 여기서부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가?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성경 번역의 역사상 웨스트코트(Brooke Foss Westcott, 1825-1903)와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 1828-1892)만큼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인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그리스어 본문 연구에 지대한 발전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선전해 왔고 반면에 이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단, 불신앙, 배교 등의 여러 죄목으로 이들을 고소했으며 참으로 이들이야말로 성경의 참 본문에 극심한 손상을 입힌 배도자라고 주장해 왔다.

나는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혹은 사실을 은폐하길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과 또 성경 본문에 대한 그들의 이론들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나는 오랫동안 그들의 삶에 대한 책들을 찾아왔고 마침내 웨스트코트의 아들인 아더 웨스트코트(Arthur Westcott)가 지은 『웨스트코트의 삶과 서신들』(*The Life and Letters of Brooke Foss Westcott*)과 역시 호르트의 아들이 지은 『호르트의 삶과 서신들』(*The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을 구할 수 있었다.

참으로 몇 달 동안 고생한 끝에 나는 이 연구를 위해 그 책들의 복사본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부분에서 사용한 자료 대부분은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책들로부터 직접 인용한 것들이다. 어떤 학자가 성경과 그 안의 교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연구해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의 발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때때로 학

식이라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또 위험한 권위를 만들어 내기에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야만 한다.

기념비적인 전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본문 비평학에 있어서 가장 큰 공훈을 세운 인물이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보편적 본문’을 이집트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국지적 본문’으로 대체시켜 버렸다. 또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어 공인본문』이 지닌 우월성에 대해 매우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들은 속임수에 넘어가 로마 카톨릭 산물인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본이라고 믿었다. 비록 호르트는 ‘안디옥 본문’ 즉 ‘보편적 본문’의 연대가 그 사본들의 연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카톨릭 사본들을 신뢰했던 것이다.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들 중 후대 사본들의 근본 본문이 4세기 후반에 기록된 ‘안디옥 본문’이나 ‘그리스-시리아 본문’ 즉 대다수 본문과 동일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85]

그릇된 선입견

‘보편적 본문’이 로마 카톨릭 사본들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성경 역사에서 이 본문이 차지한 높은 권위를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애를 많이 썼다. 종종 호르트는 자기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나는 그 야비한 『공인본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리스어 성경을 거의 읽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본문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전적으로 후대 사본들에 기초를 둔 그 비열한 『공인본문』을 생각하면 그런 초기의 것들(카톨릭 사본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다.[86]

그 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국지적 본문’인 소수의 영철체(대

문자체) 사본들을 기초로 하여 『수정 그리스어 본문』을 만들어 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왜곡된 천주교 사본들은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자기들의 본문을 만들 때 이미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버전은 다음과 같은 호르트 박사의 고백을 적어 놓았는데 닭의 울음이 기록된 마가복음의 네 구절(14:30, 68, 72a, b)에 대해 언급하면서 호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러 차례의 변화로 인한 역류(逆流) 때문에 증거들이 너무나 큰 혼동 양상을 보여서 일곱 개의 주요 사본 중 어느 두 개도 이 네 구절 안에 동일한 본문을 갖고 있지 않다.[87]

놀라운 계시

이 사람들이 성경의 주요 교리들을 희석하고 공격한 역사를 지닌 사본 계열에 큰 영향을 준 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도 성경을 대하면서 그것을 이미 사라진 역사가나 철학자의 글과 전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점이다.

호르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분량과 다양성 그리고 연대 면에서 성경만큼의 문서적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고문서(古文書)에 이성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나 혹은 사상을 성경에만 특별히 도입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88]

다시 말해 그는 성경과 고문서의 평가 방법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 번 베껴 쓴 모든 산문에서 거의 발견되는 것처럼 신약 성경 본문 안에도 생각에 의한 본문의 부패보다 삽입에 의한 부패가 훨씬 더 많다.[89]

우리는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과연 하나님은 자신의 책이 셰익스피어나 플라톤이나 혹은 디킨즈의 글과 비교하여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는가? 성경이 어느 사람들의 글과 다르다고 믿는 것은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인가?

뻔뻔스러운 불신앙

사실 그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들은 둘 다 성경의 진리를 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으며 바로 그것 때문에 아직 까지도 근본주의 크리스천들에 의해 성경의 권위자로 치켜세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크리스천의 기본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근본 교리를 받아들이는 데 실패했다.

호르트는 에덴동산의 실재를 부인한다.

나는 '에덴동산'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아담의 타락도 영국의 시인 코울릿지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90]

심지어 그는 『수필과 평론』지의 배도한 작가들의 편을 들었다. 호르트는 1858년 10월 21일 윌리엄스(Rowland Willams) 목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심지어 저는 대중 신학의 으뜸가는 교리들을 비난한다는 점에서 그들(『수필과 평론』의 작가들)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 복음주의자들은 비사실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왜곡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같습니다. 두렵건대 우리 사이에는 권위 문제 특히 성경의 권위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91]

우리는 또한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않은 호르트의

불신앙을 직시해야 한다.

만일 당신의 협조를 얻기 위해 신약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믿어야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그는 말한다.

내가 마지막 말을 적고 있을 때 웨스트코트로부터 전언이 왔습니다. 지난번 토론에서 내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까닭 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매우 강하게 깨닫긴 했지만 나는 결코 그것이 절대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지지하는 한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소.[92]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들

호르트는 비록 그 시대의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감명을 받지 않았지만 비성경적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Charles Darwin)에 대해서는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동료인 웨스트코트에게 매우 흥분된 어조로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다윈에 대해 읽어 봤소? 그 이론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소. 어찌 됐든 그런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오.

그리고 엘러톤(John Ellerton)에게는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그러나 나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끈 책은 다윈의 것이오. 비록 그것에 대해 남들이 무어라 할지는 몰라도 그 책은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책이오. 만일 그렇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오.[93]

호르트 박사는 또한 코울릿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가르침을 신봉했다. 그의 아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아버지는 대학 시절에 코울릿지의 주술에 걸렸습니다.[94]

코울릿지가 마약 중독으로 대학을 중퇴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던가!

루머티즘의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 아편 주사를 맞기 시작했으며 그 중독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아편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타와 이탈리아에서 노력했으나 그 노력은 모두 허사였고 코울릿지는 1860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95]

코울릿지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반성을 위한 도움들』이다.

이 책을 쓴 주요 목적은 공식 기독교와 코울릿지의 다양한 초월주의 철학을 일치시키는 데 있다. 그는 또한 칸트와 및 다른 독일 철학자들을 영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96]

이 사람 즉 불신자 코울릿지가 바로 캠브리지로부터 온 두 명의 학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저버리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호르트는 또한 그리스 철학을 사랑했으며 맥밀리언에게 보내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기독교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 철학을 무가치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기독교의 계시가 겉으로 보기에 귀중한 원리로 가득한 것 같지만 사실 나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실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한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97]

호르트의 마귀관

어떤 때 보면 호르트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숲 속에서 길을 잃은 것’ 처럼 보인다. 그 예로서 근본적인 성경 진리에 대한 그의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인격적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 앞에 있던 토론은 자연히 ‘영원한 형벌’ 즉 마귀라는 존재가 받을 ‘영원한 형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다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가져다준다. 3년 전쯤에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내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해 준 사람은 바로 코울릿지였으며 이 의심은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만일 마귀가 있다면 그는 단순히 부패하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전적으로 사악해야만 하며 또한 그의 이름과 그의 에너지와 행동이 다 사악해야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을 지지한다면 말씀의 거룩한 특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98]

호르트의 지옥관

호르트 목사는 또한 글자 그대로의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았다.

모리스의 편지는 우리가 미래의 처벌 기간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영원한’이란 단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굉장히 긴 기간이라기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나는 생각하며 또한 항상 불가능하게 생각되어 내 마음과 상치되는 것이 소멸되는 것과 비슷한 어떤 것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99]

확실히 나는 지옥이 개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경건치 못하게 살 때도 그 지옥 교리를 알고 있었지만 먼 미래에 대한 생각 즉 지옥에 관한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을 두렵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100]

호르트의 연옥관

비록 고등 교육을 받은 호르트의 마음속에 글자 그대로의 마귀와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연옥’에 대한 거짓 교리는 그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그는 1854년 엘러톤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나는 모리스가 말로써 연옥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 당신과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세 가지 주요한 논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영원이 기간과는 상관없다; (2) 회개의 힘은 현생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3)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영원은 드러나지 않는다. 현대 사람들이 이 중 두 번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즉 연옥 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신학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101]

또한 한 젊은 학생을 지도하는 동안 그는 아래와 같이 편지했다.

나는 불로 깨끗하게 되는 ‘연옥에서의 정화’라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벌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의 성격도 역시 변해야만 한다는 이 교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저주받은 연옥 교리가 크고 중요한 진리를 믿는 믿음 즉 카톨릭 믿음을 유지시켜 주었으므로 전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조항에 모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102]

위에서 우리는 호르트 박사의 의견들이 확실히 정통 교리에 의해 제지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런데 그의 고집스럽고 제멋대로 행하려는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호르트 박사는 자신의 글이 보여 주듯이 몇몇 다른 기본적 진리에 있어서도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호르트의 속죄관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죽음을 거부했다.

나는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103]

사실 호르트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가르침을 이단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인 것이다.[104]

사실 호르트는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죄에 대한 예수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값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속죄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다고 믿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게 지불한 속죄 값이라는 그 원시적 교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혐오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것 말고는 속죄 값에 대한 교리를 조리 있게 변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다른 형태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죽음이 아버지에게 속죄 값을 드린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더 낫다.[105]

호르트의 세례관

호르트 박사는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 즉 ‘유아세례에 의해 거듭난다.’는 가르침이 복음주의자들의 가르침보다 옳다고 믿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유아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나를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다.[106]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보장해 준다.[107]

호르트는 자기의 맏아들 아더에게 유아세례로 인해 그가 구원받았음을 확신시켰는데 아마도 이로써 그는 세례에 대한 이단적 관점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혼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했을 지도 모른다.

너는 단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크리스천 왕국의 크리스천 부모에게 태어났다. 하나님은 네가 아직 유아였을 때 세례를 통해서 너를 자신의 교회 즉 사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위대한 성회의 ‘무의식적인 한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 너는 크리스천 영향권 내에서 자라났다. 즉 눈을 들어 네 자신의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도록 교육을 받았고 또한 이상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그에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한 부분 또는 일원으로서의 놀라운 감격을 느끼도록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 너의 타고난 권리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네 몫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108]

호르트의 비뚤어진 신앙

호르트는 성경의 기본 진리들에 관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오해를 했고 또한 변덕스럽고 때로는 엉터리 같은 개인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예는 1865년 4월 28일 웨스트코트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난 그의 증오 즉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증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는 감히 미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깊고 누그러뜨리기 힘든 중요심을 가지고 있습니다.[109]

사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을 때에 호르트는 남부가 승리하기를 바랐다. 이렇게 그가 바랐던 이유는 남부의 승리로 인해 결국 남부와 북부 모두 파괴되고 그 결과 미국이 전 세계의 지배권을 가진 영국에 대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이것은 1862년 9월 엘러톤 목사에게 쓴 편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흑인이나 미국보다 영국이나 유럽을 더 사랑합니다. 30여 년 전 니에부르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뭐라 하든 이제 미국은 유럽의 전 문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조만간 둘 중 하나는 멸망해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이 말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것이 매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제도와는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유럽의 제도를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 미국주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성장을 통해 인간이 배워 온 너무나 소중한 모든 것의 뿌리를 파괴시키며 또한 우리를 고릴라의 상태로 격하시키려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 제국은 무법의 힘을 주요 원리로 하는 미국주의의 구현이라 생각됩니다. 바빌론이나 로마가 합당한 저주를 받았을진대 내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미국 연합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길 원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큰 잘못일 수는 없겠지요.

저는 한순간도 노예제도가 어떤 것이며 또한 옴스테드가 보여 준 대로 노예 제도가 남부 백인 사회에 가져다줄 놀랄 만한 결과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흑인들보다는 백인들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그 제도를 싫어합니다. 흑인을 교육시키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로 가증한 것입니다. 백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더 고귀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예사회뿐 아니고 모든 곳에서 흑인들은 끊임없이 열등한 인종, 천박하고 감각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인종, 그리고 마치 뉴펀들랜드의 개들 정도의 지고한 덕을 갖고 있는 인종들로 자신들을 드러내어 보여 주고 있습니다.[110]

호르트는 또한 정치인 혹은 전도인으로 유명한 미국인들에 대해 전혀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그가 어떤 특별한 도덕적 능력이나 정치가다운 능력을 보여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111]

위대한 전도자 무디(D. L. Moody)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은 인상을 받았다.

내가 어제 오후에 그레이와 함께 영국 런던 서부의 변화가인 헤이마켓으로 ‘무디와 생키’의 설교를 들으러 간 것을 생각해 보라. 그때는 매우 즐거웠지만 이제 다시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다. 음악의 수준이 좀 낮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내가 예상한 대로였고 생키는 친근한 인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무디는 거의 제한된 미국인의 유머와 더불어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좋은 감각을 지니고 있었으나 사실 그의 말투나 모습은 꽤 상투적이고 진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을 보려고 모여든 회중들이었다.[112]

호르트가 미국을 미워한 것은 애국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실상 그는 공산주의와의 접촉을 통해 많은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대략 1850년경 그와 엘러톤 목사와의 계속된 편지 왕래에서 잘 드러난다.

내가 여기서 앞으로 3, 4년간 공산주의에 대해 연구하기로 한 것은 꽤 잘한 일입니다.[113]

나 자신이 공산주의를 연구한 것은 바로 정치 분야를 통해서였습니다.[114]

책임감 없이 지내는 것 즉 ‘자기 형제를 지키는 자’가 아닌 상태로 지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저주 중 가장 강력한 저주일 것입니다.[115]

확실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예정을 받아 자기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분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복과 탭런트 즉 권력, 부, 영향력, 지위, 출신 등을 공산주의자들처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116]

또한 호르트는 그의 좋은 친구였던 웨스트코트와 또 소위 ‘유령 길드’(Ghostly Guild)라는 단체에 속한 다른 이들과 같이 초자연적인 것에 깊이 몰두했다.

웨스트코트, 고행, 스코트, 벤슨, 브래드쇼우, 루아드 등과 나는 유령과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결과들이 정말로 존재하며 또한 그것들이 속임수나 단순한 주관적 망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모임을 시작했다. 우리는 실제로 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얻게 되어 행복해 할 것이다. 웨스트코트는 질문들의 목록을 짜고 있다. 코우프는 우리를 ‘암탐과 수소 클럽’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이 그룹의 이름을 잠정적으로 ‘유령 길드’라 할 것이다.[117]

그가 종종 휴가를 즐겼던 알프스의 한 호텔에 대해 그가 진술한 바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박식한 박사가 단순히 철학 이상의 어떤 것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폰트레시나 호텔 크론: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매우 깨끗하며 안락한 곳 ... 맥주 맛이 기가막힌 곳 ... [118]

어떤 사람이 이 정도로 비성경적이며 무신론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이 못 된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설교자나 전문가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그런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호르트 박사가 뛰어난 그리스어 학자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지식인이라 해도 스스로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그는 절대로 성경의 권위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지식인이었지만 성경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가 성경 문제에 대해 말할 때 아무도 그의 말을 권위 있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대한 심성이나 능력을 소유한 것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비록 호르트 박사가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의 뛰어난 학벌이나 학식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관한 그의 이론을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

오늘날 근본주의 교회의 어떤 목사가 복음 전도자들의 집회에 참가했는데 이 복음 전도자들이 호르트의 비기독교적 신앙에 버금가는 불신앙을 가졌음을 알게 된다면 당장에 그 모임을 취소하리라

믿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목사가 호르트의 신앙관이 매우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그리스어 학자’로 옹호하며 자기가 믿는 『킹제임스 성경』을 그에게 건네주어 악의에 찬 그로 하여금 그것을 절개하고 내던지도록 그냥 내버려둔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호르트는 한때 성경이 차지했던 권위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목사들의 어린 아이 같은 신앙 때문이며 또한 신학교 시절의 인본주의 교육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신학교들 또한 알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들은 영국을 다시 한 번 카톨릭화하려는 예수회의 운동 아래 주목받은 두 사람 즉 호르트와 웨스트코트의 권위를 단순하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켄슨은 실제로 호르트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호르트 박사는 본문 비평학의 아버지인 천주교도 시몬의 글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과 같은 계열에 속한 사본들과 및 성경들의 인용을 떨어뜨리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말한다.[119]

웨스트코트의 문제점

참으로 ‘새 역본’의 지지자들에게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웨스트코트 박사의 신용장이 호르트의 신용장보다 더욱 더 반성경적이기 때문이다. 웨스트코트는 창세기 1-3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믿지 못했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까지 언급하신 모세나 다윗도 시적 인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웨스트코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창세기의 첫 세 장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두 눈을 뜨고 그것을 읽는 사

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그 세 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 주고 있음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인간적으로 말해서 주님께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시적 표현)에 대해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당신이 느낀다면 그분께서 모세와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역사적 사실)처럼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사실 나는 시(詩)가 역사보다 수천 배나 더 진실하다고 생각한다.[120]

또한 그는 다윗이 역사적 인물이 아닌 영적 인물이라고 말했다.[121] 신학교의 자유주의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창세기의 처음 세 장이 모두 비유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믿고 있다. 과연 오늘날의 근본주의자들은 이러한 현대주의자들의 신앙이 이 성경 비평가 웨스트코트의 가슴속에서 짝튼 줄 깨닫고 있는가?

웨스트코트는 또한 기적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모두 의심했다.

나는 기적 이야기 같은 것은 읽어 본 적이 없으나 직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했다.[122]

만일 오늘 이 시간에 위대한 근본주의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틀림없이 배교자로 낙인 찍혔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웨스트코트의 경우는 다르단 말인가?

웨스트코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역사적 믿음에 관해 기록한 나의 작은 책 안에서 '주의 오심'에 대해 내가 믿는 바를 간략히 말한 적이 있음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야말로 주의 말씀이 첫 번째로 성취된 재림이었다고 강하게 믿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재림이 수차례 있었으므로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123]

웨스트코트의 천국관

웨스트코트 감독은 기본적인 천국의 교리를 부인했다. 실제로 그는 천국을 글자 그대로의 장소로 믿지 않았고 어떤 상태로 믿었다. 웨스트코트 감독이 말한 다음의 인용 구절을 주목하기 바란다.

전례 법규의 언어가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성의 임재를 실제의 장소와 연결짓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해 준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이다.[124]

보이지 않는 것은 삶의 가장 큰 영역이다. 천국은 우리 안에 놓여 있다. 그리고 생각, 회상, 그리고 동경을 위하여 조용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상태 즉 천국을 계속해서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 천국을 숨 쉴 수 있다.[125]

우리는 인내, 확고한 결심, 믿음, 그리고 노력을 통해 우리 주변의 천국 즉 우리의 지상 생활의 영광을 추구하는 바이다.[126]

웨스트코트의 뉴머니즘

'뉴머니즘'이란 위에서 이미 언급한바 있는 영국의 로마 카톨릭 신학자 뉴먼의 사상을 말한다. 웨스트코트 박사는 뉴먼의 신봉자였는데 뉴먼은 변절하면서 자기와 함께 영국 국교회에 속한 150개 교회를 카톨릭화한 인물이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 실제적인 개종을 하지 않은 그의 제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 영적인 개종을 했으면서도 결코 이 사실을 웨스트코트처럼 시인하지 않았다.

1852년 웨스트코트는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오늘 또 『타임스에 대한 소책자들』과 뉴먼 박사에게 대해 이야기를 하겠소.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란 말은 하지 마시오. 최소한 오늘 그는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있소. 당신이 이곳에 왔을 때 그가 나에게 보내 준 진지한 이야기를 당신이 읽도록 할 걸 그랬소.[127]

이 편지는 뉴먼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 변절한 뒤에 기록된 것이다! 월켄슨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뉴먼의 가르침은 글과 강연을 통해 성경에 대한 많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바꾸어 놓았다. 스탠리는 뉴먼과 그 운동의 지도자들의 영향하에 있던 독일 신학의 비유 해석이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만 해석하려 했던 오리겐의 방법이었음을 알려 주었다. 뉴먼은 성경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고 주장했다.

또한 웨스트코트는 『수필과 평론』의 비평에 대해 분개했다. 맨체스터 감독이 이 잡지의 이단적 배교 작가들을 비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웨스트코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나 『수필과 평론』에 대한 그의 이야기로 인해 나는 말로 할 수 없는 분노를 낼 수밖에 없었다.[128]

이런 사상은 『킹제임스 성경』의 그리스어 본문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한 인물이 지닌 신념들이다. 지금 이 시간 어떤 근본주의 설교자나 교육자 옆에 웨스트코트를 세워 놓고 평가해 보기 바란다. 그는 당장에 현대주의자, 자유주의자 혹은 이교도로 정죄 받을 것이다. 그리스어에 대한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교도 신념으로 가득한 이 사람은 미국 내의 어떤 기독교 대학 캠퍼스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과장도 아니며 악담은 더구나 아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대학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학문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어진 논제를 잘 가르친다고 해서 이처럼 이교도적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교수로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근본주의 설교자나 교육자들의 신념과는 완전

히 반대되는 것을 믿은 사람을 근본주의 크리스천 학자들이 높이 떠받들고 옹호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물론 우리의 근본주의 형제들이 웨스트코트 박사나 호르트 박사가 정말 무엇을 믿고 가르쳤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웨스트코트의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웨스트코트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독실한 사회주의자이자 또한 후천년설의 신봉자였다. 사회주의와 후천년설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이다. 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들여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란 대개 후천년설을 지지하면서 평화와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후천년설 신봉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적인 것이라고 믿으며 이 '영적 재림' 이야말로 그들이 외치는 평화를 이루어 주며 세계를 더욱더 밀착시키는 대사건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이것은 웨스트코트가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이로써 '우리는 인내, 확고한 결심, 믿음, 그리고 노력을 통해 우리 주변의 천국 즉 우리의 지상 생활의 영광을 추구하는바이다.' 라고 믿은 웨스트코트의 발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웨스트코트의 가슴속에 불타오른 사회주의라는 빛의 조그만 불꽃에 불과하다. 만일 그것들이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증거의 전부라면 정말이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다!

웨스트코트 박사의 평화주의 추구 기질은 어린 시절부터 나타난다. 학교에 입학할 당시 그는 '수줍음을 잘 타고 겁 많고 사려 깊은

소년'으로 비쳐졌다. 그의 취미는 다음과 같았다.

그는 여가 시간에 주로 양치식물, 나비, 나방 등과 같은 수집품을 정리하거나 스케치를 하고 자연사나 시에 관한 책을 읽곤 했다.[129]

그는 일찍이 사회 개혁에 대해 큰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학교에서 '소수 몇몇 학생들이나 이야기하는 신학적 문제, 도덕적 문제, 그리고 정치 윤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130]

그의 아들 아더는 이런 말로 그를 표현하고 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는 차티스트 운동¹³⁾에 대해 예리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사실 이 운동은 대중이 고생하는 것을 아주 잘 묘사했는데 이것들로 인해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상상력은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 영향은 아버지의 삶 속에서 퇴색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일기는 아버지가 다양하게 움직이는 현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특별히 '위대한 선동자'였던 오코너(Fergus O'connor)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기꺼이 자신의 식사 시간을 포기했는지에 대해 알려 준다.

아버지는 그 후에도 이런 감정들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하셨는데 이것은 불의와 억압의 모든 형태에 대한 아버지의 강렬한 증오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심지어 아버지는 후에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며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전적으로 고기들을 동정했기 때문이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도 고기잡이 바구니를 들고 다녔고 할아버지는 그 바구니 안에 살아 있는 고기를 잡아넣곤 했는데 후에 아버지는 아직도 그 고기들의 몸부림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131]

위의 글은 웨스트코트의 기질을 잘 설명해 준다. 그는 스스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고 또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사회 개혁을 완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프랑스 혁명은 대단한 관심사였다. 나는 공화당원들과 의견을 같이한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최소한 대단한 열심과 신중함을 지닌 사람들로 특징지어진다.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라마르틴을 나는 좋아하며 또 존경한다.[132]

13) 1838년에서 1848년에 일어난 영국의 사회 개혁 캠페인

시가 웨스트코트에게 미친 영향

웨스트코트는 무척이나 시(詩)를 사랑했으며 시가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라마르틴(Alphouse de Lamartine)을 존경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라마르틴은 프랑스 국민을 혁명에 끌어들이기 위해 시(詩)를 쓴 프랑스의 시인이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라마르틴은 예수회의 일원이었고 나는 이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확신한다.

시인의 글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웨스트코트의 낭만적인 태도를 통해 ‘나는 시가 역사보다 수천 배나 더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그가 말한 이유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또한 그를 카톨릭화시키려는 시인 케블의 교묘한 작전에 그가 쉽게 넘어갔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웨스트코트는 시에 대한 애정 특히 케블의 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의 글 속에서 케블보다 더 빈번히 언급되는 시인은 없었다.

웨스트코트가 케블에 관해 적은 글은 다음과 같다.

이제 나는 케블의 시 몇 편을 읽을 작정인데 이 시들은 그 주 내내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으며 아마도 지금 나에게 대한 우울함으로 당신을 채우느니 그의 시들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오.[133]

케블의 시는 웨스트코트로 하여금 ‘영국 국교회가 변화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고무시키는 듯하다.

나는 그 날 케블의 시를 읽었소. 전에는 특별히 그 찬가를 주목하여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로 여기고 있소.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내가 종종 당신에게 설명했던 감정들에 적용되는 듯 하오. 또한 그것은 우리 주위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곧 우리나라와 국교회에 닥치게 될 결과를 그려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슬픔과 절망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요.[134]

웨스트코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케블의 시를 인용할 기회를 얻었다.

기도와 믿음으로 당신의 눈을 정화한 뒤 이러한 것들을 먼 안목에서 보게 될 때 당신은 살면서 죽게 되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케블의 시 중 이 찬가는 매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소. 당신이 지금 그것을 거듭 거듭 읽으면 확신하건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135]

웨스트코트의 로마 카톨릭 교회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 제도를 비난하는 강론에 반대하는 웨스트코트의 반응을 볼 때 케블이 웨스트코트에게 기독교의 대적인 로마 카톨릭 주의에 대해 무저항적 태도를 보이라고 가르친 것이 분명하다.

올햄에서의 모임에 관해서라면 나는 그들의 태도가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논쟁의 매개물로 삼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어버이다운 마음은 동요되지 않는다’ 등과 같은 케블의 시는 그 얼마나 절묘한가! 우리는 비통함과 나쁜 감정으로 인해 모든 연민의 정을 잃고 있는 것 같다. 로마 카톨릭 주의에 대한 우리의 무기는 기도이지 결코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의 노력이지 결코 세속적인 변명의 말이 아니다.[136]

‘어떤 사람이 읽는 책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다. 웨스트코트는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로마 카톨릭 교회를 선호하게 되었다. 웨스트코트는 자신의 글들이 명백히 로마 카톨릭화 되는 것을 보면서도 결코 케블을 포기하지 않았다.

케블은 최근에 '성직자들의 위치'에 대한 기도문뿐만 아니라 설교집도 몇 개 출판했는데 나는 그가 많은 사람을 화나게 할까 봐 걱정된다. 나도 어느 정도는 그를 동정한다.[137]

웨스트코트가 스스로 '불의와 억압'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미워했다는 점과 또 케블의 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했다는 점을 기억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로마 카톨릭 주의 옹호자였던 모리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가 성경적 입장에서 더욱더 멀어졌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놀랄 만큼 공평하고 공정하며 모든 논쟁의 쏠맛이 배제된 모리스의 설교를 들어 보라. 그는 내가 종종 쓰고 말해 왔던 것 즉 우리 교회의 위험은 로마 카톨릭 주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로마 교회의 현재 상황을 경멸당하고 거부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으로 표현한 뉴먼의 말을 그가 인용한 것은 참으로 두드러지지 않는가?[138]

로마 카톨릭 주의의 지속된 공세로 인해 결국 웨스트코트는 많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례들과 자기의 사고가 일치하게 만들었다. 1849년 2월 그는 로마 카톨릭화하려는 자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

'성경의 영감'과 '로마 교황의 사도계승권'.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런 주제를 단지 진리 추구를 위해 진정으로 연구하게 하소서![139]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 웨스트코트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지만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부인했다.

친애하는 호르트에게: 나는 당신의 글과 라이트푸트의 글을 보게 되어 기쁘고 또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내 신념에 앞서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먼저 확립해야만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의심들이 나의 무식함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이고, 나는 지금 절대적 진리보다는 어떤 임의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소. 나는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 '성경의 무오류'란 단어를 부인하오.[140]

영국 성공회에 속한 선한 감독 웨스트코트는 드디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확신을 잃게 된 것이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교황의 사도계승권’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

웨스트코트의 동상 숭배

웨스트코트는 동상 즉 우상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다.

페테보로우에 있는 성당 건물들은 조각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훌륭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작품 중에서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 두 개 있다. 그중 하나는 1308년경 ‘크로이랜드의 갓프리’가 만든 출입구에 있는 니치 즉 벽을 파서 조각품이나 장식품을 놓는 곳에 자리 잡은 베네딕트회 수도승의 조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가대석 남쪽 통로에 놓인 초창기 무명의 수도원장의 조상이다. 이 둘은 특성과 중요성에서 상당히 다르다. 플랙스먼이 조각 강의에서 예로 채택했던 베네딕트회 수도승의 조상은 중세 조각상 중 가장 고귀한 것의 하나였다. 그러나 무명의 수도원장의 조상은 도대체 예술적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둘은 한결같이 삶으로부터 나온 연구 결과이며 나에게 영국 초기 수도원 생활의 중요한 힘을 생생하게 전해 준다.[141]

예수회의 계획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방법을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신 속에 불어넣어 그들을 형식주의적 교회의 분위기와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이런 로마 카톨릭 사상이 그들의 예배 속에 섞이도록 할 것이다. 와일리 박사는 그 같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예비군의 원리가 나오게 된 90번 소책자는 예수회의 기원에 대한 뚜렷한 상징들을 담고 있다. 만일 퓨지주의 운동¹⁴⁾의 지도자들이 받은 비밀스러운 교훈과 및 정신적인 치료방법을 모두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 아들의 표어이며 전직 감독 아우턴의 좌우명이었던 ‘무엇보다도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아라’를 기억하라. 차츰차츰 교회의 권위에 대해 거론을 해라. 당신

14) 퓨지 등의 주도하여 영국 국교회 내에서 천주교 교리 등을 부흥시키려던 운동

이 만일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동등하게 여기도록 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이미 많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런 다음 성찬대를 제단으로 바꾸고 제단은 바닥보다 조금 더 높게 하고 리터지¹⁵⁾를 읽으면서 그 주위를 천천히 돌아라. 또한 제단 위에는 가법고 가느다란 초들을 놓고 사람들에게 스테인드 글래스의 천사들에 대해 가르치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중세의 바실리스크¹⁶⁾의 힘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세례에 의한 중생’ 교리부터 시작해서 다음으로는 의식들과 성사(聖事)들에 대해 그리고 회개와 고해성사 등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의 조각들을 소개해라.[142]

그런데 이 같은 천주교의 영향들이 아무 의심 없이 이것들을 수용한 웨스트코트 감독의 마음속에 매우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나는 세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요. 물론 성경 말씀들로부터 세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예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조건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오.[143]

친애하는 페롯에게: 나는 그때 스케치했어야 했을 소머삼에 있는 찬슬¹⁷⁾ 창문들을 마음속에 대략 스케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소교구(小敎區)와의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단절되었으며 몇 주 내로는 공식적으로도 단절될 것입니다. 동정녀 상의 맞은편에 하나님의 옛 경륜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144]

웨스트코트의 연옥관

이러한 웨스트코트의 로마 카톨릭 성향은 결국 그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의식’을 허락하게 만들었다. 영국 국교회 안에서 이미 인정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런 의식에 대해 그는

15) 영국 국교회의 기도문

16) 그 입김을 쐬거나 눈길에 닿으면 사람이 죽사했다고 하는 전설상의 도마뱀 비슷한 괴물

17) 천주교 성당의 제단 주변의 사제석(司祭席)

1900년 8월에 한 성직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많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몇몇 다른 감독들과 의논했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 관하여 우리 교회가 취할 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공식 예배에서 교회 전체와는 별개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도 때에는 그러한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145]

웨스트코트 감독이 ‘공식 예배 시간’에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충고했으나 ‘개인 기도 시간’에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은 말리려 하지 않았음에 주목하기 바란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에 대해 대단한 존경심을 보이는 오늘날의 근본주의 설교자들이 과연 이 같은 태도를 보일까? 성경을 믿는 우리 형제 중 한 사람이 ‘글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신이 개인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말로 그들을 두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또한 이런 것은 결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이 아니던가!

우리는 ‘육체로 더러워진 옷’을 미워해야 한다(유 23). 웨스트코트 박사는 표범의 가죽만큼이나 천주교의 얼룩얼룩한 점으로 오염된 사람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그토록 충성했던 제롬과 비길 수 있는 신념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어 본문을 공정하게 수정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만일 천국과 지옥만 있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를 허락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 된다. 천국에 있는 죽은 자들은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지옥에 있는 죽은 자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월켄슨은 요한복음 14장 2절의 『영어개역성경』 번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웨스트코트가 그렇게 찬양하던 로마 카톨릭 주의의 긴 쇠사슬에서 빠져 버린 고리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 준다.

『킹제임스 성경』 :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영국개역성경』 : 내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이 많도다(In my Father's house are many abiding places).

『영국개역성경』의 난외주는 웨스트코트 박사와 영국의 성경개정위원회가 ‘요한복음 14장 2절은 미래의 최종 목적지로서의 거할 곳이 아니라 그 전의 중간 역에 있는 잠시 머무는 곳을 의미한다.’ 고 언급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웨스트코트 박사는 요한복음 주석서에서 ‘내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머물 곳’에 대한 벌게이트의 해석은 ‘휴식하는 장소’였으며 특별히 큰길가에 있는 역은 여행자들이 원기를 회복하는 곳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그리스어 단어의 진정한 의미이며 그래서 휴식과 진보라는 상반된 개념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하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1886년에 콕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좋은 평판을 받든지 나쁜 평판을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소위 ‘더 큰 소망’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설교해 왔다. 더 큰 소망이란 내세의 시련 기간 즉 불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죽음 후에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 번 구원의 기회를 보증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콕스 박사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옥 교리를 확증해 주는 변화들 곧 『영국개역성경』에 나타난 이런 변화들을 기뻐했다. ‘만일 새 번역판이 우리 수중에 있었다면 나의 주장으로 인한 어떠한 중압감도 느끼지 않았을 텐데.’라고 그는 말하였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박사, 이 두 명의 성경 개역자들은 이런 더 큰 소망 즉 연옥을 확실히 믿었다. 그런데 이 같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번역은 『신미국표준역』(NASV)에도 그대로 나타난다.[146]

웨스트코트 박사의 로마 카톨릭 사상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호르트 박사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옹호자였던 뉴먼과 그를 비교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웨스트코트가 페테보로우에 가는 일이 영국 교회에 있게 될 큰 움직임의 시초

가 될 것이라는 묘한 느낌을 억제하기는 힘들다. 그 움직임은 뉴먼의 움직임보다는 눈에 덜 띄나 그 힘에서는 절대로 약하지 않을 것이다.[147]

또한 예수회가 일으킨 ‘옥스퍼드 운동’을 웨스트코트가 ‘옥스퍼드 부활’이라고 부른 것도 결코 놀랄 일이 못 된다.

19세기 중반의 옥스퍼드 부활은 공동체 생활의 느낌에 새 생명을 부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에 비하면 복음주의 운동은 인류의 관심사의 단지 일부분만을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148]

웨스트코트의 마리아 숭배

로마 카톨릭 교회의 또 다른 교리는 마리아 숭배이다. 웨스트코트 박사는 자신의 약혼녀 윗타드(Sarah Louisa Whittard)에게 편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로마 카톨릭 교회를 깎아내리지 않았다.

수도원을 떠난 후 우리는 이웃한 언덕의 맨 꼭대기에서 발견한 작은 기도실로 갔었소. 다행히도 우리는 그곳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소. 그곳은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의 매우 작은 곳이었는데 스크린 뒤에는 실물 크기의 ‘피에타’¹⁸⁾가 있었소…만일 그때 나 혼자였다면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었을 것이요.[149]

이 같은 상황은 또한 그의 아들 아더가 ‘시스틴 예배당의 마리아 동상’에 대한 웨스트코트의 반응을 묘사한 글에서도 잘 암시되어 있다.

그것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는 작았고 색채 또한 화사하지는 못했으나 표현에 있어서는 완벽했다. 동정녀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나는 감정이 격앙되어 입술이 떨릴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기쁨인지 혹은 희망인지는 말할 수 없다. 그곳에 주(主)의 어머니가 가졌을 듯한 매우 깊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명받기에는 충분했다.[150]

18) 동정녀 마리아와 죽은 채 그 무릎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그리스도의 어머니에 대한 웨스트코트의 감탄의 정도는, 그의 아들 아더가 설명한 대로, 심지어 자기 약혼녀의 이름을 '마리아'로 바꾸고자 한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내 어머니의 이름은 사라 루이사 윗타드(Sarah Louisa Whittard)로 세 자매 중 장녀였습니다. 어머니는 후에 아버지의 요구대로 견진성사 때 세례명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151]

위의 예들은 웨스트코트 박사가 로마 카톨릭 교회 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잘 설명해 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만일 위에서 살펴본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면 비록 그의 이름이 웨스트코트, 호르트, 혹은 술러 등의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미국 내 근본주의 교회 강단에서 환영받지 못했을 것이다.

웨스트코트의 공동체 생활

20세기에 살면서 웨스트코트 감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으로 그의 심중에 있던 생각과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일 그것들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가 공산주의의 모체가 된 공동체 생활의 주창자였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역사의 기록은 이 사실을 잘 밝혀 주고 있다. 그의 아들 아더는 『브룩 포스 웨스트코트의 삶과 서신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해로우에서 거주하던 말기에 즉 대략 1868년경에 '코에노비움'(Coenobium)¹⁹⁾이라는 것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종류의 사치를 싫어하셨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사치스러운 전시와 쓸데없이 자기 방종을 장려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지나칠 정도로 검소했다는 것은 모든 친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검소한 삶에 대한 본보기로서 개인이 아닌 집단을 위주로 한 것들을 찾

19) '코에노비움'이라는 단어에 대한 아더의 주석을 보면 그것은 단순히 '공유생활'을 의미한다.

아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관점은 이런 것을 연구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진지하게 느꼈는지와 또 공유 생활의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못했다고 느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152]

‘코에노비움’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웨스트코트 감독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더 가깝게 접근해 있음을 보게 된다. 다음은 ‘코에노비움’에 대해 그 자신이 묘사한 것이다.

이것은 주로 삶과 일과 헌신으로 한데 묶인 가족들의 연합체로 구성될 것이다. 이런 공유 생활은 강당과 학교와 예배당과 공동 소득과 그리고 체계화된 정부를 갖는 대학 연합이라는 조건하에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사치의 정복, 정신노동의 훈련, 그리고 종교적 훈련을 통해 삶의 모든 조각들을 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공유 생활의 삼중 목표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난의 의무, 공부의 의무, 그리고 헌신의 의무 등이다.[158]

그토록 존경받던 웨스트코트 교수는 자신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의 대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실제로 이루게 되어 더욱더 행복해지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아더는 ‘코에노비움’이라는 공동체를 두려움과 떨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편 웨스트코트 등은 종종 미래에 ‘코에노비움’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코에노비움에 대한 나의 회상은 매우 생생하다. 우리 어린이들은 탐욕이나 다른 이기심의 표적들을 볼 때마다 코에노비움에서는 그런 일을 듣지도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우리는 먹는 음식을 선택할 수도 없었고 단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어 주어진 것을 말없이 취할 뿐이었다. 우리는 코에노비움의 설립 그 자체가 실제로 정치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며 불안한 가운데 그 공동체의 설립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벤슨 가족과 호르트 가족 그리고 소수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 공동생활체 속에서 우리 자신이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동생에게 코에노비움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며 노템프튼셔에 부지가 마련되었다는 총체적 대화를 했다고 털어놓은 것을 기억한다.[154]

1864년 11월 24일 자신의 옛 대학 친구인 벤슨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웨스트코트 박사는 코에노비움에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음에 대해 매우 애석해 하며 자신이 왜 그 문제를 좀 더 추구하여 잘 성취하지 못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친애하는 벤슨에게: 참으로 슬프오! 나는 코에노비움에 대해 단 한 마디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마음 깊이 느끼고 있소. 사람이려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에 말려드는 법인가 보오. 그 일은 생동감 있는 삶을 나누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소.[155]

2년 후인 1870년 3월 21일에 벤슨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 드러난 것처럼 그는 그때까지도 『동시대인』이라는 정기 간행물을 통해 자기 생각을 추진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다음 호 『동시대인』에 ‘코에노비움’에 대한 기사가 등장할 것이오. 당신과 라이트푸트와 워즈워드에게 그것에 대해 비평을 좀 해달라고 원고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나 자신과 모험하여 내가 느낀 바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오.[156]

1868년에 페테보로우에 ‘코에노비움’ 같은 것이 설립될 것이라고 생각한 젊은 아더의 순진한 예언은 2년 후인 1870년이 되자 거의 이루어진 것 같았다. 1868년 12월 웨스트코트 박사는 페테보로우의 주교 관구에서 검찰 목사가 되었다! 페테보로우로 이사하기 바로 전에 그는 벤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코에노비움 건설은 최소한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소이다.[157]

참으로 아더의 걱정들은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것 같았다.

페테보로우로 이사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신앙의 큰 모험이었다. 아버지는 대가족을 교육해야 하므로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해로우에서 보장된 상당한 수입을 이미 무너져버린 총회의 성당참사회원에게 주는 불안정한 수입과 기꺼이 바꾸었다.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미 엄격하게 단순한 코에노비움

사상에 의해 바뀌었으며 폐지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치라면 아침 식사에 고기를 먹는 것인데 그것도 주일에만 특별 요리로 나왔다.[158]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웨스트코트의 지지자들이 공표하지 않았던 그의 숨겨진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된다.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시키고 영국 국교회를 로마 카톨릭화하며 또 코에노비움 대학을 설립하려는 욕망 외에도 그는 전쟁 폐지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었다.

웨스트코트의 평화운동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참 성경 신자라면 당연히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며 또한 전쟁이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깨닫는다(약 4:1).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이 모든 잘못된 것이 바뀔 것을 믿는다(빌 3:21). 반면에 ‘후천년설’을 선택한 성경 거부자들은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입증할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눈에는 다 형제이어야만 한다. 물론 그는 이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평화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천년설을 신봉하는 사회주의자 웨스트코트는 ‘지구에 평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 ‘인류의 형제애’를 들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 사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중심 교리에 달려 있다. 이 교리로 인해 사람들 간의 형제애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형제애도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인류가 이미 예정된 끝을 향해 나아감에 따라 국가가 거룩한 계획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159]

지구에 평화를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 이러한 ‘형제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즉각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사회가 평화로 향하는 세 가지 중요한 수단 즉

명상, 중재, 그리고 무장해제를 취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것들을 위해 최소한 묵묵히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160]

동시적인 군비 감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행동을 통일시켜야 한다.[161]

또 한 번 저 켈브리지 대학의 웨스트코트 교수는 동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다. ‘무장해제’는 지난 약 20년 동안 자유주의자들과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대학생들이 외친 구호가 아니던가? 1960년대에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를 외치던 자들이 주장한 ‘평화운동’이 세계 평화에 대해 똑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한 목사에 의해 이미 100여 년 전에 주도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

웨스트코트는 ‘크리스천들로 구성된 중재 위원회’가 군비 축소 할당 등에 대한 국제 정책을 결정하길 원했다. 또한 그는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도 이것을 따르도록 강요받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먼저 영국과 미국이 이런 생각을 따르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영국과 미국은 자신들의 공통 언어와 공통 혈통에 의해 친밀히 묶여 있으므로 상호 간의 전쟁에 대한 생각을 배제시킬 ‘중재 조약’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일단 위대한 이 두 나라가 중재의 일반적 원칙을 채택하면 다른 나라들도 그 예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마침내 그 이후에는 무장해제가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이성적이고도 합법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162]

심지어 웨스트코트는 세계 평화를 위해 ‘에큐메니칼 운동’ 즉 종교통합운동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느꼈다.

같은 계통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대영제국 사이의 영원한 중재 조약, 잘 산다는 것이 물질적 표준이 됨으로써 생기는 이기적 경쟁심의 극단적 산출물인 전쟁의 중요성, 로마 카톨릭 교회들과 그리스 교회들이 협력하여 그 운동에 참여하는 것 등. 그러나 서로 완전히 일치한 단 하나의 요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163]

그는 '세계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럽의 군비를 동시에 단축하려는 제안은 확실히 필요한 일이며 또한 급박한 위험을 다루는 일이다. 이러한 군비 축소는, 유럽의 지도자들이 최근에 보여 주었던,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항구적이며 고결한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군비 축소라는 문제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164]

그들은 물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려 했을 것이다. 웨스트코트는 자신이 단순히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느꼈다. 그는 진실로, 자기가 잘못 번역한 『영어개역성경』의 그 구절처럼,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²⁰⁾

지금까지 아무도 국제 관계라는 문제를 성육신의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 때 선포된 그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165]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의심했던 한 남자를 보게 되는 것이다.

나는 기적 이야기 같은 것을 읽어 본 적이 없으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지 않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낀다.[166]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의심했지만 로마 카톨릭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프랑스에 있는 '라살레페의 우리의 마리아'(Our Lady of La Salette)라는 성물함에서 자기가 본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참고로 라살레페는 마리아가 출현하여 기적을 베푼다고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장소이다.

20) 『경제임스 성경』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로 번역됐지만 『개역성경』을 포함한 새 역본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로 번역되어 뒷부분이 다름.

글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 아버지의 열렬한 에너지, 딸의 겸손한 감사,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구경꾼들의 빠른 눈초리, 사제의 만족감, 표정과 끄덕임의 이야기들이 19세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믿음의 시대가 고대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서 회복된 것이다. 우리는 굉장한 호의를 보여 준 젊은 신도에게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참여하게 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설명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믿음이 없이 어찌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장소의 중요성과 힘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167]

우리는 예수회의 사상이 주입된 시인 케블의 시를 읽고 그것을 극구 찬미할 수 있었던 한 남자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해 온 「폭스의 순교사화」등과 같은 책에 관하여는 '나는 폭스가 지은 어떤 책도 읽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168]

그는 또한 '나 스스로 기독교 신앙의 정신과 논쟁의 정신을 양립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169] 논쟁하는 것을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웨스트코트는 자신이 찬양하던 알렉산드리아의 '국지적 본문'에 대한 버건(John Burgon)의 논의에 대해 답하기를 거부했고 단순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아직 버건의 책을 읽을 수 없다. 한두 문장만 훑어보더라도 그의 격렬함이 스스로 그에게 답변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170]

웨스트코트가 선입견으로 인해 버건의 비평에 대해 마음을 닫게 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버건은 아주 거칠었지만 그의 주장은 옳았다. 시간이 계속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옳은 것을 주장하려면 먼저 신사다워야 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만일 1800년대 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버건의 거친 비평을 보고 그가 주장하는 사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더라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훨씬 더 번창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동체 생활을 믿었던 웨스트코트라는 한 남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남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적인 것이며 천국은 마음의 상태라고 믿었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개인 기도 시간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리스도가 국제적 무장 해제를 통해 평화를 가져오리라고 믿었다. 그는 연옥을 믿었고 마리아를 숭배했으며 성경도 다른 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영국개역성경』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으며 우리가 읽고 믿는 성경의 심판관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을 지지하는 ‘개악된 그리스어 본문으로’ 그 부분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그의 신학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크리스천 교육자와 설교자들 즉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거의 수 십년 동안이나 그리스어에 대한 그의 견해에 거의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를 찬양해 왔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사상과 행동은 그들이 자기들의 성경 본문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로마 카톨릭 그리스어 본문과 사본들을 비난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가?

우리는 먼저 로마를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의 순수한 말씀들을 수정한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너무나 슬프게도 웨스트코트는 은혜에 의한 구원도 믿지 못했으며 그것을 경험한 적도 없었다. 그의 삶과 서신에는 그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원자로 받아들였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전혀 없다. 그는 자신의 미래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쓴 편지에서 세례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강력히 피력했다.

가장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지난번 편지에서 언급했던 주제 즉 ‘세례에 의한 중생’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거의 잊었소만 그것은 내가 명백한 견해를 피력한 몇 개 안 되는 요지 중 하나이기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나누었으리라 생각하오. 그리고 확신하건대 그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 오해를 받고 있고 잘못 전달되고 있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나는 그분께서 자신의 약속의 저장고로서 표면적인 교회를 지정했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표면적 의례들을 명령했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좀 더 깊은 은혜를 받을지도 모를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독단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락을 통해 그분의 표면적 교회와 그렇게 연결될 때까지는 그분께서 주시는 중요한 수단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도 그분께서 자신의 영적 교회의 이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요. 그것은 물론 표면적 교회와 영적 교회가 동일 공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이가 세례에 의해 하나님과의 관계적 위치에 놓임을 의미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건부로 천국의 상속자가 됨을 의미하지 않소이다. 여기에 바로 애매 모호한 점이 있소.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가 그의 새로운 상태로 인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소. 그러나 그는 탄생에 의해 원한다면 여기서 정말로 사는 것이며 또한 세례에 의해 원한다면 진실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요. 나는 세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요. 물론 성경 말씀들로부터 세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예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만 큼이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조건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오.[171]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웨스트코트 박사와 호르트 박사는 『킹제임스 성경』의 참 그리스어 본문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웨스트코트 박사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찬성하는 태도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카톨릭 교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그의 아들 아더가 ‘웨스트코트의 개인 제자 중 하나는 호르트였다.’ 라고 지적했듯이 초기의 호르트 박사는 웨스트코트 박사의 학생이었다[172].

웨스트코트가 자신의 제자들을 꼼꼼히 가르치며 보살핀 것에 대해 그 당시 삼위일체의 대가였던 휘웰 박사(Dr. Whewell)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울인 노고는 보기 드문 것이었으며 그의 가르침은

조심스러울 뿐 아니라 현명한 것이었다.[173]

이 두 명의 켈브리지 학자들의 공통된 소망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 즉 ‘보편적 그리스어 본문’의 권위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학자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나 이들의 노력은 ‘보편적 본문’이 정말로 성경의 참 본문이요, ‘자필 원본’이 보존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런데 이 두 학자들은 로마에 의해 교묘히 영향을 받았으며 자기들의 의무가 이 순수한 프로테스탄트 본문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본문을 던져 버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국지적 본문’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눈에 드러나는 현저한 증거는 항상 하나님의 편으로 기울어 있다. 아무도,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조차도, 현존하는 모든 사본의 98% 이상이 ‘보편적 본문’인 이유를 설명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본문 비평’은 이러한 장애물이 극복될 때까지 정체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호르트가 꾸며 낸 이야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본문을 살리기 위한 길을 터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호르트라는 천재였다. 이 사람은 다윈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을 전복시키는 데 사용한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보편적 본문’의 권위를 뒤집어 버렸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학설’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의 학설은 다름이 아니고 원래의 ‘자필 원본’은 ‘국지적 본문’과 일치하는데 이 ‘국지적 본문’을 주후 4세기에 안디옥에 있던 시리아 교회가 마음대로 편집했고 그렇게 편집된 본문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본문’이며 그 이후에 교회의 공회가 이

본문을 사용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했다는 것이었다. 즉 이 말은 ‘보편적 본문’이 변개된 것이고 ‘국지적 본문’이 올바르게 보존된 것임을 의미한다.

다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식과 및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의 이론의 부당함을 입증했다. 다윈과 마찬가지로 그도 증거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편들을 모두 모아 뒤틀고 과장시켜 자신의 주장을 이론화시켰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그의 학설 역시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며 결코 역사적 사실이나 증거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하나님의 권위를 폐지할 길을 찾고 있었던 지식인들은 그의 학설을 압도적으로 받아들였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에 분개한 과학자, 생물학자, 대학교수들의 귀에 마치 달콤한 음악과도 같았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은 자연스레 사람의 육체 안에 적개심과 반항심 같은 것을 불러일으켰다(롬 7:18). 따라서 다윈이 세상에 그의 이론을 내놓았을 때 온 세상은 그 거짓말을 기꺼이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학자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도움 없이도 자기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으며 또 보존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분개해 왔다. 절망적인 과학자들처럼 그들도 역사의 증거나 사실이 『킹제임스 성경』의 편이라는 점을 마지못해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던 때에 웨스트코트 박사의 후원을 받은 호르트의 학설이 발표되자 그것은 곧 ‘본문 비평의 해방’으로 알려졌다. 마틴 박사는 호르트의 이론을 배울 때 생기는 해방의 기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국 국교회뿐만 아니라 독립파 교회에서 성경의 무오류성을 오랫동안 부인해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되는 그의 이론을 환호

하며 맞아들였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은 널리 환영을 받았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주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에 따라 금세기에 이 주제에 관해 이루어진 공헌이나 업적은 다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174]

다윈의 학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의 학설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을 호르트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마틴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호르트는 이 같은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했으며 이런 종류의 증거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175]

물론 이렇게 서로 다른 결론들은 결코 호르트의 지지자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고대의 것 다시 말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성경이라는 생각을 없애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본문 비평가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목적지로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냥 자전거를 타는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마틴 박사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 주었다.

그들이 택한 중요한 방법 즉 본문의 내적 증거에만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방법은 매우 그릇된 방법이며 위험한 것인데 그 이유는 그런 방법을 통해 비평가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대한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이다.[176]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크리스천 학자들의 육체 안에 거하는 오랜 죄성과 연합한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자가 되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이해하는 일은 참으로 엄청나게 어렵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것을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적절하게 표현했다. 또한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서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결론지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사악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육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개시키는 권위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곧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왕좌에 앉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학자적 편견

호르트의 이론과 다윈의 이론에는 또 다른 유사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론들의 오류가 입증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존경한다는 점이다. 다윈의 이론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상식 등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끈질기게도 그것을 확실한 사실로 떠받들었다. 그들은 다윈의 이론이 자기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들은 다윈의 이론이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 도망칠 수 있게 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다.

알란드 박사(Dr. Kurt Aland)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호르트의 이론도 이와 비슷하게 잘못 다루어졌다.

다른 교정판이나 본문 형태에 관한 우리의 개념이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거나 또는 최소한 새롭게 증명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전에 우리가 취한 개념과 함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세계에 살고 있다. 파피루스 사본들이 발견됨으로써 서류상의 증거들이 증가하고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연구 분야가 열렸다는 사실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개념의 종말을 의미한다.[177]

신약 성경의 ‘사본 증거’(manuscript evidence)에 대해 폭넓게

연구해 온 기어링스 박사(Dr. Jacob Geerlings)는 ‘보편적 본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다른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본문’의 기원도 ‘자필 원본’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한 본문’이나 ‘권위를 인정한 본문’을 동방 교회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확실하다. 다만 천천히 진행되는 긴 과정을 통해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본문은 ‘비잔틴 본문’ 혹은 ‘다수 본문’으로 분류가 되는, 몇 개 되지 않는 현존하는 대문자 사본에서 우리가 희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178]

풀러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그래서 20세기가 되기 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대중화시킨 견해 즉 ‘다수 사본’이 권세를 가진 교회 제도가 그리스어 본문을 수정하여 만든 것이라는 견해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 버림을 받게 되었다.

전에 인용했던 것처럼 마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좀 더 최근에는 학자들의 성향이 전통적인 웨스트코트/호르트의 입장에서 벗어나고 있다.[179]

새로운 증거와 역사적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킹 제임스 성경』에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학자들은 마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이 진리인 양 그 이론만을 떠받들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호르트의 이론이 참으로 자기들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리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이 아니다. 오늘날의 정직한 ‘크리스천 학자들’ 중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호르트의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재 영어로 된 성경 중에서 완전한 역본은 없다고 당신에게 즐거이 말해 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단계’로서 ‘새 역

본들’을 권하면서도 심지어 가장 최근의 역본도 그 안에 실수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학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신앙심 두터운 크리스천 학자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말씀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들이 본능적으로 분개해 왔고 그래서 자연스레 하나님께 복종하려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마틴 박사가 지적했듯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거의 숭배에 가까운 충성심을 보인다.

그들의 이론이 실질적으로 최종 권위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그 이론을 환영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의 절정이라고 생각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이론에 대해 전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헌신적으로 충성을 보여 왔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웨스트코트/호르트의 이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혹은 기껏해야 희미하게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두 학자들의 이론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에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그들이 아마도 실수를 범했던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본문에 대한 이설’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180]

호르트의 친구였던 로빈슨 교수(Professor Armitage Robinson)도 이같이 호르트를 숭배하는 미신적인 경향이 실제로 있음을 보았고 1891년에는 존경하는 그 노학자 호르트에 관하여 ‘어떤 이단 종파’ 같은 것이 생겨났다고 말했는데 이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었는지 잘 보여 준다.[181]

그들의 눈에는 웨스트코트 박사나 호르트 박사를 비난하는 것이 거의 신성 모독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웨스트코트 박사 자신이 ‘나는 논쟁의 정신과 기독교 신앙의 정신을 양립시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는 ‘열렬한 신자’를 대적하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 같은 말을 했다.

그런데 일단 교만이라는 것을 수용하게 되면 이것은 거의 되돌릴 수 없는 부패 과정을 만든다. 아들이나 딸이 잘못된 것을 보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장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정도로 사람의 교만은 무서운 것이다.

자유 그다음엔 속박!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영국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웠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국은 다시 한 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속박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영국 역사에서 짧은 막간극에 해당되는 그 기간에만 다시 말해 완전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한 그 기간에만 영국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19세기 후반에는 다시 영국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권 내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했다. 옥스퍼드 운동을 통해 로마 카톨릭화 되었고 또 뉴먼, 퓨지 등과 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찬성하는 자들이 기록한 부패한 소책자들과 『수필과 평론』의 반성경적인 입장을 옹호해 준 추밀원의 결정 등으로 인해 결국 그들이 원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845년에 뉴먼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영국 국교회와 공식적으로 결별을 하였고 그의 결정은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들이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영향을 주었다. 1850년에는 뉴먼을 로마로 이끌기 위해 많은 일을 했으며 『더블린 리뷰』라는 소논문들을 통해 옥스퍼드 운동을 지도한 ‘호전적인 로마 카톨릭 추기경’ 와이스먼이 교황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되어 영국 땅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공식적으로 재건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마침내 성경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태

도와 예배 의식들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성경을 존중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거부하던 종교 개혁의 입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바야흐로 영국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영어 개역 성경』(RV)을 맞이할 준비를 완전히 갖춘 것이다!

몇이 준비되다

1870년 영국 국교회 협의회는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판을 만들 것을 결정했다. 영국과 유럽 대륙에 있는 모든 로마 카톨릭 교도들의 눈에는 드디어 희망의 빛이 타오르게 되었다. 영국에서 예수회 사상으로 오염된 모든 프로테스탄트 학자들은 열렬히 이를 기대했다. 비록 이 개정 작업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본문 비평가들은 이 일을 통해 자기들이 더 이상 ‘보편적 본문’의 신성한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1870년 11월 웨스트코트가 벤슨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몇 분 내에 나는 라이트푸트와 함께 웨스트민스터로 갑니다. 나는 이 모임이 단순히 개정판을 만드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오.[182]

영국 국교회 대교구의 주교들은 회의를 통해 개정 위원회가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된 그리스어 본문에 어떤 수정 작업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시했다.

(1) 가능하면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에 수정을 많이 하지 말 것, (2)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에 표현의 변화를 제한할 것 등.[183]

그러나 사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의 부패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손질해서 자기들의 그리스어 본문으로 내놓았다. 그들은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였으며 그래서 결코 그것을 드러내놓고 출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본문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버건 같은 동시대 학자들의 감시의 눈초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만일 그 본문이 좀 더 일찍 출판되었다면 분명히 영어 역본의 본문으로 적당하지 않으며 부패된 것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두 박사는 분명히 ‘뱀처럼 지혜로웠으나’ 불행히도 성경 역사에서는 매우 해로운 존재였다.

학자의 속임수

성경 개정 위원회는 그리스어 본문 문제는 취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그때까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자기들의 그리스어 본문을 출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캠브리지 출신의 카톨릭 교도들은 자기들의 본문을 조금씩 조금씩 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마저도 비밀리에 수행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그리스어 본문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위원회의 첫 모임이 열리기 전에 전략을 짰다. 1870년 5월 웨스트코트가 호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대로 그들의 오랜 친구인 라이트푸트 감독이 그들을 돕기 위해 거기에 참가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엘리콧에서 온 사람이 당신의 전갈을 가져왔소 ... 나는 주교회의가 그런 법령을 발의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오만 라이트푸트가 말한 대로 ‘우리 셋’이 함께 하면서 그것을 최선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느낍니다 ... 본문을 달리 해석한 글을 여백에 두어도 좋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소.[184]

다음 달에 그는 라이트푸트에게 이렇게 편지했다.

우리가 개정을 위한 첫 오전 모임이 열리기 전에 협의회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소? 우리가 일치를 보아야 할 중요한 요지가 많이 있소.[185]

그런 후 그들은 비밀스럽게 자기들의 본문을 위원회 회원들에게 제출했고 자기들의 계획이 수행되는 것을 보기 위해 그들 편에 가까이 머물렀다. 월켄슨 박사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20년 동안 작업해 온 『수정 그리스어 성경』이 비밀리에 개정 위원회의 손에 넘어졌다. 그들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은 매우 극단적이며 혁명적인 것이었다. 성경 개정자들은 두 명의 캠브리지 편집자였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지침을 따랐으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계속해서 그들 곁에 있었다. 보편적 『공인본문』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그들의 급진적인 『수정판 그리스어 새 성경』이 모든 면에서 성경 개정 위원회가 사용한 본문이다. 이 『수정 그리스어 본문』은 대부분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따르고 있었다.[186]

이런 행동은 다 예수회의 음흉한 악취를 풍겼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학자이기는 했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불신자 두둔하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니테리언(유일교도)²¹⁾ 설교자인 스미스

21) 유니테리언주의: 대체로 하나님께서 한 위(位)로만 존재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단일성과 예수의 인성(人性)에 대한 신학적 기반은 2~3세기의 단일신론과 아리우스 및 그 추종자들(아리우스파)의 가르침에서 발견된다. 후에 교회는 이 두 분파의 교리를 모두 이단으로 선언했다. 유니테리언주의의 현대적 뿌리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자유주의적이고 급진적이며 이성주의적인 개혁자들은 플라톤이 강조했던 이성과 하나님의 단일성을 부활시켰다. 이들 사상이 중 많은 사람이 종교재판 때 이탈리아를 떠났다. 주도적인 신플라톤주의적 유니테리언주의자였던 세르베투스는 결국 제네바로 도망쳤으나 그곳에서 칼뱅주의자들에 의해 화형에 처해졌다. 폴란드에 은신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망명자 중 주요인물인 파우스투스 소키누스는 1579년 크라쿠프에 도착했다. 소키누스의 신학은 예수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했으며 대부분의 유니테리언주의자들과 만인구원론자들은 지금도 이 교리를 견지하고 있다. 트란실바니아에서 활동한 초기의 주요인물은 페렌즈 다비드였는데,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므로 예수에게 기도할 수 없다고 가르쳐 이단으로 단죄되었다. 다비드는 1579년에 옥사했는데, 그가 세운 교회는 현재 남아 있는 유니테리언 교회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박사(Dr. Vance Smith)가 성경 개정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보편적 본문’의 폐지를 환영하는 또 한 명의 지지자를 얻은 셈이었다. 호르트 박사는 스미스의 임명에 대해 같은 음모에 협력하는 라이트푸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느낌을 나누었다.

우리가 유니테리언 교도 하나를 환영했다는 사실을 통해 얻게 된 바가 무엇인지 지금 판단해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오.[187]

웨스트코트는 만일 주교 회의에서 스미스를 위원회에서 빼 버린다면 자신도 탈퇴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나는 내 임무에 대해서 이번처럼 더 명백히 느낀 적이 없다. 만일 그 모임이 주교 회의의 명령 – 즉 스미스를 축출하는 일 –을 받아들인다면 내 일도 끝나는 것이다. 나는 파국을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188]

윌켄슨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대한 스미스의 주석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번의 개정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의심의 여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보라, 젊은 아낙네(처녀가 아닌)가 아기를 가졌다’(Behold, the young wife is with child.).[189]

스미스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실수라고 불렀다.

재림에 대한 이런 생각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일어난 하나의 일시적 사건으로 그냥 넘겨버려야만 한다. 다른 많은 실수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일시적인 목적에 부응한 것이며 따라서 이제는 영원히 평화로이 잠들게 놔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190]

웨스트코트 박사는 교리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과학자로서 자신이 본문을 결정해야만 하며 신학자들은 그 후에

자신들의 의견을 더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어떤 것을 교리적으로 논의하거나 혹은 교리 자체를 논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신과 거의 의견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이 전적으로 우리 영역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기록된 바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후에 신학자들이 그 본문과 역본들을 다루겠지요.[191]

그렇다면 웨스트코트는 스미스의 신학적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도 우리는 영으로는 일치하나 표현하는 게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바라는 바에서는 일치합니다.[192]

이 마지막 말은 웨스트코트가 의도했던 것 이상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영국 국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변절한 뉴먼 박사가 개정 위원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193]

이것은 성경 개정자들이 성경을 현대화하려고 시도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잘 보여 준다. 사실 뉴먼은 그때에 처음으로 성경 개정 작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것이 아니다. 그가 변절한 뒤 2년 후인 1847년에 호전적인 로마 카톨릭 제사장 와이스먼 추기경이 로마로부터 그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

트래스티비에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수도원장이신 베니그노 신부는 우리가 영어 성경 번역에 관계하길 원하십니다. 그는 박식한 분으로 금서(禁書) 목록의 추기경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프로테스탄트 성경을 빼앗아 그것을 벌게이트로 수정하고 ... 인기를 얻어내는 것입니다.[194]

너무나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와이스먼의 희망이던 『제롬의 부패한 벌게이트』로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고치는 일은 프로테스탄

트 학자들이 정확하게 1881, 1901, 1952, 1960, 1973년에 이룩한 일이었고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 이후에 나온 ‘새롭게 향상된 역본’이 다 그런 개정 작업의 산물이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개정 위원회의 결정을 교묘히 이끌어 가면서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직무를 워낙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은 이 2인조 캠브리지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용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고 또한 세상에 로마 카톨릭 성경을 제공하려 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머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모든 사실을 놓고 판단해 볼 때 성경 개정 위원회가 해체되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일을 능력 있는 학자들과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면밀히 조사하게 되었을 때 까지만 해도 개정 위원들은 자신들이 『공인본문』을 대신하여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을 공식적으로 인가해 주었음을 깨닫지 못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교묘하게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은 그때까지도 출판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아무에게도 전혀 조사와 비평을 받지 않았다. 또한 아무도 그들이 구축한 원리들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서야 비로소 심지어 개정 위원들도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195]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바티칸으로부터 비밀리에 명령을 부여받아 그것을 성실히 수행한 예수회 사제였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참된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며 로마 카톨릭 교회를 찬성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성경’을 재건하는 일에서 예수회 사제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이 두 사람보다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배교에 대한 모든 증거를 살펴볼 때 현대 학자들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를 그렇게 숭배하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리라고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옹호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상한 일이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도 않았을뿐더러 슬프게도 경험조차 하

지 못한 사람들을 지지하다니 정말로 슬픈 일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신앙심 없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 눈이 멀어 사실을 도외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미국이나 한국의 신앙 부흥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 2-3절에서 야곱이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말했던 것같이 크리스천 학자들이 '이방 신들을 내어버리고 벨엘로 올라가야만' 그런 부흥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몇 가지 잘못된 견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의 상당수는 고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비평의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이 설교로 들은 것, 책에서 읽은 것, 또는 교실에서 배운 것을 단순히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크리스천 비평가들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이 성경을 증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자기가 신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반대한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성경에 대해 ‘악의’를 품게 되면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의 ‘육신’이나 혹은 ‘자아’와 결합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는 적대감을 형성한다. 사실 이러한 ‘옛 습성’은 모든 사람 심지어 크리스천에게도 존재하며 이런 습성은 큰 만족을 얻을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습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내적 욕망을 잘 보여 준다.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 육체에게 병기를 주어 육체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한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영(靈)의 작용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법정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받지도 못하는

슬픈 일이 발생하게 된다.

성경의 영감과 보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자필 원본’은 완전하지만 역본은 완전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은 논리 즉 사람의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 교육자들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씀을 완벽하게 번역하도록 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실 완전한 역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필 원본’을 완전하게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주장보다 더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내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적으로 오류가 없이 보존되어야만 함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의 완전 영감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로 하여금 결코 실수를 범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주장한다면, 성경의 완전 보존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번역자로 하여금 결코 실수를 범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확실히 믿는다고 주장하는 바 그 성경을 최소한 지금 이 시간에 내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라.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하셨음을 믿는다. 나는 최소한 내가 믿는 바를 보여 주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자필 원본’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한 원본을 내놓을 수 없다! 나는 결코 『킹제임스 성경』이 새로운 영감에 의해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감’이라는 것은 빈 종지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자필 원본’에 있는 말씀이며 지금까지 보존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뿐이다. 실로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필사본과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즉 ‘영감’과 ‘보존’이 이루어 내는 결과는 동일하다: 완벽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과 스스로 학자인 체하려는 사람들은 머리 위로 성경을 들고는 이렇게 큰소리로 외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벽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로 범벅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청중들을 기쁘게 하려고 마치 ‘의로운 분노’를 느낀 것처럼 주먹으로 설교단을 내리친다. 그렇지만 그들이 설교단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의 손에 들린 책에 정말로 실수가 없다고 믿느냐고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은 즉시 노래하고 춤추는 로봇처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성경 역본에 불과하며 오류가 없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 논제를 밀어붙이면 그들은 이렇게 묻는 당신의 권세에 대해 물을 것이며(마 21:23) 그래도 당신이 계속해서 물어본다면 당신에게 ‘럭크맨주의자’(Ruckmanite)²²⁾ 라는 딱지를 붙여 줄 것이다.

22)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는 이들이 그렇게 믿는 이들을 비웃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럭크맨 박사의 이름을 따서 비웃듯이 부르는 별명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단순하게 이 ‘신성한 사람’이 설교단에 서 말한 바를 스스로 진실로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뜻하지 않은 동조자들

우리는 위에서 필사본들의 역사, 신약 성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내팽개치려는 사람들의 계획과 시도에 대해 공부했다. 또한 우리는 필사본의 대다수와 역사의 증거가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적대감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로마 카톨릭 교도, 배교자, 프로테스탄트와 근본주의자들이 서로 의견을 같이하는 유일한 주제는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며 이제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울타리의 어느 편에 서야 할 지 면밀히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와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그룹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폐기하는 데 성공했을 경우 과연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해 본다면 이 일은 더욱 실감이 날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제거된다면 결국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없게 되며 바로 이때 로마 천주교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알렉산드리아의 ‘국지적 본문’과 1582년의 예수회 역본을 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돌격할 것이다.

로마 교회는 어떤 근본주의자도 의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성경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성경을 『영국개역성경』(*Revised Version, RV*),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현대인을 위한 복음』(*Good*

News for Modern Man, GNMM), 『리빙 바이블』(Living Bible, LB), 『앰플리파이드 성경』(Amplified Bible, AB), 『예루살렘 성경』(Jerusalem Bible, JB), 『공동 성경』(Common Bible),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V), 『뉴스코필드 관주성경』(New Scofield Reference Bible) 등으로 걸표지만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 없이 이런 역본들을 사용하게 했다. 이 말은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 성경책의 이름만 바꾸어 온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제부터 굳이 카톨릭 성경을 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현대 역본들이 다 카톨릭 성경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합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y)를 이끄는 대표들이 천주교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천주교는 성경 시장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해야만 할 것인가?

불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

로마는 새로운 카톨릭 역본 중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킹제임스 성경』을 전적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계획은 이 역본 중 하나가 크리스천들의 『킹제임스 성경』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그들은 현재 다음과 같은 작전을 쓰고 있다. 즉 근본주의자들에게는 『개정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SV)의 쌍둥이인 『신미국표준역』이나 『신국제역』을 쓰도록 만들고, 젊은이들에게는 고어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현대인을 위한 복음』이나 『리빙바이블』을 건네주고 있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크리스천들의 가슴속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이렇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국지적 본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새 역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더 정확한 성경'이라고 선전하면서 자기 구미에 맞는 성경을 취하려는 일반 대중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믿었던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여긴 독립적이고 근본적인 신학교나 성경 학교에 가서 오히려 그런 믿음을 잃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3, 4년이 지난 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들이 졸업한 학교가 자기들에게 '원문이 진실로 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자기들로 하여금 '킹제임스 성경 광신자', '극단주의자', '이단 집단' 등에 속하지 않도록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그들은 자기들의 팔 아래 낀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기들의 모교가 자기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학교를 떠나간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꼴을 먹일 양들에게도 의기양양하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흐뭇해하며 행복감에 젖는 사람은 다름 아닌 교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많은 거짓 대언자가 올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 역본들이 출간될 때마다 '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낫습니다.'라는 선전과 함께 시장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모든 거짓 대언자들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추종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인식해야만 한다. 모하멧은 그리스도가 시작한 일을 자신이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했다. 맨슨(Charles Manson)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문선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지 못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존스(Jim Jones)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록 그룹 비

틀즈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하다고 주장했다.

존스가 자신이 모하멧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음에 주목하기 바란다. 문선명이 부처를 대신하려고 외치지 않았음에 주목하기 바란다. 모든 거짓 대언자들은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다. 『현대인을 위한 복음』도 『미국표준역』보다 낫다고 외친 적이 없으며 오직 『킹제임스 성경』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국제역』(NIV)도 『미국표준역』(ASV)보다 낫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언제나 『킹제임스 성경』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거짓 대언자들은 그들이 참 대언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성경도 그것이 참 성경을 공격하기 때문에 쉽게 그 정체를 밝혀낼 수 있다.

슈퍼 싹 철학

나는 비유법을 사용하여 이들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려 한다. 새로운 역본들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한때 ‘슈퍼 싹’이라 불리며 미국을 휩쓴 적이 있는 저 유명한 식료품 봉지 제조업자들이 주장한 바와 놀랄 만큼 흡사하다. 식료품을 담은 봉지 제조업자들은 생산비를 절감하기를 원했다. ‘옛날의 그 신뢰할 만한 두 겹 봉지’는 물건들을 많이 담아 나를 때도 찢어지지 않았으나 생산 단가가 높았다.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질이 낮은 제품을 만들되 그것을 ‘우수 제품’이라고 부르자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우리 미국인들은 대개 한 번쯤은 이 ‘슈퍼 싹’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했을 것이다. 언젠가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식료품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는 그것들을 담은 봉지를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두 겹 봉지가 아니었다! ‘더 싸게 만들었군!’ 하고 우린 생각했다. 그런 뒤 우리는 봉지 겉면에 쓰인 문구를 보았다. ‘새로 만든

이 ‘슈퍼 싹’은 최신의 고강도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 겹으로 싹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질이 낮은 제품은 아니구먼.’ 하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건 새롭고 더 좋은 거야. 이제부터 알아두어야겠어.’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쉽게 이런 선전 문구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는 그 ‘슈퍼 싹’이 ‘옛날의 신뢰할 수 있는 두 겹 봉지’보다 더 낫다고 믿었다.

‘새로 나온 이 ‘슈퍼 싹’은 아주 질겨서 이제는 더 이상 두 겹으로 싹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봉지가 터지며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을 때 이 선전 문구는 얼마나 내 머릿속을 많이 울렸던가! 나는 깡통들이 식료품 건너 주차장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았다. 차 뒷좌석에서 봉지 밑이 터지는 것도 보았다. 우리는 차 안에 남은 생존자들 즉 봉지에서 뜯어져 나온 물건들을 챙긴 후에 집으로 향했다.

‘새로 나온 이 ‘슈퍼 싹’은 ... 더 이상 두 겹으로 싹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전 문구를 다시 한 번 유심히 본다. 그리고는 깨진 달걀들이 집 옆의 차도에 그 내용물을 쏟아 내는 것을 바라본다. 씨리얼(오트밀의 아침 식사) 통이 깨져 열리고 지금은 이웃집 개가 마지막 남은 햄버거를 집어간다. 깡통 제품의 행렬, 깨진 젤리 단지, 그리고 우리의 자취를 따라 흘러나온 우유를 뒤로 남기며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마침내 걸면에 선전 문구가 적힌 갈색의 커다란 종이 외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이 뒷문에 도착하게 된다.

‘이 ‘슈퍼 싹’은 새로운 고강도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 겹으로 싹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당해 거기 서서 가만히 손해를 따져 보면서 나는 놀랍도록 새롭게 향상된 ‘슈퍼 싹’으로 내게 복을 준 제조업자들에게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슈퍼 씹’ 철학은 지난 수십 년간 성경 번역 분야에서
 도 그대로 존재해 왔다. 최근에 출판된 새 역본들은 크리스천 공동
 체를 향해 대대적인 ‘대중매체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 캠페인으로
 인해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번에 새로 나온 역본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면 마치 무슨 손해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는 새 역본을 구입해야
 겠다고 느낀다. 이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며 1963년에 발간된
 『신미국표준역』(NASV)의 서문 역시 이 사실을 입증한다. 서문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는 일반 대중이 『신미국표준역』의 유효성, 가치, 필요 등을 배워 우리에게
 감사하리라고 기대하는 바이다.

그런데 사실 『신미국표준역』을 펴낸 정체불명의 ‘록크맨 재단’
 (Lockman Foundation)²³⁾은 일반 대중이 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
 하는 성경 역본을 인가해 오고 있다! 그들은 일반 대중이 그런 선
 전문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성경을 구입해야겠다고 느끼기를 원하
 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마치 세탁물 세제의 선전 문구와 같으며
 결국 이들은 성경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팔아먹으려고 집요하게 늘어놓는 말

이제 ‘새로 나온 성경을 선전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우리는 몇
 몇 크리스천 정기 간행물을 읽게 되고 새로운 역본이 나왔음을 보
 게 된다. 출판사는 물론 이 새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하며
 또한 새 역본의 필요성을 보여 주기 위해 자기들이 ‘킹제임스 성경
 의 실수들’이라고 믿는 바를 폭로한다. 그 뒤 이들은 ‘전적으로 믿
 을 만하다.’, ‘그리스어 본문에 충실하다.’, ‘새 전통을 세운다.’
 등의 외침과 함께 새 역본의 정체를 드러낸다. 우리는 이런 문구들

23) 부디 『킹제임스 성경』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록크맨 박사와 혼동하지 말기 바람.

을 읽으면서도 의심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역본을 검토하기 위해 ‘성경 서점’으로 향한다. 계산대 앞에 앉은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팔기 위한 장황한 설명’을 들은 후 우리는 모든 근본적인 것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리라는 확신을 얻은 후 ‘새롭고 현대적이며 또 읽기 쉬운’ 역본이 든 식료품 봉지(슈퍼 썸)를 들고 안심하며 서점을 나온다. 집으로 오면서 우리는 ‘더 정확하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높이는’ 이 역본을 시험해 보리라 결심한다.

실망시키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난다. 그와 대화하면서 우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하나님’ 즉 일종의 피조물이 아님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신세계역본』(*New World Translation*)으로부터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여 준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하나님’(only begotten God)이라고 쓰여 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킬킬거리며 웃는다. ‘그건 당신네 성경이나 그렇지요.’ 우리는 『신국제역』(*NIV*)을 찾으며 말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놀랍게도 『신국제역』 역시 ‘독생하신 하나님’(only begotten God)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처럼 ‘피조된 하나님’이란 말인가?

우리는 너무나 당황해서 재빨리 삼위일체 문제로 화제를 돌린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7절!’이라고 외친다. 자, 이제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현대인을 위한 복음』(*GNMM*)에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펴낸다. 그런데 『현대인을 위한 복음』은 단지 ‘세 명의 증인이 있다.’라고만 말한다. 그러자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그게 무얼 가르쳐 주지요?’라고 묻는다.

‘잠깐만요.’ 우리는 말을 더듬으며 『신미국표준역』(NASV)을 찾는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니라.’

‘그래서 그 구절이 삼위일체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나요?’ 그가 질문해 온다.

얼굴이 빨개지고 머릿속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원문에 충실하다.’ 라는 선전 구절만이 핑핑 돌아 우리는 절망적으로 『뉴킹제임스역』(NKJV)을 움켜잡는다.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일 5:7)

‘여기 있구나! 여기 있어!’ 우리는 크게 소리친다.

‘자, 보시오, 삼위일체에 대해!’

‘큰 소리로 그 부분에 대한 각주를 읽어 보십시오.’ 그가 조용히 말한다.

‘하늘에’ (7절)로부터 ‘땅 위’ (8절)에라는 말씀은 비록 15세기 이후에 나온 세 개의 그리스어 사본이 그 구절을 포함하긴 하지만 라틴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다.

‘당신도 보신 바와 같이’ 우리의 상대는 말을 잇는다. ‘그 구절은 사실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고맙게도 그는 더 이상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난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후 우리는 구멍난 ‘슈퍼 섹’을 받쳐 들고 집을 향해 가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찢어 버린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성경 서점 판매원의 말소리만 들린다. ‘그러나 저는 이 새 역본에서도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파괴하는 진보 계시

이제 우리는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 게 인도하려 한다. 우리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회심하는 일이 매우 단순한 것이라고 말해 준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처럼 그 일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설명한다. 그것을 보여 주기 위해 『개정표준역』(*RSV*)을 펼친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 36절을 읽고 그다음 절인 38절을 읽는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한다. ‘잠깐만요. 한 절을 그냥 넘긴 것 같네요.’ 이에 우리는 잘못을 사과하고는 다시 36절을 읽고 주의 깊게 손가락으로 다음 절로 넘어 간다. 그런데 그다음 절은 38절이다! 어, 37절이 없네! 이 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믿지 않았단 말인가!

‘실례했습니다.’ 우리는 사과한다. ‘제가 잘못된 성경을 집었나 봅니다.’ 우리는 『개정표준역』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신미국표준역』을 집어 들고 다시 읽기 시작한다.

37절에 도달하자 다행히 거기에는 ‘주석을 보시오!’ 라는 말이 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독백을 한다. 사실 그 주석은 ‘이 구절은 믿을 만한 사본에는 없음.’ 이라고 말한다.

생각의 맥이 끊긴 채 정신을 잃어버린 우리의 새 친구는 머리를 흔들면서 어째서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이 믿는 성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까 궁금해하며 가 버린다.

이제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무신론자를 만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거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한다.

‘아닙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좀 전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뻐하며 확신 있게 대답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봅시다.’ 우리는 『리빙 바이블』을 집어 든다.

그러나 그 답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구절에는 하나님이 없는데요.’ 그가 말한다.

그 판매원의 말이 다시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러나 저는 이 새 역본들 안에서 근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는 『개정표준역』으로 되돌아가며 자문해 본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어디 있죠?’ 무신론자가 질문해 온다. 우리도 바로 그것이 궁금하다!

『현대인을 위한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신미국표준역』은 이렇게 말한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죠?’ 무신론자는 이제 짜증이 난다는 듯이 단호하게 질문해 온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슬퍼서 머리를 떨구며 대답한다.

우리는 크게 상처 입은 심령을 이끌고 터덜터덜 집으로 온다. 『신미국표준역』을 만들어 준 록크맨 재단과 우리에게 이처럼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며 원문에 충실한’ 역본으로 인해 좌절하게 한

‘독실하고 보수적인 학자들’ 모두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집 뒷문에 도착할 때 갑자기 봉지가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난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 청소원은 우리들의 집 앞에서 길면에 ‘이 슈퍼 섹’은 새로운 고강도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겹으로 쌀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갈색 종이 봉지에 담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성경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게 된다.

‘고맙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하겠습니다.’

이는 물론 가상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불평들

이제부터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불평들에 대해 살펴볼려 한다. 부디 새로운 개정판에서는 ‘기독교의 근본 원리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새로운 역본들은 읽기 쉽고 또 그 안에서 근본 교리를 찾기 쉽다.’는 말은 사실 개정판의 편집자나 출판사의 주장에 불과하다. 윌켄슨은 ‘개정판에서의 변화들이 교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비록 우리가 주요 교리들을 새로운 로마 카톨릭 역본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교리들이 항상 희석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다! 예수님의 대속(代贖)의 피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피’(blood)라는 단어를 빼 버린다 해도 가르칠 수 있다. 피로 인한 대속의 교리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위험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중요한 교리를 30 군데에서 가르친다면

『신미국표준역』은 단지 20 군데에서만 가르친다. 그다음에 나오는 ‘더 새롭게 향상된 번역판’에서는 단지 3-4 군데에서만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한 군데에서만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단 한 군데에서만 발견되는 이 ‘주요 교리’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새로운 개종자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이 새로운 역본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교리들은 이들이 이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배워 온 것들이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희석된 성경으로부터 그런 순수 교리들을 배울 것인가? 심지어 단 한 두 구절만이 가르치는 것을 ‘주요 교리’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했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시리라고 믿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교리들을 증명할 성경이 없다면 예수님은 단지 인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역본들에서는 피도 빠지고 주님도 빠지고 재림도 희석되고 기타 많은 핵심교리가 빠지거나 희석되어 버렸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새로운 역본들은 그것들의 창시자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신념 모두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셈이다.

학자들의 신용 사기

많은 크리스천 교육자들(특히 학자들)은 오늘날의 학문이 제임스 왕 시절의 학문보다 더 위대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시간이 갈수록 모든 일이 더욱더 나빠진다고 가르친다.’ 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교육만은 예외라고 외칠 수 있을까?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배교의 표적들

을 많이 본다. 이 표적들은 세계 경제 체제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 교육 체제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 한편 이런 표적들은 이전에는 성경에 충실했던 기독교 집단의 배교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때는 세상과 분리된 많은 크리스천 대학들이 이제는 타락하여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말세의 표적을 확인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학문만큼은 이 같은 ‘악화 일로의 과정’을 피해 왔다고 믿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참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리석은 믿음이다.

제임스 왕 시대에 참으로 학자다운 학자였던 『킹제임스 성경』번역 위원회 위원들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그리고 기타 새 역본 번역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힘이 있었고 반로마 카톨릭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다루는 필사본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굳게 믿었다. 제임스 왕에게 바치는 글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내외에서 교황의 추종자들은 저희를 모함할 것이며 또한 저희에게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지와 흑암의 상태로 가두어 놓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부족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희는 자기들의 길을 가며 자기들이 만든 것 즉 모루 위에서 망치를 두들겨 만든 것만을 좋아하는 자만심으로 가득한 형제들에 의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부족한 도구’로 생각했다. 『킹제임스 성경』번역자들의 말과 한 번도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는 비밀 단체 ‘록크맨 재단’의 자부심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이번에 번역을 한 사람들은 『미국표준역』(ASV)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증진시켜야 한다는 확신에 찼다.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1901년의 『미국표준역』이 세계 무대에서 빨리 사라지게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났듯이 이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났다. 후세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록크맨 재단’

은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이 숭고한 업적을 구해 낼 것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남겨 둘 것 그리고 지나간 시대가 요구했던 그런 형태로 그 일을 행하는 것 등이 시급한 일이라고 느꼈다. 이제 일반 대중은 『신미국표준역』(NASV)의 유용성, 가치, 필요성 등을 깨달아 감사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성경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드러난 진리를 명쾌하고도 정확하게 번역해 준 데 대해 만족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함께 이 성경을 출간하는 바이다.[196]

베일에 가려진 ‘신비의 록크맨 재단’은 자기들이 우리에게 대단한 봉사라도 한 것처럼 믿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무지한 일원’인 우리가 자기들의 ‘명쾌하고 정확한 번역’에 대해 감사하리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슈퍼 섹’ 제조업자들에게 감사하는 것만큼만 록크맨 재단에게도 감사할 뿐이다. 사실 그들의 제품 즉 ‘슈퍼 섹’과 새 역본은 선전 문구만 번질번질하지 질에서는 모두 저급이다.

진정한 학식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 역사상 ‘종교적으로 가장 순수했던 막간극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기간’에 번역되었다. 다시 말해 이 성경은 영국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내던져 버린 후에 또한 영국 국교회의 배교가 이루어지기 전의 짧은 기간에 출판되었다. 한편 이 성경은 그 당시 청년기에 있던 영어가 순수함에 있어서 최고조에 달해 있던 시대에 번역되었다. 맥클루어 박사는 존경받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묘사했다.

그 사람들의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의해 그들은 좋은 시기에 그 일을 수행했다. 그 당시에는 복합어인 영어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어나 동양어 그리고 랍비들의 교훈에 관한 연구가 그 시대 이전이나 이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영국의 신학자들이 이 독특한 학문 분야를 그 당시처럼 그렇게 많이 연구한 적은 없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 그 사람들의 특성과 학력을 스케치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지금 이 시간 대영제국과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과 같은 그 위대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학식과 경건함에서 그 번역자들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동일한 수의 성직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실로 그런 능력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명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현재 어떤 한 크리스천 교파나 혹은 전 크리스천 교파들로부터 그 저명한 사람들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확신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번역자들을 소집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자칭 ‘향상된 새 역본’이라는 것들이 세상에 그 위용을 과시하려 했으나 크리스천 대중들은 그것들 모두를 완전히 경시해버렸다.[197]

맥클루어 박사가 이미 언급한대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참가한 학자들의 진정한 학식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원들 개개인의 특성을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에 소개되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약전(略傳)은 그의 뛰어난 저서 『부활된 번역자들』(*Translators Revived*)에서 주로 인용한 것이다.

앤드류스

웨스트민스터의 일원이었던 앤드류스(Lancelot Andrews) 박사는 어학 능력으로 매우 유명했다.

일 년에 한 번 부활절에 그는 부모님과 같이 한 달 정도를 지내곤 했다. 이 휴가 기간에 그는 낯선 언어를 배울 만한 스승을 찾았으며 이런 식으로 그는 몇 년 후에 유럽의 현대 언어 대부분을 익히게 되었다.[198]

그는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의 설교 능력을 갖춘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강적이었다. 그의 돋보이는 재능으로 인하여 그는 곧 강력한 후원자들을 얻게 되었다. 헌팅톤의 백작 헨리는 그를 영국의 북부로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그는 설교와 토론을 통해 많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을 개종시키는 일을 했다.[199]

설교자로서 앤드류스 감독은 그가 살던 시대에 대단히 유명했다. 그는 ‘설교자들 가운데 스타’로 일컬음을 받았다.[200]

앤드류스 박사는 또한 기도의 위인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그는 날마다 개인 기도 혹은 가족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떤 이들은 앤드류스의 예배로 자기들의 일과를 마치기를 원하곤 했다. 그는 ‘기도를 잘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는 루터가 말한 진리를 입증한 사람이었다.[201]

그는 능력 있는 설교가요 기도의 용사였지만 결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만함을 보이지 않았다.

이 훌륭한 감독은 손님 대접하기를 매우 좋아했으며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더욱 극진했다. 그의 만찬은 너무나도 풍성해서 ‘윈체스터에 계신 나의 주께서는 일 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라고 말할 정도였다.[202]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그의 능력을 보자.

사실 우리는 성경 번역자로서 그의 자격이 어떠한지를 아는 데 주로 관심이 있다. 그는 지금까지 ‘매우 거룩한 사람’, ‘놀랄 만한 학생’이라는 별명을 받았다. 한 유능한 판사는 그를 가리켜 ‘학문의 넘을 수 없는 심연’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상은 이 사람이 공부하는 비결을 알기를 원했다. 로체스터 주교인 버크리지 박사(Dr. Buckridge)가 주도한 그의 장례식 설교에 의하면 앤드류스 박사는 15개 언어에 정통했다고 한다.[203]

오버롤

오버롤 박사(Dr. John Overall) 역시 또 한 명의 위대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였다. 그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제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605년 한 카톨릭 교도가 의사당의 지하실에 화약을 장치하여 제임스 1세 및 의원들을 살해하려고 한 ‘건파우더 음모 사건’의 주도자인 예수회 회원 가넷의 교수형에 참석했

다. 로마에 대해 반감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개인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가넷을 격려했다.[204]

초대 교회 교부들에 대한 지식 때문에 오버를 박사는 번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만일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면 요한 일서 5장 7절과 같은 구절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철학자들이 이 구절의 사본적 증거가 빈약하다고 비난했으나 이 구절은 교부들간에 상당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 논쟁이 되는 이 구절은 성경 본문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 ‘사도 요한의 쉼표’(Johannine Comma)로 널리 알려져 있다. 힐즈 박사는 이 구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다.

주후 4세기경의 스페인 주교로서 ‘마술 죄와 이교도 죄인’이라는 이유로 맥시머스 황제가 385년에 참수형에 처했던 프리실리안과 그의 주요 적수이자 고발자인 클라루스의 글 속에 처음으로 ‘사도 요한의 쉼표’가 아무런 논쟁 없이 나온다. 또한 몇몇 정통 아프리카 저자들도 주후 493년부터 534년까지 북 아프리카를 통치하면서 열광적으로 아리우스의 이단 교리를 좋아했던 반달족에 대항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 ‘사도 요한의 쉼표’를 인용했다. 한편 대략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의 카시오도루스 역시 이 구절을 인용했으며 주후 5, 6세기경의 라틴 필사본인 ‘Y’ 과 또 오래된 라틴어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스펙쿨럼’이라는 논문에서도 이것이 발견된다. 이 구절은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 원본에는 없었으나 주후 800년경에 ‘구 라틴 필사본’으로부터 『제롬의 별게이트』 본문 안으로 들어왔다. 한편 후기의 많은 별게이트 사본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성경인 『제롬의 별게이트』 클레멘틴 판에서도 이 구절이 발견되었다.[205]

또한 주후 225년에 키프리안도 ‘사도 요한의 쉼표’를 인용했는데 이것은 유세비우스가 『바티칸 사본』을 저술하기 175년 전의 일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오버를이 기여한 바가 매우 컸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실 교부들의 증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조사하여 번역에 반영한 ‘현대판 새 역본’은 단 하나도 없다.

사라비아

또 다른 번역자였던 사라비아(Hadrian Saravia) 박사는 학식이 있으면서도 매우 복음주의적이었다. 맥클루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회는 선교사 같은 형식으로 그를 건지와 저지 섬에 파견하였다. 그는 그곳에 파견된 첫 번째 프로테스탄트 목사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쓴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일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그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그곳에 심었다. 그곳에서 그는 복음 전파자로서 그리고 엘리자베스 대학이라 불린 새로 설립한 학교를 경영하는 경영자로서의 이중 능력을 발휘했다.[207]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참으로 헌신한 군사였으며 로마 카톨릭 주의를 계속해서 반대한 사람이었다. 1611년에 그는 예수회에 속한 그렛서에 대해 교황의 최고권을 반박하는 논문을 출판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모든 종류의 문학 및 특별히 몇몇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전해진다.[208]

레이필드

레이필드(John Laifield) 박사는 독특한 재능을 지닌 또 한 명의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였다. 그는 ‘건축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으며 특히 유대인들의 장막과 성전의 구조에 관한 한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다.[209]

타이

타이(Robert Tighe) 박사는 ‘훌륭한 본문 학자요 심오한 언어학자 유명했다.’ [210]

베드웰

베드웰(William Bedwell) 박사는 대단히 특출한 동양어 학자였다. 그의 비문에는 ‘동양어에 관한 한 그는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박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1612년 앤트워프에 있는 라펠렌기우스 출판사에서 아라비아어로 된 사도 요한의 서신들을 라틴어 4절판으로 출판했다. 그는 또한 많은 아라비아어 필사본들과 수많은 주석 그리고 그것들을 인쇄하는 폰트들을 캠브리지 대학에 남겨 놓았다. 아라비아어 연구에 대한 그의 명성은 대단했고 그 당시 매우 평판이 높은 동양어 학자 어페니우스(Erpenius)가 1606년 영국에 거주했을 때 그 역시 베드웰에게서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사실 유럽에서 아라비아 언어와 문학을 재생시키고 상당히 증진시킨 선구자라는 명예는 어페니우스보다는 베드웰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그는 또 다른 유명한 동양어 학자였던 포크 박사의 스승이었다.[211]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동계 언어’ 그리고 ‘셈족어’와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나 어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라비아어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어떤 학자들은 제임스 왕 시대의 번역자들보다는 우리 시대의 번역자들이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왔다. 그러나 베드웰과 다른 이들이 ‘성문학 비평’의 넓은 분야 중 이 부분에서만은 완전히 정통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212]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일 이외에도 베드웰 박사는 그의 시대에 몇몇 다른 공헌을 남겼다.

베드웰 박사는 대주교 레이드의 필사본 가운데 하나인 페르시아어 사전 편집 작업을 착수했고 옥스퍼드에 있는 보델리안 도서관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소장하고 있다. 1615년에 그는 『마호멧과 코란의 협잡에 대한 폭로』라는 책을 출판했으며 그가 지은 『터덜터덜 걷는 아라비아인』이라는 책자는 그 책에 첨부된 것이다.

베드웰 박사는 수학적 연구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기하학 연구를 위해 ‘건터의 비례자’와 비슷한 이른바 ‘베드웰의 자’라 하는 자를 발명했다.

베드웰이 죽은 뒤 그가 소지한 많은 사전 필사본은 캐스텔 박사가 수행하던 어마어마한 작업인 『7개의 언어 사전』의 편집을 위해 캠브리지 대학에 기증되었다.[213]

라이블리

라이블리(Edward Lively) 박사는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 중 한 명이며 동양어에 뛰어난 그의 능력에는 많은 신뢰가 따른다.’는 평가를 받았다.[214]

쉐더톤

쉐더톤(Lawrence Chaderton) 박사는 로마 카톨릭 가정에서 자랐고 그의 가족들은 그가 변호사가 되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그는 런던으로 갔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청교도회에 참여하게 되었다.[215]

그는 스스로 공부하여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에 익숙하게 되었고 그 언어들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다. 더욱이 그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수많은 랍비들의 글을 부지런히 조사했다.[216]

쉐더톤 박사는 103세까지 살았던 능력 있는 설교자였다. 노년에 설교 초빙을 받은 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두 시간 동안 회중에게 설교한 후 잠시 중단하고는 ‘이제 저는 여러분이 참아 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더 이상 누를 끼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온 회중이 이구동성으로 ‘제발 계속해 주세요!’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은 사실로 인해 감사하며 훨씬 더 오랫동안 설교를 할 수 있었다.[217]

맥클루어 박사는 현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학식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를 숙고하게 한다. ‘현대 성도들 역시 설교다운 설교

를 듣기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전해 준 사람들의 설교를 과연 어디에서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딜링햄

딜링햄(Francis Dillingham) 박사는 원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이야기하는 공적 토론에 참석하곤 했다.[218] 또한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적극적 행동을 취한 또 한 명의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였다. 그는 교부들로부터 취한 『크리스천 신앙입문서』를 출판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과 기타 관점들을 다룬 다양한 논문들을 내놓았다.[219]

해리슨

해리슨(Thomas Harrison) 박사는 박식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지식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돕기 위해 발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실 그의 능력은 켐브리지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의 부학장의 임무에서도 잘 나타났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어법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그 대학에서 이러한 언어들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의 실력을 검사하는 주시험관 중 한 사람이었다.[220]

하딩

하딩(John Harding)은 열심 있는 학자였다.

성경 번역을 돕기 위해 선정되었을 때 그는 13년 동안이나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친 왕립 교수였다. 수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성문학’을 연구하던 때에 그런 위치에 올랐다는 사실은 하딩 박사가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음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221]

레이놀즈

레이놀즈(John Reynolds) 박사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웨더통 박사처럼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으며 청교도가 되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회에서 그의 위치와 그의 인품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전 영역을 탐구하여 그 주제에 대해 정통해지기로 결심한 후 원어 성경을 기록한 말들을 가지고 성경 연구에 몰두했으며 그리스와 라틴 교부들의 책들과 교회의 모든 고대 기록을 읽었다.[222]

자신이 예전에 몸담았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의 공격적 성향은 다음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1578년경 로마 카톨릭 광신자인 하트는 영국의 모든 학자에게 공개 토론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추밀원 하원 중 한 사람의 간청으로 인해 레이놀즈는 그를 만났으며 몇 차례의 논쟁 끝에 그 로마 카톨릭 챔피언은 즉시 논쟁에서 쫓겨났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골리앗으로 여겨지던 유명한 추기경 벨라민은 그 도시에 있던 영국 신학교의 신학 교수였다. 그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설교하면 그것을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레이놀즈 박사에게 보내곤 했다. 그런데 레이놀즈 박사는 간혹 그 내용을 옥스퍼드에서 공개적으로 공박했고 그 잘못을 밝혔다. 그래서 벨라민의 저서들은 출판되기도 전에 반박을 받곤 했다.[223]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대한 능력으로 인해 그의 이름이 번역자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사실 그것은 현명한 일이었다. 다음은 그의 임종시 기록이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저 유명한 자신들의 적(레이놀즈 박사)이 프로테스탄트

로서의 믿음을 철회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 같은 소문을 듣고 괴로워했으나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만 남겼다. ‘이것은 설교나 책으로 내가 평생동안 가르친 신앙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만세에 증거하고자 함이다.’ [224]

킬비

킬비(Richard Kilby) 박사 역시 번역자의 위치에 설 만한 사람이었다. 『킹제임스 성경』 출판 직후 그의 생에서 발생한 한 사건은 그의 사람됨됨이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자만에 찬 학자들’이 하나님의 책에서 한 단어라도 바꾸어 버리려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먼저 독자들에게 이 사람 킬비 박사가 학문과 지혜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며 또한 히브리어 비평에 뛰어나서 이 대학에서 그 분야의 교수였음을 말해야겠다. 또한 그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제임스 왕이 성경 번역 위원회의 일원으로 지명했다. 킬비 박사와 샌더슨은 빈번히 대화를 나누었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사랑했다. 한 번은 킬비 박사가 더비셔에 여행하게 되었고 샌더슨도 그 일행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일요일에 그들은 박사의 친구와 함께 휴식하며 그들이 거하던 교구의 교회에 가게 되었다. 킬비 박사 같은 청중이 들으리라고는 예상도 못 한 채 그곳의 젊은 설교자는 설교에 할당된 시간의 대부분을 최근에 나온 번역 즉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몇 단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데 사용했고 또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단어들을 다른 식으로 번역해야만 한다고 청중에게 말했다.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그 설교자는 박사의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았다. 거기에서 박사는 그에게 설교 시간에 좀 더 유익한 교리를 설교해야 하며 또 번역에 대한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청중에게 들려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열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그녀 다른 번역자들이 생각한 대로 그 구절이나 단어를 번역해야 하며 그리고 지금 인쇄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옳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225]

스미스

스미스(Miles Smith) 박사는 『킹제임스 성경』 서문을 담당한 사람이었다. 이 서문은 현재 출판되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인쇄되지 않는다. 그는 갈대아어, 시리아어, 그리고 아라비아어의 전문가였을 뿐 아니라 그리스와 라틴 교부들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이디오피아어에도 그러했다.’ [226]

새빌

새빌(Henry Saville) 박사는 그리스어와 수학에 관한 지식으로 유명했다. 그는 말솜에 대한 지식과 언어에 능통한 교육가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헨리 8세의 통치 기간에 그녀의 그리스어와 수학 선생이 되었다.[227] 맥클루어 박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는 그리스 교부들 중 가장 유명한 크리소스톰의 전집을 처음 편집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228]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학식에 관해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쓸 만한 여백이 없다. 이 사람들의 생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나는 맥클루어의 저서 『부활된 번역자들』을 추천한다. 이 사람들은 교부들의 본문들을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본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은 원문의 사본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외의 다른 증거들도 면밀히 검토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은 현대 번역자들이 사용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상아탑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도 인식해야만 한다. 이들은 높은 교육 수준 못지않게 설교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위대한 영적 학문적

높이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아직도 더 많이 알려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위해 쓰임을 받는 부족한 도구’ 라고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큰 교훈을 준다.

개정된 학식

지금부터 우리는 『개정표준역』(RSV)의 번역자 몇 사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이 번역자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미국표준역』이나 『신국제역』과 같은 역본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밀 때문이다. 『신미국표준역』을 출판한 ‘록크맨 재단’은 익명으로 남아 있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누군가가 『개정표준역』의 번역자들에 대해 살펴보려 해도 번역자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이다.

『신국제역』 즉 NIV의 번역위원회 또한 익명이다. 사실 우리는 옛날 서부를 개척하던 시절의 장터에서 ‘뱀 기름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팔던 상인들’의 말과 같이 전혀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그들의 ‘학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번역자들의 이름이 알려지면 그들의 학식이나 인품이 드러나 곤욕을 치를 것이 분명하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 곧 번역 위원회나 뱀 기름 상인들이 다 ‘판매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성경 필사본에 관해 『개정표준역』번역자들이 갖고 있던 확신이 웨스트코트, 호르트, 네슬레, 록크맨 재단, 뉴스코필드 성경 편집위원회, 그리고 성경 변경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미국 전역의 많은 신학 대학 교수들 및 목사들의 확신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보편적 본문’ 보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이 더 신뢰할 만

하다고 믿고 있다.

세 번째로, 이 같은 로마 카톨릭 필사본에 대한 잘못된 편에 때문에 1881년 이래로 나온 모든 현대 역본들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영국개역성경』(RV)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킹제임스 성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 역본들은 『영국개역성경』과 똑같이 로마 카톨릭 필사본들을 따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필사본 집단은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의 ‘국지적 본문’으로서 『킹제임스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카톨릭 본문은 하나님의 ‘보편적 본문’을 대체시키려고 사탄이 스스로 개조하여 퍼트린 본문이다.

『신미국표준역』과 같은 모든 현대 역본들은 1952년판 『개정표준역』(RSV)의 개정판이고 RSV는 1901년의 『미국표준역』(ASV)의 수정판인데 이 ASV는 원래 『미국개역성경』(*American Revised Version*)으로 판매되었다. 다시 말해 ASV는 1881년의 『영국개역성경』의 미국 판인 것이다.

굿스피드

굿스피드(Edgar Goodspeed)는 『개정표준역』(RSV) 위원회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자신의 주장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몸을 내던진 사회 개혁가 정도로 보았다. 굿스피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도 청년 예수는 나사렛과 및 그의 고향에 만연돼 있던 유대 종교의 형태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 같다. 이 같은 불만이 싹트던 시기에 그는 이것에 대해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느꼈음에 틀림없다.[229]

굿스피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는 자신의 사역에서 그다음 단계의 문제에 직면했다. 그는 아무 보람도 없이 갈릴리의 한 귀퉁이에서 이름도 없이 죽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욱 뱃심 좋은 계획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며 그들에게 공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운명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감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죽음을 절대로 잊히지 아니할 어떤 위대한 것으로 만들고 끝날까지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 일을 행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230]

굿스피드 또한 웨스트코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에 대해 교묘히 둘러대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제 5,000명을 먹인 사건에 대해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자.

그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복한 뒤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빵 조각을 나누어 주게 했다. 그는 또한 물고기 두 마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다 먹고 배불렀다. 자기와 및 자기 제자들이 가졌던 것 전부를 손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의 본보기가 아직까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을 감동시켰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적어도 그가 했던 일 정도는 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의 본을 따랐다. 그는 그 방법을 단순히 보여 준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231]

굿스피드는 창세기를 가리켜 ‘기껏해야 동양의 말 잘하는 사람의 작품’이라고 불렀다.[232]

브루워

또 다른 위원인 브루워(Julius Brewer)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에 나타나는 시대와 인물들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233]

캐드베리

캐드베리(Henry Cadbury) 역시 성경개정위원회의 또 다른 위원이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기를 좋아하는 의로운 인간’ 일 뿐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 과장된 찬사를 많이 보내곤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동양 세계의 특성이다.[234]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심리 상태라면 그것은 결코 유용한 것이 못 된다.[235]

웨스트코트와 마찬가지로 캐드베리는 사회주의자였으며 그래서 웨스트코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틀 속에 맞추어 넣으려고 했다.

예수의 복음은 간략히 말해 사회주의 복음이었다.[236]

보위

보위(Walter Bowie)는 구약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왔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며 어느 정도 전설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237]

또한 야곱이 천사와 싸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 말 즉 창세기 32장 31절을 기록한 사람은 너무나 오래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를 기록한 것인지 전설을 기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238]

보위는 모세가 본 불타는 가시덤불의 기적을 믿지 않았다.

어느 날 모세는 꿈을 꾸었다. 사막의 아른아른 빛나는 열기 속에서 동쪽 태양의 화염 아래에서 그는 불에 타는 듯한 숲을 보았으나 그 숲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239]

크레이그

크레이그(Clarence Craig)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어떠한 정통 복음도 예수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묘사하려 하지 않았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단순한 사실은 여러 가지 설명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육체의 부활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240]

크레이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웨스트코트의 견해를 지지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그가 오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희망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신앙 자체이다.[241]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크레이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수 없다고 믿는 현시대의 ‘독실한 크리스천 학자들’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는 책에 자신의 계시를 기록하셨다 하더라도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 없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하셨음이 확실하다. 성경은 단지 계시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견해이다.[242]

그랜트

그랜트(Frederick Grant)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믿음에 동의했다.

현대인들은 만일 기도가 실제적이고 효과가 있으려면 커브가 진저 너머의 도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볼 수 없을 때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과연 우리가 이미 죽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 있고 따라서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243]

스페리

스페리(Williard Sperry)는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복음을 아주 싫어한다.

이 말들 중 몇몇이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복음서를 강조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복음서가 예수의 말씀에 대해 너무나 문자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이다.[244]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이 예수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가장 강력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자유주의자들이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을 더 많이 공격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윈

어윈(William Irwin)은 유대인 대언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부풀렸다고 믿었다.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닥쳐온 재앙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힘들고 고통스러

운 사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시대의 진보와 발을 맞추기 위해 자기들 시대의 역사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들의 메시지를 개정하고 또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아시리아 사람들과 바빌론 사람들은 이 대언자들이 궁극적으로 야훼(YAHWEH)를 전 우주의 신으로 만들어 버릴 때까지 때때로 야훼의 개념을 바꾸도록 강요했다.[245]

제임스

제임스(Fleming James)는 오늘날 미국의 세속적인 대학 교수만큼이나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성경의 처음 다섯 책인 모세 오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자들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 생각을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우세한 견해는 네 개의 서로 달리 짜 맞춘 이야기의 실들이 이 다섯 권의 책을 통해 합쳐져서 현재의 즐거리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 중 두 개는 역사로서 오래되어 신뢰할 수 있으나 다른 두 개는 후대에 발생했고 또 후대의 생각으로 채색되었기 때문에 거의 역사라고 부를 수 없다.[246]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대한 호르트의 믿음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나는 혼자서 공관복음서의 저자 개개인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덧붙인다면 이런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그 저자들이 최소한 한 가지의 공통된 출처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은 그들의 비평에 있어서 또 다른 요소가 될 것이다.[247]

또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의심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정말로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학자들은 그 이야기가 모세와 그 백성을 감동시킨, 어느 정도는 놀랍고 거짓말 같기도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야훼(YAHWEH)께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중재하셨음을 그들이 믿었다는 데도 동의한다. 이 집트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248]

열왕기하 1장 10절의 엘리야의 행동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엘리야를 체포하도록 보냄을 받은 군사들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단지 전설일 뿐이다.[249]

버로우즈

버로우즈(Millar Burrows)는 다음과 같은 말로 『개정표준역』(RSV) 번역자들의 진정한 신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 준다.

우리는 성경이 성스러운 권위로서 우리가 믿고 행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250]

일찍이 우리는 영국 성공회 출신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두 박사의 신념을 공부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서로 잘 협조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본문을 채택하기 위해 하나님의 본문을 완벽히 거부한 사실을 살펴보았다. 어떤 이들은 ‘비록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이었지만 오늘날의 『신미국표준역』(NASV)이나 『신국제역』(NIV)같은 현대 역본들을 번역한 이들은 모두 보수주의 학자들이었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역본들을 옹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사본들을 가장 많이 신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해 오늘날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전심으로 1881년과 1954년 성경 개정위원회의 ‘자유주의 번역자들’의 신념에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러한 주장은 사실 공허한 것이다. 그들 모두는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 등에서 발견된 ‘로마 카톨릭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의 ‘보편적 본문’보다 더 낫다고 믿었다. ‘보수주의 학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위대한 가르침, 진정

한 영성, 그리고 성경적 신념으로 잘 조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안에서 사용한 좋은 도구였다. 그들은 결코 새로운 계시를 쓰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리고 이같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시편 12편 6-7절에서 약속하신 것이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외경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초기판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을 포함했다는 사실을 들어 흠집을 내려 한다.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그 외경들을 영감받지 않은 것으로 여긴 일곱 가지 이유를 나열하려 한다.

외경이라고 번역된 ‘어포크라이퍼’(apocrypha)라는 말은 원래 ‘숨겨졌다’는 뜻이 있었으나 주후 450년경부터는 구약 시대의 ‘정경이 아닌 책들’을 의미하게 되었다. 외경 문제의 핵심은 로마 카톨릭 성경 안에 포함된 몇 가지 책이 과연 성경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1. 외경의 성격

외경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던 약 400년간의 기간에 기록된 15개의 ‘유대인들의

문학작품'이다. 이 중 어떤 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비논리적이고 그 저자를 알 수 없으며 또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나 권위를 받았다는 주장도 없다. 또 어떤 것은 그 내용이 전설적이며 공상 만화 같기도 하다. 이 중 몇 개는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를 금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현존하는 외경은 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2. 외경의 책들

다음은 15개 외경의 명단이며 그 이름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한글공동번역』에서 취했다.

외경 명단

	외경 이름	연대	내용
1	솔로몬의 지혜서	주전 30년	교훈
2	집회서	주전 132년	교훈
3	토비트	주전 200년	종교 소설
4	에스드라상(*)	주전 150년	역사, 전설
5	마카베오상	주전 110년	역사
6	마카베오하	주전 100년	역사, 전설
7	유딧	주전 150년	로망스 소설
8	바룩	주후 100년	예언
9	예레미야의 편지	주전 200년	예언
10	에스드라하(*)	주후 100년	예언
11	에스텔	주전 130년	전설
12	아사라의 기도, (혹은 세 아이의 노래)	주전 100년	전설

	외경 이름	연대	내용
13	수산나	주전 100년	전설
14	벨과 뱀(원래는 벨과 용)	주전 100년	전설
15	므낫세의 기도(*)	주전 150년전설	

(*) 천주교에서도 이 책은 외경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외경의 수용

- ㉠ 유대인들은 결코 외경을 자기들이 읽는 구약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프로테스탄트 중 어떤 이들은 외경이 삶의 예와 예의범절 등을 위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여긴다.
- ㉢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위의 표에서 '에스드라상하서'와 '므낫세의 기도'를 뺀 나머지 12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므로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고 51권이라고 주장한다(참고로 『한글공동번역』에는 '예레미야의 편지' 역시 빠져 있다.)

4. 외경을 포함하는 사본들

- ㉠ 『70인역』 : '에스드라하서'를 제외한 나머지 책 포함
- ㉡ '알렉산드리아 사본' (A 코덱스) : 위의 외경 외에도 '마카베오 3서 및 4서' 포함
- ㉢ '바티칸 사본' (B 코덱스) : '마카베오상하서' 및 '므낫세의 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포함
- ㉣ '시내 사본' (알레프) : 여러 권 포함
- ㉤ '체스터 비티의 파피루스' : '집회서' 일부분 포함
- ㉥ '사해 사본' : 그리스어로 쓰인 몇몇 외경 포함

5. 트렌트 공회

외경은 1546년 4월 8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트렌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경’으로 채택되었다. 트렌트 공회란 주후 1545-1563년 사이에 연속적으로 세 번 열린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회를 지칭한다. 이 공회가 열리기 28년 전인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을 뒤엎으려는 ‘반종교 개혁’의 중심 기구가 바로 트렌트 공회였으며 주로 예수회(Jesuits, 제수이트)가 이 모임을 주도했다. 이 공회에서 교황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정하여 공포하였다.

- ㉠ 카톨릭 교리의 정의
- ㉡ 카톨릭 교리의 개혁
- ㉢ 이단의 말살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운 표어 중 하나는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e)였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 역시 이와 똑같은 구호를 외치기 위해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구약 성경에다 외경을 추가했다. 그리고 나서 트렌트 공회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책들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해왔던 것처럼, 모두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읽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외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성경적인 카톨릭 교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연옥: 마카베오하서 12장 39-45절
- ㉡ 구제(즉 자선 행위)에 의한 구원: 집회서 3장 30절

외경에는 이외에도 자살을 인정한다든지(마카베오하서 14장 43-46절), 비참한 노예제도를 인정한다든지(집회서 33장 24-28절), 윤

회(솔로몬의 지혜서 8장 19,20절)를 인정하는 구절이 있으며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몰래 죽이거나 마술을 통해 신비주의를 행하는 것 등을 인정하는 구절이 있어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믿는 성경과 상치된다.

트렌트 공회 이후 1582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펴낸 『두에랭스 역본』은 원래의 구약 성경 39권에다 위 표의 15개 외경 중 12개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트렌트 공회는 매우 교묘하게 외경을 포함시키는 일을 진행하여 외경 15권 모두를 포함시키지 않고 특히 에스드라하서를 뺐다. 왜냐하면 그 책의 7장 105절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6. 초기 영어 성경에 외경이 포함된 이유

초기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이유로 대개 외경이 포함되었다. 그 이유 중 첫째는 중세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대개 외경을 가치 있는 책으로 수용했기 때문이었고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경우에는 성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외경을 넣었든지간에 영어 성경에서 외경은 부록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정경이 아님을 밝히는 분명한 글과 함께 성경책에 포함되었다.

㉠ 『틴데일 성경』(주후 1525년)은 외경들만을 따로 떼어 내어 ‘영감 받지 않은 책들’임을 분명히 밝혔다.

㉡ 『커버데일 성경』(주후 1535년)도 『틴데일 성경』과 마찬가지로 처리했으며 아예 다음과 같은 설명을 곁들였다.

외경: 고대 교부들이 성경의 다른 책처럼 권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은 책들이며 또한 히브리 사람들의 정경에도 포함되지 않은 책들이다.

㉢ 『마태 성경』(주후 1537년)과 『태버너 성경』(주후 1539년)은 외경을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부록으로 넣었다.

④ 『킹제임스 성경』(주후 1611년)은 『비숍 성경』(주후 1568년)과 마찬가지로 외경을 부록에 넣었으나 1629년부터는 외경을 빼기 시작하여 1827년부터는 부록에서도 아예 삭제시켰다.

많은 이들이 ‘성경 안에 외경을 부록으로 넣었다.’는 것과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여 성경에 넣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혼돈에 빠져 있다.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성경 안에 외경을 부록으로 넣었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외경은 성경 안에 들어 있는 지도책과 마찬가지로 단지 참조 자료라는 것이다. 초기 영어 성경들의 경우가 거의 다 이리하다.

반면에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여 성경에 넣었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모두 78권으로 구성되었음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책의 목차에 아예 외경이라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외경이 모두 구약 성경 정경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발간하는 성경은 다 후자로 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Catholic Study Bible』이나 『New American Bible』 등을 살펴보기 바란다.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

성경에 외경을 부록으로 넣은 경우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경우
구약 성경 39권	구약 성경 51권
외경(부록)	신약 성경 27권
신약 성경 27권	부록이 없음.
외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분명히 뜻을 박았음.	부록이 없고, 대신에 외경이 구약 성경 중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구약 성경이 총 51권으로 구성됨.

7.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 ㉠ 이 책들은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하
한 번도 없다.
 - 요세푸스는 분명히 이 책들을 구약 성경에서 제외했다.
 - 주전 20년에서 주후 50년까지 살았던 필로 역시 이것들을
언급하거나 인용한 적이 없다.
- ㉡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 중 그 누구도 외경을 인용한 적이 없
다.
 -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이 마카베오하서 7장과 12
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 구절은 왕상
17:22와 왕하4:35를 인용한 것이다.
 - 유다서 14절이 외경인 에녹 서신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이 구절은 에녹의 말을 인용할 따름이며 분명히 성
령님께서서는 에녹이 한 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녹 서신
을 인용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어떤 이들은 딤후3:8이 외경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만 성령님께서서는 자신이 원할 때에 과거에 있었던 이집트
의 마술사의 이름을 언제든지 보여 주실 수 있으므로 이 구
절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야브네 공회에 모인 유대인 학자들은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다.
- ㉣ 대부분의 교부들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 ㉤ 외경의 어느 책도 스스로 영감 받았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 ㉥ 외경의 많은 책들이 역사적, 지리적, 연대기적 실수를 포함하
고 있다.
- ㉦ 외경의 많은 책이 성경 말씀과 모순이 된다.
- ㉧ 외경의 책들의 형식은 전설적이며 공상 만화 같다. 어떤 이야

기들은 매우 괴기적이며 마귀와 연관이 있다.

- ① 외경의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권위와 같은 뚜렷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모두 그리스어로 기록된 외경들은 — 라틴어로 현존하는 단 한 가지만을 빼놓고— 동양의 예의범절, 언어, 견해와 역사 등을 설명해 주는 ‘고대 문서’로서의 가치만을 지닐 뿐이다.[251] 결국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외경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지 부록으로 넣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스어 계임을 실행하다

하나님의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은 어떤 그리스어 단어들을 번역한 방법에 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자들은 분명히 주님과 그분의 성경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데 아주 민첩하다. 심지어는 매우 미미한 그리스어 관사조차도 문법적으로 더 정확한 번역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공격을 받는다. 사실 익명의 ‘록크맨 재단’ 같은 번역 집단은 지속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매우 고상하게 들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작업을 하는 학자들이야말로 자기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며 이를 위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실수’를 제거하는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사실상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없애고 자신들이 권위가 되려고 하며 또한 ‘성경 매매 사업’으로 큰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새 역본들’을 번역하여 판매하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 생각하기도

슬픈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신랄히 비판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들이 절대로 자기들의 작품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며 또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매우 싫어한다는 점이다.

그리스어 게임 반전되다.

논평에 있어서 버건과 같이 매우 과격하다고 널리 알려진 러크맨 박사는 거친 성격에도 불구하고 필사본의 본문에 관한 한 독보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그의 몇 작품 속에서 그는 현대 번역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조사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면밀한 검사를 통해 새 역본들을 조사했다.

네슬레의 제 23판에 대한 그의 발견과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현대 역본들의 번역자들이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원문에 가장 근접하다는 전제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네슬레의 사본은 근본적으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사본과 동일하며 월켄슨 박사가 기록한 것처럼 한 마디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했다. 그들이 20년 간만 들어온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다음의 인용문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기초를 둔 것이다.

만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티센도르프가 『시내 사본』에 너무나 치중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한 『바티칸 사본』을 너무나 과대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252]

현대 역본의 번역자들은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것이라고 가정하며 이 사본

들의 우월성을 주장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들은 ‘보편적 본문’의 필사본들의 연대가 그 사본들의 연대와 비슷하며 또한 초대 교회의 교부들도 ‘보편적 본문’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또한 그들은 이집트가 순수한 사본을 만들기 위한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곳으로부터 오래된 사본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은 결코 순수한 본문이 될 수 없다.

현대 번역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매우 영성한 규칙에 근거하여 『킹제임스 성경』을 바꾸기 위한 논리들을 세운다.

1. ‘가장 오래 된 본문’이 최고다.
2. ‘다수 본문’이 최고다.

단 하나의 작은 문제를 제외하면 이 논리는 참으로 근사하게 들린다. 즉 ‘가장 오래된 본문’이 ‘다수 본문’과 충돌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경우에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가장 오래된 본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킹제임스 성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며 현대 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사본에 대해 가진 적개심을 그대로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은 현대 역본의 번역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보편적 본문’을 제거하기 위해 자기들의 번역 원칙을 깨뜨리고 번역한 예들로서 럭크맨 박사가 지적한 것들이다. 우리는 네슬레의 제23판의 본문 비평자료에 있는 각주들과 그것들의 출전들을 비교할 것이다. 검토를 위한 영어 역본은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이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신미국표준역』이다. 먼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인용할 것이며 그다음에 『신미국표준역』에서 인용할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단어, 단어들, 혹은 절에는 밑줄을 칠 것이다.

마가복음 1장 2절

『흠정역』 :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KJV: As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thy face, which shall prepare thy way before thee).

『신미국표준역』 :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NASV: As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Behold, I will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ce, who will prepare your way).

이 구절에서 『신미국표준역』은 ‘가장 오래된 본문’을 사용했다는 전제를 붙인다. 사실 ‘대언자 이사야’라는 구절은 주로 B 와 C 사본 및 『시내 사본』 등에 의해 대표되는 헤시키안 계열의 ‘국지적 본문’ 사본에서만 나타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절과 3절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2절에서 인용된 구약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잘 알다시피 그것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이다. 물론 마가복음 1장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것이다. ‘말라기서 더하기 이사야서’는 결코 ‘대언자 이사야의 글’과 같지 않으며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대언자들의 글’과 같다.

이처럼 ‘대언자들의 글’이라는 구절은 복음서에서 E, F, G, 그리고 H 사본들에 의해 대표되는 『공인본문』과 함께 W 사본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이 구절은 다수의 증거들 안에서 발견되며 『바티칸 사본』이나 혹은 『시내 사본』이 기록되기 150년 전인 주후 202년에 이미 인용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오래 된 것’ 대(對) ‘다수’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 두 개 중 어느 것도 단지 그들이 어떤 것을 혹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느

사본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어느 집단이나 사본이 ‘보편적 본문’과 같은가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집단이야말로 올바른 집단인 것이다.

사실 ‘국지적 본문’을 고수하는 록크맨 재단은 결점을 지닌 성경을 찍어 내고 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마가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대언자 이사야가 결코 기록한 적이 없으므로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라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또 누가 말라기서에서 따온 인용문을 감추려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 록크맨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말라기서의 인용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러한 것을 발견한다면 곧바로 마가복음 1장 1, 2절의 ‘네’(thy) 그리고 ‘너’(thee)가 말라기 3장 1절의 ‘나’ 즉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243]

다시 말해 마가복음 1장 1-2절과 말라기 3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 주는데 반해 현대 역본 번역자들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신미국표준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견고히 한다’고 주장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신미국표준역』안에서 자꾸 감추어지고 있다. 다행히도 익명의 록크맨 재단에 속한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입증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사실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 무려 1900년 이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셨다.

누가복음 24장 51절

『흠정역』 :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KJV: And it came to pass while he blessed

them, he was parted from them and carried up into heaven).

『신미국표준역』 :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그분께서는 저희를 떠나시니라 (NASV: And it came about that while He was blessing them, He parted from them).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가장 오래된 본문’ 과 ‘다수 본문’ 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모순으로 가득한 신비의 록크맨 재단은 『공인본문』과 A, B, C, E 사본들, 대부분의 다른 증거들, 모든 라틴 사본뿐 아니라 2세기의 파피루스 필사본 75번에 있는 ‘하늘로 올림을 받아 들어가셨다’ 는 구절을 빼 버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록크맨 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승천을 빼 버린 것일까? 그들은 『시내 사본』과 D 사본의 중요성에 그 근거를 두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독실한 크리스천 학자들’ 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규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지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여기에서 의원 누가는 자신이 먼저 쓴 글 즉 누가 복음이 예수님의 들려 올라가심을 기록함으로 끝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미국표준역』의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지 않고 여전히 올리브 산 위에서 계신다. 그래서 만일에 복음전도자 누가가 『킹제임스 역본』과 『신미국표준역』을 둘 다 검토할 수 있다면 곧장 『신미국표준역』이 자신이 먼저 쓴 글에 대해 사기를 치는 불량품이라고

폭로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성도 누가에게 충분히 유익이 된다면 이 시대의 나에게도 충분히 유익이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52절

『흠정역』 :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KJV: And they worshipped him, and returned to Jerusalem with great joy).

『신미국표준역』 : 저희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NASV: And they returned to Jerusalem with great joy).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라는 구절의 경우에 NASV의 번역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지해 주던 한 증인마저 잃고 만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52절의 경우에는 심지어 『시내 사본』조차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학식에 동의하는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구절을 삭제한 D 사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지하는 수천 개의 필사본에 대항하며 홀로 남게 된다.

선하고 독실한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한 그리스어 학자 에라스무스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높이는 자신의 본문을 대조하기 위해 가장 오래된 ‘다수 사본’을 대표하는 단 다섯 개의 사본만을 사용했으므로 그가 만든 본문이 가치가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바로 위에서 드러난 증거 때문에 이들의 조롱은 어느 정도 위선적이라 할 수 있다. 에라스무스에 대한 오해는 이 책의 부록에서 모두 말끔히 씻겨질 것이다.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여기에서 록크맨 재단의 성경 개약자들이 성경의 두 가지 주요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승천과 신성을 공격하기 위해 소수 중의 극소수인 사본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 사람들이 ‘나는 여전히 『신미국표준역』에서 이러한 교리들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른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킹제임스 성경』만큼 여러 곳에서는 아니라는 점이다. 권위를 부여받은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지하는 성경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흠정역』 :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KJV: Study to she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신미국표준역』 : 너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애쓰라(NASV: Be diligent to present yourself approved to God as a workman who need not to be ashamed, handling accurately the word of truth).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이들은 1611년에 성경 번역을 맡은 학자들이 원문의 그리스어를 정확한 뜻과 부합되지 않는 영어로 번역했다고 불평하곤 한다. 이 같은 불평으로 인해 현대 번역자들은 성실한 사람들처럼 보이며 그래서 그들은 결코 자기들이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을 비난한 것과 같은 똑같은 죄를 발견하게 된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바르게 나누어’ 라고 번역한 그리스어는 바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분석적 그리스어 사전』(*The Analytical Greek Lexicon*)은 원본에 쓰인 이 단어의 뜻이 ‘곧게 자른다’ 임을 보여 준다. 또한 NASV에서 ‘정확하게 다루어’ 라고 번역한 데 대한 그리스어의 증거는 전혀 없다. ‘다루다’ 라는 뜻의 그리스어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발견된다. ‘정확한’ 이라는 그리

스어 단어인 ‘doloo’는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NASV의 경우 이 두 단어를 모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용했는데 사실 이 단어들은 ‘바르게 나누어’로 정확하게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들과는 전혀 닮은 데가 없다. 이 점에 대해 록크맨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바르게 나누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지금까지 발견된 초서체와 영설체의 필사본들의 네 가지 계열에서 발견된다.[254]

이 점에서 우리는 네슬레의 그리스어 본문이 단 하나의 대체 본문조차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자연히 일어나는 질문은 ‘도대체 누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정확하게 다루어’로 읽기 원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어학적으로 정확한 번역’이라 불리는 『신미국표준역』의 서문에서 발견된다.[255]

록크맨 재단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애쓰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록크맨 재단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자화자찬도 이쯤 되면 문제가 된다.

이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야고보서 5장 16절

『흠정역』 :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KJV: Confess your faults one to another, and pray one for another, that ye may be healed).

『신미국표준역』 : 이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NASV: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so that you may be healed).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잘못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paraptomata’는 필사본 E, F, G, H, S, V, Y와 오메가 사본, 그리고 『공인본문』 계열의 나머지 사본들과 여러 가지 잔존하는 모든 증거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네슬레의 본문은 필사본의 권위도 없이 ‘잘못’ 대신에 ‘죄’ (taxamartias)를 끼워 넣었으며 록크맨 재단에 의해 잘못 인도된 사람들은 아무 증거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아마도 그 어두운 그늘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수의 예수회 회원들이 잠복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증거도 없는 대체품 본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하거나 혹은 학자답게 행동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제 다음의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보여 주려는 요지가 무엇인지 독자들은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9장 35절

흠정역 :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KJV: Jesus heard that they had cast him out; and when he had found him, he said unto him, Dost thou believe on the Son of God?)

『신미국표준역』 :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사람의 아들)를 믿느냐?(NASV: Jesus heard that they had put him out, and finding him, He said,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신미국표준역』 과 기타 ‘현대 역본들’을 옹호하는 보수주의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희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Theou’라는 그리스어는 필사본 E, F, G, H, S, V, Y, 오메가, 껌

타, 잔존하는 다수의 초서체 사본들, 잔존하는 많은 증거들, 그리고 모든 라틴 전통에서 발견된다. 반면에 ‘사람’이라는 그리스어 ‘anthropou’는 20세기에 사는 단 한 명의 그리스어 학자만이 지지하고 있다.

신비의 록크맨 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약탈하는 데 매우 민첩하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다. 이 점에서 록크맨 재단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개정표준역』의 ‘자유주의 학자들’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이들은 참으로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결코 이런 식의 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나는 참으로 기쁘다.

NASV는 결코 ‘하나님을 존경하는 번역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신미국표준역』의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신미국표준역』보다 최소한 한 군데 이상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높이고 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복음서를 저술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이 점에 대해 록크맨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을 정정하기 위해 만든 비평가들의 선언 중 하나는 ‘누구든지 작가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언어와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도 요한의 스타일에 익숙한 사람에게 수님께서 교리에 관한 믿음의 문제로 죄인을 다루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단 말인가? 과연 이것이 사도 요한의 특성이거나? 요한복음 어느 곳에서도 그런 특성을 찾아볼 수 없지 않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바른 해석이며 ASV, RSV, 그리고 모든 새 역본은 이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며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다.[256]

자신의 복음서에서 특히 교리적 믿음을 다루는 곳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더욱이 그 책의 문맥을 살펴보라.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무리들은 그분께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시키라고 외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요한복음의 특성과 문맥상 ‘하나님의 아들’이 올바른 번역이다. 예수님의 이 같은 진술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술로 인해 빌라도는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에 서둘러 돌아가 ‘네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요 19:8-9). 다시 말해 이방인 빌라도도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 단체인 록크맨 재단이 이런 점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위에서 단 몇 구절을 통해 현대 역본의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을 살펴보았다. 비록 성경 판매원이 ‘새 역본 가운데 어느 것에서나 근본 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할지라도 그런 역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킹제임스 성경』보다는 여전히 교리에 있어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반복하거니와 모든 새 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교리적으로 훨씬 더 약하다.

그렇다면 왜 신학교나 설교자들은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교리들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찾아보아야만 간신히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어려운 성경들을 사용하려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또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그분을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성경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성경은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인 것이다.

광고가 아닌 미덕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대대적인 광고 없이 출판된 유일한 성경임을 기억해야 한다. 『영국개역성경』, 『미국표준역』, 『개정표준역』, 『신미국표준역』, 『리빙 바이블』, 『현대인을 위한 복음』, 『신국제역』, 『뉴킹제임스역』 그리고 기타 다른 새로운 역본들은 다 대단한 광고 작전과 함께 출판되었다. 그 성경들을 번역하거나 출간한 이들은 학교에서, 설교단에서, 그리고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 실패했다. 아직 실패를 맛보지 않은 역본들 역시,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위조품

위의 마지막 진술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대해 사탄은 항상 여러 가지 거짓 진리를 제시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거짓 진리를 제시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하나님의 진리와 마귀의 위조품

하나님의 진리	사탄의 위조품	사탄의 궁극적 위조품
한 하나님	많은 신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다
한 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한 교회	많은 거짓 교회	최후의 한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	많은 성경 (NASV, NIV 등)	하나의 마지막 거짓 성경(?)

우리는 위의 표로부터 참되신 한 하나님(one God)이 존재함을 본다.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많은 거짓 신’을 제시한다. 사탄 자신도 결국은 ‘거짓 신’이다. 더욱이 우리는 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탄은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환난기에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된 단 하나의 참 교회를 갖고 계신다. 반면에 사탄은 오늘날 이 지구 상에 자기를 경배하기 위한 많은 모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환난기에는 최후의 사탄 교회가 로마(바빌론 제국)에 자리 잡게 되어 다시 한 번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단 하나의 성경에 보존하셨다. 그런데 사탄은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그가 최후의 사탄 성경 하나만을 가지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아마도 『뉴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불릴지도 모른다.

위의 표에서 우리는 지금의 교회 시대와 관련해서 ‘많은 위조품’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사탄의 궁극적 위조품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인 7년 환난기에 출현한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될 적그리스도(Antichrist)를 갖게 되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숭배할 ‘반성경’(Anti-bible)을 갖게 될 때가 오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 일은 환난기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경배를 받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높임을 받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표준역』 대실패

‘현대 역본들’을 팔기 위한 대대적인 대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새 역본들’은 다 실패했다. 『미국표준역』이 그중 한 예이다. 그 역본은 1901년에 출판되면서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할 역본이라고 선포되었다. 그러나 23년 후에 그 역본은 깨어졌고 종교통합운동을 추진하며 다원주의를 파급시키는 미국 국가교회협의회(NCC)에 그 판권이 팔렸다. 과연 이 성경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을까? 그렇다면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그 역본을 더 많이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았을까? 과연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이 『미국표준역』 위에 있지 않음이 확실한데 도대체 왜 록크맨 재단은 그 역본을 『신미국표준역』으로 소생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인가?

이 역본(NASV)의 제작자들은 『미국표준역』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또 증진되어야만 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시도를 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1901년의 『미국표준역』이 세계 무대에서 너무 빨리 사라지게 되었다는 좋지 못한 인식 때문이었다.(『신미국표준역』 서문에서)[257]

하나님께서 『신미국표준역』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데 왜 록크맨 재단은 굳이 그것을 원하는가? 만일 하나님의 복이 『미국표준역』에 있었다면 왜 그 역본은 단 한 차례의 미약한 부흥도 일으키지 못한 채 23년의 짧은 생을 마쳤을까? 또한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선전되고 있는 ‘더 나은 역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00년 동안이나 장수하고 있는 것일까?

『킹제임스 성경』만이 참 하나님의 성경이며 크리스천 학자들이 돕든지 안 돕든지 상관없이 그분께서 그 성경을 보존하실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다. 하나

님은 ‘보편적 본문’의 이 영어 성경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이며 어떤 근본주의자들이 ‘국지적 본문’에 기초를 둔 역본들을 추천하든지 상관없이 또한 어떤 규모의 대학이 그것들을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런 역본들을 무시하실 것이다. 또한 그 어떤 광고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완전한 영어 성경이 있느냐?’ 는 문제에 관해 기독교 내의 소위 보수적이라는 집단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치고 받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또한 현존하는 필사본들의 산지(產地)인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에 대해 성경에 입각한 조사를 해 왔다. 또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우리의 두 가지 기본 원칙과 그 증거들의 탄생지와 또 그런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얼마나 충실하냐는 관점에서 그것들 자체의 증언들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원수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편적 본문’을 없애기 위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노력과 목표를 검토했다. 과거에 보아 왔던 대로 이 조직체는 크리스천들과 그들의 성경을 없애 버리기 위해 무자비한 일을 해 왔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그녀(로마 카톨릭 교회)의 목표가 바뀌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본문 비평을 통해 ‘보편적 본문’을 성공적으로 폐기시키는 일을 주도해 온 두 사람 즉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삶을 관찰했으며 많은 형제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독실한 민주주의 학자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근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모두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로마 카톨릭 ‘국지적 본문’과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

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학식과 신앙심을 록크맨 재단과 및 기타 다른 현대 역본 번역자들이 그토록 흠모하는 1881년과 1952년의 역본 번역자들의 학식과 신앙심과 비교해 보았으며 그 결과 후자의 사람들이 매우 자유주의적이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가?’라는 관점에서 필사본들을 간략히 조사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고어들로 가득하다.’, ‘제임스 왕이 인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권위를 부여했다.’, ‘새 역본들을 옹호하는 좀 더 좋은 필사본이 있다.’ 등 하나님의 『킹제임스 성경』을 모욕하기 위해 불신자들이 늘어놓는 일반적인 빈정거림과 불평에 대해 성실히 답해 왔다.

결론은 무엇인가?

첫째로, 자신을 스스로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라고 부르는 크리스천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미워하는 진정한 적이 로마 카톨릭 교회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신학교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된 그들의 교과과정과 철학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설교자들은 매우 교묘히 움직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깨닫고 설교단에서 그리고 개인 연구실에서 ‘새로운 로마 카톨릭 성경 역본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둘째로, 이제 우리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거듭나서 성경을 믿는 학자들이었다.’는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서야만 한다. 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이제 크리스천들은 각성하고 그들과 및 그들이 성경에 관해 주장한바 죽음처럼 지루한 이론들을 마치 다윈과 그의 진화론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듯이 단호하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셋째로, 크리스천 설교자들과 교사들은 필사본들의 역사에 관해 자기들과 일치하지 않는 근본주의 형제들을 모욕하거나 혹은 파멸 시키려 하거나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대한 크리스천의 믿음을 파괴하려 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태도로 주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기독교의 근본주의 진영 안의 양편 즉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과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이 서로를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죄를 범했으며 그 결과 끊임없이 로마 카톨릭 교회만 기쁘게 해 주었다고 믿는다.

매우 슬픈 일이긴 하지만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형제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이 같은 공격에 대해 ‘불에는 불로’ 대항해 왔으며, 결국 이 일은 성경대로 믿으려 하는 근본주의 집단 내에 슬픈 분열을 낳았다. 사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잘못 선택한 적과의 거의 100년에 이르는 전투로 인해 양쪽이 입은 상처를 고치는 데에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경은 없다.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사탄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싫어하는 성경은 없다.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원문에 근접하게 역본도 없으며 읽기에 쉬운 성경도 없다.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명쾌히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은 없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책을 사랑한다. 내게 영어로 된 완전한 성경을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다. 나의 감사를 보여 주기 위해 나는 그 책을 읽고 믿고 배우고 암기하고 장려하고 옹호하고 사랑하고 지키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그 안에 있는 쌍점과 쉼표 하나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는 이탤릭체로 된 단어나 장이나 절 표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을 정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다면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게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나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계시므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 역본에 근접하는 다른 역본은 지금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어로 보존되었고 또한 그것이 내 손에 있으므로 내게는 이 책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제 내 마음속에서 이 책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롤로프(Lester Roloff)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다시 쓸 필요가 없고 단지 다시 읽을 필요만 있다!’

이 훌륭한 책에 관해 성경 스스로가 말하는 것 이상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

시편 12편 6-7절과 마태복음 5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 12:6-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 점 일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마 5:18)

오 주님이시여!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주님의 완전한 참 성경 곧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참고 문헌 목록

- Burgon, John, The Last Twelve Verses of Mark,
(Associated Publishers and Authors Inc. , Grand Rapids, 1881).
- Burgon, John, The Revision Revised,
(Conservative Classics, Paradise, 1883).
- Clarke, Donald, Bible Version Manual,
(B. T. M. Publications, Millersburg, 1975).
- Cummons, Bruce, The Foundation and Authority of the
Word of God,
(Massillon Baptist Temple, Massillon, 1973).
- Fuller, David, Counterfeit or Genuin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5).
- Fuller, David, True or False,
(Grand Rapid 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3).
- Fuller, David, Which Bibl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0,
1971).
- God' s Inspired Preserved Bible,
(Peoples Gospel Hour, Halifax, 1979), p. 20.
- Hills, Edward, Believing Bible Study,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Des Moines, 1967).
- Hills, Edward,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Des Moines, 1956).
- Hort, Arthur,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Macmillan Press, New York, 1896).

- Karl, Adam, *The Spirit of Catholicism*,
(MacMillan, New York, 1928), p. 2.
- King James Dedicatory,
(Oxford Press, 1611).
- Lockman Foundation, *New American Standard New Testament Preface*,
(Gospel Light Publications, Glendale, 1971, Volume 6).
- Machen, Gresham,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
(The MacMillan Co. Collier-MacMillan Canada, Ltd. , Toronto, 1923).
- McClure, Alexander, *Translators Revived*,
(Maranatha Publications, Worthington).
-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 of Christ, *Revised Standard Version*,
(Thomas Nelson and Sons, 1972).
- Nestle Eberhard, *Novum Testamentum Graece*,
(United Bible Societies, 1898).
- New Standard Encyclopedia*,
(Standard Educational Corporation, 1977).
- Paine, Gustavus, *The Men Behind the KJV*,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1959).
- Paris, Edmond, *The Secret History of the Jesuits*,
(The Protestant Truth Society, London, 1975).
- Ray, James, *God Wrote Only One Bible*,
(The Eye Opener Publishers, Junction City).
- Rice, John, *Our God-Breathed Book – The Bible*,
(Sword of the Lord Publishers, Murfreesboro, 1969).
- Ruckman, Peter, *Manuscript Evidence*,

- (Pensacola Bible Press, Pensacola, 1970).
- Ruckman, Peter, Monarch of the Books,
(Pensacola Bible Press, Pensacola, 1970).
- Ruckman, Peter, Satan's Masterpiece!,
(Pensacola Bible Press, Pensacola, 1974).
- Ruckman, Peter, The Bible Babel, Pensacola Bible Press,
(Pensacola, 1964).
- Smythe, Paterson, How We Got Our Bible,
(James and Pott Co. , New York).
- Standridge, James, Do We Have an Infallible Bible Today,
(Cook Road Baptist Church, Mansfield, 1973).
- Westcott, Arthur, Life and Letters of Brook Foss Westcott,
(The MacMillan Co. , 1903).
-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인용 문헌 목록

1. Ray, James, God Wrote Only One Bible, (The Eye Opener Publishers, Junction City), p. 96.
2. Fuller, David, Which Bible ?, (Grand Rapids International Press, Grand Rapids, 1973), p. 269.
3. Hills, Edward F. , Believer' s Bible Study,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Des Moines s, 1967), pp. 120-1-2.
4. Ruckman, Peter, Christian' s Handbook on Manuscript Evidence, (Pensacola Bible Press, Pensacola, 1970), p. 24.
5. McClure, Alexander, Translators Revived, (Maranatha Publications, Worthington), p. 60.
6. Fuller, David, Which Bibl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ress, Grand Rapids, 1971), p. 254.
7. McClure, Alexander, Translators Revived, (Maranatha Publications, Worthington), p. 61.
8. New Standard Encyclopedia, (Standard Educational Corporation, 1977), Volume L, No. 64.
9. Hills, Edward,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Des Moines, 1956), p. 115.
10. Fuller, David, Which Bible ?,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0, First Edition) p. 10.
11. Ibid. , pp. 51,52.
12. Ibid. , p. 21.
13. Ibid. , p. 21.
14. Ibid. , p. 21.
15. Fuller, David, True or Fals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3), p. 264.
16.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 28.
17. Nestle, Eberhard, Novum Testamentum Graece, (United Bible Societies, London, 189D), p. 60.
18. Ibid. , pp. 59,60.
19. Ruckman, Peter, Manuscript Evidence, (Pensacola Bible Press, Pensacola, 1970), pp. 72,73.
20. Fuller, David, True or Fals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 Grand Rapids, 1973), pp. 74,75.
21. Fuller, David, Which Bible ?,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1, Second Edition), p. 272.
 22. Ibid. , First Edition, p. 61.
 23. Burgon, John, The Revision Revised, (Conservative Classics, Paradise, 1883), pp. 243,244.
 24. Ruckman, Peter, Manuscript Evidence, (Pensacola Bible Press, Pensacola, 1964), p. 70.
 25. Fuller, David, Which Bibl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1, Second Edition), p. 272.
 26. Smythe, Paterson, How We Got Our Bible, (James and Pott Co. , New York), p. 22.
 27. Fuller, David, True or Fals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3), p. 77.
 28. New Standard Encyclopedia, (Standard Educational Corporation, 1977), Volume O, P. 154.
 29. Fuller, David, Which Bibl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0, First Edition), p. 103.
 30. Ibid. , p. 71.
 31. Ibid. , p. 130.
 32. Ibid. , p. 13.
 33. Ibid. , pp. 14,15.
 34. Burgon, John, The Revision Revised, (Conservative Classics, Paradise, 1883), p. 318.
 35. Hills, Edward, Believing Bible Study,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Des Moines, 1967), p. 166.
 36. Ibid. , p. 48.
 37. Fuller, David, True or Fals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73), p. 82.
 38. Ibid. , p. 88.
 39. Clarke, Donald, Bible Version Manual, (B. T. M. Publications, Millersburg, 1975), p. 37.
 40. Ibid. , p. 37.
 41. Ibid. , p. 87.
 42. Fuller, David, Which Bibl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1, Second Edition), p. 272.
 43.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 1930), p. 16.
44. Fuller, David, Which Bibl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0, First Edition), p. 74.
 45. Karl, Adam, The Spirit of Catholicism, (MacMillan, New York, 1928), p. 2.
 46. Hills, Edward,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Des Moines, 1956), p. 226.
 47.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 27.
 48. Ibid. , p. 27.
 49. Ibid. , p. 34.
 50. Ibid. , pp. 32,33.
 51. Ibid. , p. 36.
 52. New Standard Encyclopedia, (Standard Educational Corporation, 1977), Volume W, p. 18.
 53. Council of Trent, Session VI, Cannon 1545.
 54. Paris, Edmond, The Secret History of the Jesuits, (The Protestant Truth Society, London, 1975), p. 17.
 55. Ibid. , p. 28.
 56. Ibid. , p. 26.
 57. Ibid. , p. 32.
 58. Ibid. , p. 44.
 59.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 22.
 60. Paris, Edmond, The Secret History of the Jesuits, (The Protestant Truth Society, London, 1975), p. 31.
 61. Ibid. , p. 67.
 62. New Standard Encyclopedia, (Standard Educational Corporation, 1977), Volume S, p. 35.
 63. New Standard Encyclopedia, (Standard Educational Corporation, 1977), Volume H, p. 141.
 64. Paris, Edmond, The Secret History of the Jesuits, (The Protestant Truth Society, London, 1975), p. 48.
 65. Ibid. , p. 48.
 66. Ibid. , p. 48.
 67. Ibid. , p. 49.
 68. Ibid. , p. 49.

69. Paris, Edmund, *The Secret History of the Jesuits*, (The Protestant Truth Society, London, 1975), p. 49.
70. Paine, Gustavus, *The Men Behind the KJV*,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1959), pp. 88–90.
71. McClure, Alexander, *Translators Revived*, (Maranatha Publications, Worthington), pp. 71,72.
72.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 104.
73. *Ibid.* , p. 104.
74. *Ibid.* , p. 104–105.
75. *Ibid.* , p. 105.
76. Rice, John, *Our God–Breathed Book – The Bible*, (Sword of the Lord Publishers, Murfreesboro, 1969), p. 387.
77.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 105.
78. Hills, Edward,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Des Moines, 1956), p. 65.
79. *Ibid.* , p. 65.
80. *Ibid.* , p. 66.
81.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 127.
82. *Ibid.* , p. 127.
83. *Ibid.* , pp. 135,136.
84. *Ibid.* , p. 135.
85. Burgon, John, *The Revision Revised*, (Conservative Classics, Paradise, 1883), p. 257.
86. Hort, Arthur Fenton,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New York, 1896), Volume I, p. 211.
87. Fuller, David, *True or Fals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3), p. 261.
88. Hills, Edward, *Believing Bible Study*,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Des Moines, 1967), p. 122.
89. Fuller, David, *True or Fals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3), p. 240.
90. Hort, Arthur Fenton,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New York, 1896), Volume I, p. 78.
91. *Ibid.* , p. 400.

92. Ibid. , pp. 420-422.
93. Ibid. , pp. 414-416.
94. Ibid. , p. 42.
95. New Standard Encyclopedia, (Standard Educational Corporation, 1977), p. 450.
96. Ibid. , pp. c450-451.
97. Hort, Arthur Fenton,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New York, 1896), Volume I, p. 449.
98. Ibid. , p. 121.
99. Ibid. , p. 149.
100. Ibid. , p. 122.
101. Ibid. , p. 275.
102. Ibid. , Volume II, pp. 336,337.
103. Ibid. , Volume I, p. 120.
104. Ibid. , p. 430.
105. Ibid. , p. 428.
106. Ibid. , p. 76.
107. Ibid. , Volume II, p. 81.
108. Ibid. , p. 273.
109. Ibid. , p. 34.
110. Ibid. , Volume I, pp. 458,459.
111. Ibid. , p. 458.
112. Ibid. , Volume II, p. 207.
113. Ibid. , Volume I, p. 130.
114. Ibid. , p. 138.
115. Ibid. , p. 140.
116. Ibid. , p. 139.
117. Ibid. , p. 211.
118. Ibid. , p. 377.
119.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 104.
120. Westcott, Arthur, Life and Letters of Brooke Foss Westcott. (New York, 1903), Volume II, p. 69.
121. Ibid. , p. 147
122. Ibid. , Volume I, p. 52.
123. Ibid. , Volume II, p. 308.
124. Ibid. , p. 49.

125. Ibid. , p. 253.
126. Ibid. , p. 394.
127. Ibid. , Volume I, p. 223.
128. Ibid. , p. 279.
129. Ibid. , p. 13.
130. Ibid. , p. 6.
131. Ibid. , p. 7.
132. Ibid. , p. 135.
133. Ibid. , p. 60.
134. Ibid. , p. 73.
135. Ibid. , p. 77.
136. Ibid. , p. 77.
137. Ibid. , p. 93.
138. Ibid. , p. 43.
139. Ibid. , p. 110.
140. Ibid. , p. 110.
141. Ibid. , p. 318.
142.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p. 143,144.
143. Westcott, Arthur, Life and Letters of Brook Foss Westcott, (New York, 903), Volume II, p. 160.
144. Ibid. , p. 439.
145. Ibid. , Volume II, p. 349.
146.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p. 157.
147. Ibid. , p. 157.
148. Westcott, Arthur, Life and Letters of Brook Foss Westcott, (New York, 1903), Volume II, p. 251.
149. Ibid. , Volume I, p. 81.
150. Ibid. , p. 183.
151. Ibid. , p. 8.
152. Ibid. , pp. 263, 264.
153. Ibid. , p. 264.
154. Ibid. , p. 264, 265.
155. Ibid. , p. 265.
156. Ibid. , pp. 265, 266.
157. Ibid. , p. 267.

158. Ibid. , p. 305
159. Ibid. , Volume II, p. 22.
160. Ibid. , pp. 22,23.
161. Ibid. , p. 18.
162. Ibid. , p. 23.
163. Ibid. , p. 19.
164. Ibid. , p. 19.
165. Ibid. , p. 23.
166. Ibid. , p. 52.
167. Ibid. , Volume I, p. 254.
168. Ibid. , p. 135.
169. Ibid. , p. 77.
170. Ibid. , p. 404.
171. Ibid. , p. 160.
172. Ibid. , p. 108.
173. Ibid. , p. 108.
174. Fuller, David, Which Bible ?,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1, Second Edition), pp. 265, 266.
175. Ibid. , p. 268.
176. Ibid. , p. 270.
177. Fuller David, True or Fals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3), p. 231.
178. Fuller, David, Which Bibl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1, First Edition), p. 16.
179. Ibid. , p. 16.
180. Ibid. , Second Edition, p. 254.
181. Hort, Arthur,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New York, 1896), Volume II, p. 368.
182. Westcott, Arthur, Life and Letters of Brook Foss Westcott, (New York, 1903), p. 367.
183. Clarke, Donald, Bible Version Manual, (B. T. M. . Publications, Millersburg, 1975), p. 39.
184. Westcott, Arthur, Life and Letters of Brook Foss Westcott, (The MacMillan Co. , 1903), p. 390.
185. Ibid. , p. 391.
186. Fuller, David, Which Bibl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1, Second Edition), p. 204.

187. Ibid. , p. 206.
188. Westcott, Arthur, Life and Letters of Brook Foss Westcott, (New York, 1903), p. 394.
189.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 193.
190. Ibid. , pp. 197,198.
191. Westcott, Arthur, Life and Letters of Brook Foss Westcott, (The MacMillan Co. , 1903), p. 393.
192. Ibid. , p. 393.
193.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 147.
194. Ibid. , p. 147.
195. Fuller, David, True or Fals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1, Second Edition), p. 91.
196. Lockman Foundation, New American Standard New Testament Preface, (Gospel Light Publications, Glendale, 1971), p. VI.
197. McClure, Alexander, Translators Revived, (Maranatha Publications, Worthington), pp. 63,64.
198. Ibid. , p. 78.
199. Ibid. , p. 79.
200. Ibid. , p. 85.
201. Ibid. , p. 86.
202. Ibid. , p. 87.
203. Ibid. , p. 87.
204. Paine, Gustavus, The Men Behind the KJV,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1959), p. 90.
205. Hills, Edward, Believing Bible Study, (The Christian Research Press, Des Moines, 1967), p. 190.
206. Ruckman, Peter, Manuscript Evidence, (Pensacola Bible Press, Pensacola, 1970), p. 128.
207. McClure, Alexander, Translator Revived, (Maranatha Publications, Worthington), pp. 93,94.
208. Ibid. , p. 95.
209. Ibid. , p. 97.
210. Ibid. , p. 98.
211. Ibid. , p. 100.
212. Ibid. , pp. 100,101.

213. Ibid. , pp. 101,102.
214. Ibid. , p. 103.
215. Ibid. , p. 107.
216. Ibid. , pp. 108, 109.
217. Ibid. , p. 115.
218. Ibid. , p. 116.
219. Ibid. , p. 112.
220. Ibid. , p. 118.
221. Ibid. , p. 120.
222. Ibid. , p. 122.
223. Ibid. , pp. 123,124.
224. Ibid. , p. 132.
225. Ibid. , p. 139.
226. Ibid. , p. 143.
227. Ibid. , p. 165.
228. Ibid. , p. 166.
229. God' s Inspired Preserved Bible, (Peoples Gospel Hour, Halifax, 1979),
pp. 17,18.
230. Ibid. , pp. 18,19.
231. Ibid. , p. 18.
232. Ibid. , p. 18.
233. Ibid. , p. 19.
234. Ibid. , p. 20.
235. Ibid. , p. 20.
236. Ibid. , p. 20.
237. Ibid. , p. 21.
238. Ibid. , p. 21.
239. Ibid. , p. 21.
240. Ibid. , p. 22.
241. Ibid. , p. 22.
242. Ibid. , p. 22.
243. Ibid. , p. 22.
244. Ibid. , p. 22.
245. Ibid. , p. 23.
246. Ibid. , p. 23.
247. Hort, Arthur Fenton,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New York, 1896), Volume I, p. 423.

248. God's Inspired Preserved Bible, (Peoples Gospel Hour, Halifax, 1979), p. 23.
249. Ibid. , p. 23.
250. Ibid. , p. 24.
251. Ibid. , pp. 185,186.
252.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 172.
253. Ruckman, Peter, Satan's Masterpiece!, (Pensacola Bible Press, Pensacola, 1974), p. 38.
254. Ibid. , p. 55.
255. Lockman Foundation, New American Standard New Testament Preface, (Gospel Light Publication, Glendale, 1971), p. I.
256. Ruckman, Peter, Manuscript Evidence, (Pensacola Bible Press, Pensacola, 1970), p. 108.
257. Lockman Foundation, New American Standard New Testament Preface, (Gospel Light Publications, Glendale, 1971), p. IV, V.

『킹제임스 성경』을 제정한 ‘제임스 왕’의 이름은 제임스 찰스 스투어트(혹은 스테워드)이다. 그는 1566년 6월 19일 에딘버러 성에서 태어났으며 스코틀랜드의 여왕이던 자기의 어머니 메리의 분부로 자기 의지에 반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1567년 7월 24일 만 한 살이 조금 넘었을 때에 자기 어머니 메리가 권좌에서 축출되었으므로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헨리 로드 다넬리는 1567년 2월에 살해당했는데 사람들은 그의 아내 메리가 그의 죽음에 관여한 것으로 여겼다.

아직 아기였을 때 제임스는 로마 교회로부터 구출되어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전복시키고 로마 카톨릭 통치를 재건하려는 음모와 반음모를 겪게 되었으며 1600년과 1605년 사이에만 연달아서 무려 네 번이나 이런 음모를 겪게 되었다. 이처럼 이 젊은 왕의 주변에는 늘 폭력이 존재했다. 단 십구 세의 나이에 제임스 왕은 마르의 열(Earl of Mar)을 살해하고 로마 카톨릭 체제하에서 왕권을 조정하기 위한 음모로 인해 여러 친구가 죽는 것을 직접 보았다. 젊은 왕은 이런 음모들이 평생토록 자기를 따라다닐 것을 알았고 그래서 길을 걷다가 다음 골목에 들어가거나 혹은 경호를 받지 않고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음을 절대 잊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그는 폭력과 전쟁을 싫어한 것 같다.

24) 본 부록은 사무엘 김 박사의 『Understandable History of the Bible』 제2판의 10장이며 대구의 박석홍 형제가 번역했다.

이 선한 왕은 여러 가지 미덕으로 칭송을 받았다. 그의 생각은 예리하고 영리했다. 오펔(Olga S. Opfell)은 이렇게 말한다.

그의 세련된 덕망 중에는 그가 배우는 데 모범을 보인 사람이며 그리스어와 라틴어 그리고 다른 언어를 많이 배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일 등급이었다. 일곱 살 때 벌써 그는 성경 한 장을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즉석에서 읽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읽을 수 있었는데 사실 소수의 사람만이 그의 번역에 토를 달 수 있었다. 때가 되자 그는 유럽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통치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제임스의 학구열은 매우 지대해서 그는 '만일 내가 죄수가 되었다면 옥스퍼드 대학의 거대한 도서관에 감금되길 바랐을 것이다' 라고 재치 있게 말하곤 했다.

제임스 왕은 1589년 8월 20일 덴마크의 프레드릭 2세의 둘째 딸인 앤과 결혼했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이 여덟 자녀를 낳았다.

첫째, 헨리는 1594년 2월 19일에 태어났으며 1612년 11월 6일 십팔 세의 나이에 죽었다.

둘째, 엘리자베스는 1596년 8월 19일에 태어났으며 1662년 2월 13일 육십오 세의 나이에 죽었다.

셋째, 마가렛은 1598년 12월에 태어났으며 1600년 12월 두 살의 나이에 죽었다.

넷째, 찰스는 1600년 11월 19일 태어났고 헨리가 일찍 죽음으로 인해 자기 부친의 뒤를 이어 1625년에 찰스 1세가 되었으며 1649년 사십구 세의 나이에 살해되었다.

다섯째, 로버트는 1602년 1월 18일에 태어나서 1602년 5월 27일 4개월 만에 죽었다.

여섯째 아이는 1603년 5월에 사산되었다.

일곱째, 메이는 1605년 4월 8일에 태어나서 1607년 9월 16일 두 살에 죽었다.

여덟째, 소피아는 1606년 6월 22일에 태어나 이듬해 한 살의 나이로 죽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는 1603년 3월 24일 잉글랜드의 왕좌를 승계하면서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되었고 이로써 두 나라를 통일시키며 단일 군주 체제를 구축했다. 그는 통치를 잘했으며 자기 백성에게 대단한 사랑을 받다가 그로부터 정확히 22년 후인 1625년 3월 27일에 죽었다.

제임스 왕은 평생토록 몇 가지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고생했다. 그는 다리가 매우 약해 걸을 때 종종 부축을 받아야만 했다. 그의 손은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아서 비서나 시종이 그를 대신해서 글을 쓰곤 했다. 그는 또한 통풍, 관절염, 그리고 ‘포르피라’(Porphyra) 같은 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포르피라’는 사람을 허약하게 하는 질병으로 보통 ‘왕가의 병’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런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 그는 약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주 누워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제임스 왕의 침실은 왕을 수발드는 신하들로 둘러싸인 ‘집무실’이 되었다. 왕은 쉽게 잠들지 못했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는 신하들을 두어 자기를 경호하게 하면서 그들과 한방에서 함께 잤으며 잠이 들 때까지 자기를 위해 글을 읽게 하기도 했다. 어떤 때 그는 너무 아파서 헛소리를 하기도 했으며 혀가 너무 길어서 침을 흘리기도 했고 마실 때 훌쩍훌쩍 소리를 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이 위대한 왕은 육신적으로 혐오감을 일으켰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잘 알았다. 외관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삶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마음도 육신처럼 더럽게 해서 다른 사람의 미움 거리가 되고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씩씩이 등으로 거부를 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친절을 보임으로써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제임스 왕은 후자를 택했다.

제임스 왕의 친절

제임스 왕의 친절과 굉장한 지식에 대해서는 방대한 증거가 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과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교육받았다는 것 외에도 왕은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우한 것으로 인해 칭송을 받았다. 굿맨 감독(Bishop Godfrey Goodman)은 제임스 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제임스 왕의 몸가짐과 기질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그렇게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보이는 사람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정직하고 잔인함과 교만을 모르는 분이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많은 좋은 일을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1602년에 워튼 경(Sir Henry Wotton)은 제임스 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그에게는 겉손에 가까운 어떤 천성적인 선함이 있었다. 그의 좋은 성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순결한 삶이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아무 흠 없이 보존되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사생아를 출산시켜 왕국을 어지럽게 했던 그의 선조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1603년에 윌브라함 경(Sir Roger Wilbraham)은 ‘왕은 아주 예리한 기치와 창의적 재주를 지녔다. 그분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좋은 성품과 즐거운 마음을 가졌으며 참으로 명예스러운 것만을 추구했다.’ 고 말했다.

인더윅(F. A. Inderwick)은 ‘제임스 왕은 학문과 영성과 선한 성품과 너그러움으로 인해 좋은 평판을 가졌다.’ 고 보고한다.

챔버스(Robert Chambers)는 ‘제임스 왕은 성품이 선한 군주였다.’ 고 확증하며 또 ‘제임스 왕은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고 말하고 또다시 ‘제임스 왕은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고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괄목할 만한 용기를 보여 주었다.’ 고 언

급했다.

왈폴(Hugh Wlapole)은 ‘그는 크고 튀어나온 푸른 눈을 소유했으며 사람들과 말할 때 모든 비밀을 읽어 내는 것처럼 그 눈으로 상대방을 주시했다.’고 말했다.

코스튼(Stephen A. Coston)은 1823년에 아이킨(Lucy Aikin)이 제임스를 칭송한 것에 대해 공감하는데 아이킨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편애 성향에 대해 말하건대 그가 애정의 대상에게 거의 맹목적인 충성을 보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매우 아량이 넓고 선한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의 선한 성품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에게 흘러넘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간청 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거의 도덕적으로 불가능했다. 동일한 근원 즉 선한 성품에서 나온 너그러움으로 인해 그는 계속해서 돈이 있어야 했다.

제임스 왕의 뛰어난 점

제임스 왕은 평생토록 육신적인 질병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위대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의 인격의 위대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저절로 그를 존경하고 칭송하였으며 그래서 그는 존경과 복종을 얻어 내기 위해 자기 백성을 억압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자기 친구나 가족에게 도덕적인 삶을 권장한 도덕의 대들보였다. 비록 연약한 것이 있었지만 그는 사자(獅子)의 마음과 혼을 가졌다.

인터웍은 다시 한 번 제임스의 좋은 성품을 우리에게 전해 준다.

그의 인간적인 성품에 대해 말하건대 나는 그가 인간적으로 선하고 도덕적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아마도 그는 장로교 가정 교사로부터 엄격하게 주의 깊은 훈련을 받아서 이런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왕은 ‘사내 중의 사내’로 남성미를 증진시켰고 여성적인 것을 싫어했다. 제임

스 왕의 아들 헨리는 갑작스레 죽기 전까지 제임스 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제임스 왕은 그에게 군주가 순결해야 하고 남자답고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단호히 교육했다. 그러므로 그는 헨리가 군주로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합당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의 제목은 『바실리콘 도란』(*Basilicon Doran*)인데 그 뜻은 ‘왕으로서의 선물’이다. 이 같은 제목은 제임스 왕이 아들에게 주는 선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헨리가 어떻게 자기 신하들에게 ‘왕으로서의 선물’이 될 것인가를 묘사한 것이다. 제임스 왕은 헨리에게 이렇게 명한다.

특별히 의복이나 향수 등과 같은 것에서 여성적인 것을 피하라. 그리고 어리석게 변장하거나 머리카락 손톱을 길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본성을 거스르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다른 글에서 그는 자기 아들에게 ‘예쁘장하게 차리고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권고했다.

또 그는 변영의 약점에 대해서도 훈계했다.

우리의 평화는 빵의 부요함을 주고 있다. 그런데 평화와 부요함은 우리로 하여금 안일한 기쁨과 부드럽고 섬세함 가운데서 뒹굴게 하는 게으름을 가져다주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위대한 군주를 멸망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제임스 왕은 남자를 여성화시키거나 여인들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담배 피우는 천한 습관을 매우 싫어했다. 그는 담배 피우는 습관을 대적하기 위해 『담배를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으며 이를 통해 선견지명의 탁월한 특성을 드러내었다. 그는 담배 피우는 습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눈에 역겹고 코에 불쾌하며 뇌에 해롭고 검은 고약한 연기가 폐에 위험하므로 바닥 없는 구덩이(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연기와 흡사하다.

원숭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

여기에서 위대한 제임스 왕은 그가 살던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아갔다. 그는 자기 동료들이 무지하던 때에 이미 흡연이 건강에 해로움을 깊이 인식했으며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수백 년이나 앞서갔다. 그러나 여성들을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로 여기던 때에 제임스 왕이 ‘담배를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여성에 대해 그가 깊은 관심과 호감을 느꼈음을 잘 보여 준다. 다시 흡연에 대해 제임스 왕은 이렇게 말한다.

남편은 섬세하고 건강하고 밝은 안색을 한 아내를 극도의 지경으로 몰아넣어 흡연으로 인해 그녀의 달콤한 호흡을 부패하게 만들거나 혹은 평생토록 고약한 냄새로 인한 고통 속에 살게 해서는 안 되며 이런 습관을 반대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

제임스 왕은 과연 영국 국민이 이런 나쁜 습관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빠지게 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챔버스(Robert Chambers)는 제임스 왕의 느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담배를 강력히 반대한다』의 서문에서 제임스 왕은 평화 시대에 부가 증가함으로써 이런 악습이 생겼다고 말하며 그래서 이런 시대에 남자들이 여성화되고 부당한 방종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임스 왕이 남자를 여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극렬히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옷을 입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남자답고 여성화되지 않아야만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느꼈다. 사실 ‘동성연애자’들과 그들의 정도를 벗어난 행위들은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만 고쳐질 수 있었다! 그는 『바실리콘 도란』에서 자기의 후계자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네가 반드시 양심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무서운 죄들이 있는데 마술, 의도적인 살인, 근친상간, 동성연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옛날 영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왕들이 항상 최고의 도덕적 자질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들과의 애정 유희는 너무나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자유분방했으나 자기 아내에게는 정절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임스 왕은 그런 고위직을 차지했던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른 부류였으며 그래서 자기의 후계자가 다가올 세대를 위해 높은 도덕적 모범을 보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바실리콘 도란』에서 자기의 후계자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네 몸이 속한 아내에게 네 몸을 줄 때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히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네 몸이 더럽혀졌다면 어찌 처녀를 취해 아내로 맞는 일을 바랄 수 있겠느냐? 어찌 한쪽은 깨끗해야 하고 다른 한쪽은 더럽혀져야 하느냐? 추측건대 세상 사람들은 음행을 단지 가벼운 죄로 생각하나 내가 첫 번째 책에서 양심에 대해 말한 것을 잘 기억하여라. 그리고 모든 죄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을 헛된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심판자이시며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음을 생각하여라.

제임스 왕은 계속해서 충고했다.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전인 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제임스 왕은 부도덕을 왕권의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네 왕위가 네 잘못을 감소시켜 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이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네 잘못은 네 왕위의 위엄에 따라 더 무겁게 될 것이다.

제임스 왕은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순수하고 정직해야 할 책임을 지닌 것으로 생각했다.

너는 의회와 그 동반자들이 경건함과 모든 정직의 덕목에서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 해야 한다. 특히 주의하여 가장 온화한 사람을 택하도록 하라. 기록은 크리스천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

워하고 그분을 아는 데서 나온다.

백성을 좋은 법으로 속박해서 잘 다스리는 것만으로 좋은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인격과 의회와 그 동반자들의 인격 속에 들어 있는 덕스러운 삶을 결합하고 또 자기 신하들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함으로써 좋은 왕이 되는 것이다.

네 삶과 인격 속에서 그리고 정부와 거기 속한 자들의 경건함과 미덕 속에서 이런 본을 보이도록 하라. 네 마음을 이런 좋은 미덕으로 장식하고 그런 것으로 네 백성을 합당하게 통치하라. 그리고 네 신하들을 다스리는 데 두 배로 신경을 써라.

독자는 아마 이 글에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자기 아들이 덕을 추구하고 바르게 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비슷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제임스 왕이 종종 성경의 위대한 인물 솔로몬과 비교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 랄스톤(David Ralston)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제임스 왕은 자기 시대 사람들에 의해 ‘영국의 솔로몬’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정치학과 학문뿐 아니라 신학에 이르기까지 박식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성적으로 관심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손안에 들려지기를 원했고 강단이나 지하 창고에 감금되어 그리스어 학자들만이 그것을 읽기를 원치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랄스톤의 언급이 지나친가? 그가 과장해서 이야기했는가? 아니다. 사실은 그는 축소해서 말했다. 제임스 왕의 장례식 설교 때 윌리엄 감독은 적어도 열한 가지 세부 항목을 들어가면서 이 특출한 군주를 솔로몬과 비교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위대한 왕이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그들을 지극히 사랑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인물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미덕들을 제시하는가?

크리스천 제임스 왕

물론 이 고귀한 군주는 또한 열성적인 크리스천이었다. 이 사실은 그의 글 안에 여러 번 드러난다. 제임스 왕은 『바실리콘 도란』에서 헨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주며 충고한다.

하나님은 왕들에게 신들의 품격을 헛되이 주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의 왕좌 위에서 그분의 통치의 홀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왕들은 다시 자기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 만일 그들이 행복한 통치를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왕의 규례들을 준수해야 한다. 그분의 법으로부터 너희의 법들이 나오게 하라 ... 그러면 너희가 통치자들의 미덕 가운데서 빛을 발할 것이요, 저 강력한 왕이신 하나님과 닮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군주와도 다르게 제임스 왕은 왕이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자기와 자기의 후계자와 그리고 모든 왕이 ‘하늘에 계신 왕’에게 복종해야 함을 확고히 의식했다. 실제로 제임스 왕은 왕에게 주를 섬겨야 할 의무가 두 번 주어졌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보통 크리스천으로서 섬기는 것이고 또 한 번은 통치자로서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 무엇보다도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서 이중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배워야 한다.

선한 왕은 다른 모든 위대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래서 선하고 지혜로운 왕은 그분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함을 잘 알았다.

이제 믿음은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은 기도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도란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음이 평안할 때 기도할 기회로 삼아라. 특별히 침상에서.

제임스 왕은 자기 아들이 좋은 크리스천이 되도록 권면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거듭 반복한 주제였다. 실로 그는 좋

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좋은 왕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다!
다시 한 번 그는 헨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너는 좋은 크리스천이니 네 백성 가운데 좋은 법을 세우며 좋은 왕이 되
어라. 또 네 신하들과 함께 네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행위로서 덕을 세우라.

다시 한 번 우리는 신하가 ‘좋은 크리스천’ 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을 하면서까지 왕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을 왕이 이용해
서는 안 된다고 제임스 왕이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장로교인으로 양육을 받았고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었지만
제임스 왕은 자기의 후계자인 필립 왕자를 옥스퍼드에 있는 막달
라 대학에 입학시켰는데 이곳은 확실히 청교도적 성향을 지닌 곳
이었다. 실제로 그는 영국 교회에 만연된 부패에 대해 다섯 시간에
 걸쳐 연설했는데 이를 두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 중 한 사람
인 앤드류스(Lancelot Andres)는 ‘왕이 청교도의 역할을 훌륭히 행
했다.’ 고 말했다.

제임스 왕은 성경을 공부하는 훌륭한 학생이었으며 ‘깊이 성경
을 읽었다.’ 고 전해진다. 그래서 그는 성경 본문을 숨씨 있게 인용
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처럼, 제임스 왕은 성경이 소수 특권 계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쉬운 영어 성경으로 거룩
한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1603년에 영국의 왕위에 올랐으며 그 뒤 첫 번째 명령 중 하나로
성경을 새로 번역하라고 했다. 이 일은 선택된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성적으로 관심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
의 손안에 들려지기를 원했고 강단이나 지하 창고에 감금되어 그리스어 학자

들만이 그것을 읽기를 원치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더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자기 백성의 영적 상태가 좋아지리라고 확신했다.

제임스 왕은 성경이 가장 훌륭한 언어학자들에 의해 번역되어 감독과 다른 목사들에게 검토를 받고 프리비 회의에 최종적으로 전달되고 자기가 권위 있게 비준하는 것을 제안했다. 제임스 왕이 성경을 펴는 주요 동기가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음은 너무나 확실하다.

제임스 왕은 일반 사람이 자기의 성경을 가지는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인근 각처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가졌다. 그는 빌리어스(George Villiers)에게 다음과 같이 쓰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나의 사랑의 표로 이 새해 선물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탄생하신 전 날에 쓰기 시작해서 새해의 첫 달 끝 무렵에 완성하였다. 거듭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에 그분 안에서 일어나 영원토록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란다.

그러면 제임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어린양의 피로 씻은 옷을 입는 것이다. 여기에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가 요구되는가? 아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비록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반기독교적 속성들을 알았지만 제임스 왕은 여전히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오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주일에 스포츠를 금지하는 청교도들과 논쟁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도들의 회심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을 보려는 뜨거운 열망에서 제임스 왕은 미국 신대륙에 최초로 기독교 식민지를 세울 것을 명령했다. 버지니아 주에 식민지를 세울 것을 인정한 그랜트 차터 법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언했다.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 … 그리고 미국 쪽에 버지니아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식민지를 세우기 위해서 … 그리고 아직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 잘 정착된 조용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

이 사실은 다음번의 법규에 의해 더 강조되었다.

이 행동으로 우리가 바라거나 기대하는 근본 효과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노력의 ‘근본 취지’가 프랑스나 스페인의 경우처럼 왕의 재산을 불리거나 신세계의 원주민을 노예로 삼는 데 있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제임스 왕을 존경해야 한다. 식민지 설립의 근본 취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바 혼을 자유롭게 하는 위대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에 관련된 증거가 더 있다.

버지니아에 세워질 식민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며 미개인들이 그분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이 영국 전역에 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임스 왕이 자기의 이익보다 신세계 원주민들의 유익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임스 왕은 이타적이고 사랑이 많은 통치자로서 자기의 통치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통치를 통해 부유해지기를 바랐다.

이 외에도 제임스의 선견지명이 참으로 빛을 발한 여러 영역이 있었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던 시대에 제임스 왕은 배심원 재판을 옹호했다. 신세계에 식민지를 세울 것을 허가하면서 그는 배심원 제도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제임스 왕은 법정의 소송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예를 들면 배심원이 없는 재판은 금지되었다. 제임스 왕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열두 명의 정직하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복음 전도자들 앞에서 선서하고 … 이렇게 선출된 열두 사람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증거대로 판단하고 … 앞서 말한 열두 명의 판결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법정을 멀리서 내다본 제임스 왕으로 말미암아 배심원 제도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임스 왕은 영국의 왕이었지만 이런 훌륭한 업적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과대평가인가? 계속해서 읽고 확인하기 바란다!

비길 데 없는 제임스 왕

콜롬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것 하나로 유명하다. 물론 이것은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라이트 형제 역시 비행기를 발명한 업적으로 인해 명성을 얻었다. 비록 우리가 새처럼 날지는 못하지만 이들의 업적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다. 포드는 자동차를 발명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값싼 자동차를 발명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누구나 차를 가질 수 있게 했고 미국 사람이 자동차를 사랑하게 했으며 다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미국의 발전을 이루었다. 에디슨에게 명성을 준 것은 여러 발명품이었지만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백열전구였다.

이들은 다 천재였다. 이들이 너무 위대하므로 우리는 이들의 개인적인 업적으로부터 인류 문명의 도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업적은 영국의 왕좌에 앉았던 저 위대한 군주의 업적과 비교하면 별것 아니다. 제임스 왕의 위대함은 문자 그대로 역사를 바꾸었다. 영국만이 그의 위대함으로 인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미국도 혜택을 받았으며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영국 국기가 휘날린 모든 나라가 그러한 혜택을 누렸다. 더욱이 제임스 왕의 유산은 이런 경계를 넘어서 정말로 지구 상의

모든 남녀노소에게 영향을 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위대한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의 재위 시절에 그가 달성한 막대한 업적을 살펴봐야 한다.

1.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민족들을 하나로 만들어 대영 제국의 기초를 마련했다. 실로 그는 ‘대영제국’(Great Britain)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이 제국이야말로 영국 사람들이 ‘영국의 방법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2. 그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번역을 명령했다. 이 책으로 인해 모든 영국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고 이 일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는 모두에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영향력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 통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영국민의 문명을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영국은 그 당시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식민지를 다루는 일에서 관용을 보였다. 오늘날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독립 국가들은 대영제국과 일찍이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해 많은 유익을 얻었다. 많은 경우 이런 나라들의 황금기는 영국 식민지 권력에 의해 착취를 당하던 때였다.

3. 그는 신대륙에 최초의 기독교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이것은 곧 미합중국의 기초가 되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 두 나라는 영국 이전에 이 땅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로마 카톨릭주의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에 복을 주지 않고 성경을 높이는 영국으로 그 나라들을 대체해 버렸다.

제임스 왕은 새로운 식민지를 허락할 때 무엇보다 복음 전파를 제일의 목표로 삼았다. 이같이 성경을 최우선으로 여긴 점은 식민지 역사를 통해 계속되었고 이후 새 나라 즉 미합중국을 세우는 데

영향을 발휘했다. 헨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하였다.

이 위대한 나라가 종교인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이 헨리만의 견해인가? 아니다. 미국이 ‘자유 번영’이나 ‘복합문화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자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에 주어진 ‘잉여 수익’이며 후자는 미국의 성경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미국을 뉴에이지 사상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싫어하는 뉴스 미디어’와 공립학교 교육이 만들어 낸 거짓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세워질 때 모든 이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 세워졌음을 잘 알았다. 하원의 사법 위원회는 1854년에 이것을 명확하게 발표했다.

미국의 헌법과 헌법 개정안을 채택할 당시의 일반적인 정서는 기독교를 복돋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 공화국을 세운 사람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자손들 안에서도 유지되기를 기대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우익 단체’의 고함인가? 결코 아니다. 심지어 자유주의의 언론매체인 『뉴스위크』도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이 미국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뉴스위크』는 왕의 위대한 업적인 『흠정역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러 세기 동안 성경은 미국의 문화, 정치, 사회생활에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현재 역사가들은 헌법이 아니라 성경이 미국의 설립 문서라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성경 교육은 공립학교교육의 핵심이었고 거의 모든 가정은 성경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경건하게 읽었다. 이 성경의 영향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미국을 거대한 회중 즉 교회의 혼을 지닌 민족으로 보았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인해 미국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미국처럼 다른 사람/국가의 자유를 위해 자기의 젊은이들의 피를 그렇게 쉽게 흘릴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미국처럼 자기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단 말인가? 미국의 군인들은 전쟁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캔디 사탕을 주는 인자한 사람들로 비친다. 세상은 그들을 지배자로 보지 않고 해방자로 보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킹제임스 성경』 때문이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제임스 왕 때문이다.

4. 제임스 왕이 배심원 제도를 주장한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했다. 이런 개념은 식민지와 그 뒤를 이은 미국의 주 정부에 적용되었고 서구 문명의 진출에 의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합리적인 재판과 모슬렘 국가나 공산 국가의 인민재판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5. 제임스 왕은 여성을 높였고 결혼을 거룩히 여겼다.

그는 결혼 제도를 너무나 고귀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덴마크의 앤과 결혼하기 전에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보름을 보냈다. 제임스 왕은 자신의 말을 통해 이 경건한 제도에 대해 높은 경의를 표한다. 그는 자기의 후계자에게 결혼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좋은 벼에게서 네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지속할 터인데 네가 네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인 경건하고 덕스러운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결혼은 땅에서 최고의 경사이며 하나님의 복 없이는 네가 결코 결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

젊은 부부들은 지금도 이 존귀한 분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제임스 왕은 자기 아들에게 충고를 주면서 동시대 사람들을 앞서 갔다.

결혼할 때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그녀를 모든 면에서 네

아내로 너 자신의 반쪽으로 여긴다는 것이고 네 몸을 다른 이가 아닌 그녀와만 나눈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네 몸은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라 고유하게 그녀의 것이다. 나는 음행이라는 더러운 악을 그만두도록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 결혼할 때 맹세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아내에 대한 너의 행실에 대해서는 성경이 최고의 조언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결혼 약속이 하나님께 한 맹세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제임스 왕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젊은 연인들은 결혼에 앞서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임스 왕 자신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앤을 사랑했다. 글로 그에게 흠집을 내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제임스 왕은 유창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법과 본성에 따라 당신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실 이것은 내 아이들의 어머니요, 아내인 당신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 당신의 존귀한 출생과 가문을 존경하기에 나는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나의 결혼한 아내요 나의 다른 재산과 명예와 존귀에 참여한 사람이므로 나는 당신에게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 제임스 왕이 깊이 생각하는 바를 다 적을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는 의심할 나위 없이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진실했다. 그는 그녀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나님은 왕들의 친구요 가까운 친구인 그녀를 부르기 위해 자신의 별을 보냈다. 그들은 인생의 길을 달리다가 결국 죽지만 죽음은 그들의 위엄을 높이 드러낼 따름이다. 이렇게 나의 왕비는 여기에서부터 그녀의 보금자리로 옮겨졌다. 그녀는 높은 곳에 등극하기 위해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분명히 변화되었다. 확실히 선한 통치자는 죽지 않으며 해처럼 다시 떠오르기 위해 지는 것이다.

플레이보이 철학이 공립학교교육의 철학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

을 개처럼 살도록 가르쳐서 그들이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며 성범죄를 지으며 미국이라는 사회를 완전히 할리우드 방식으로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이처럼 결혼을 거룩하게 여기는 미덕이 있어 왔다.

이런 위대한 제임스 왕의 훌륭한 유산들은 영국과 미국 시민들에 의해 멈추지 않는 바다 물결처럼 전 세계에서 실행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여러 나라의 사회 구조 속에 합쳐져서 많은 좋은 것을 가져오고 그의 위대함을 알리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증여한 유산이고 그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

『킹제임스 성경』의 출판이 계속되면서 그것은 온 세상에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다. 해외 선교가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사용하여 자신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셨다. 하나님이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비숍 성경』, 『그레이트 성경』, 『제네바 성경』 등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제임스 왕의 성경을 택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적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중 한 사람인 웰돈(Anthony Weldon)은 조정에서 추방당했고 이에 복수를 맹세했다. 제임스 왕이 죽은 지 25년 후인 1650년에 가서야 웰돈은 그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제임스 왕을 동성연애자로 몰아 부치는 글을 썼는데 그때는 이미 제임스 왕이 죽은 뒤라 왕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웰돈의 이 보고서를 무시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제임스 왕을 비방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담긴 성경 즉 『킹제임스 성경』을 더럽힐 수 있으며 그 결과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책인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좀 더 현대화된’ 역본들로 돌

아설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최근 들어 꼬집어낸 것인데 사실 그 전까지 이것은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 그런 종류의 시시한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웰돈의 이 거짓 보고서는, 그 보고서의 저자였던 웰돈과 같이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에 의해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제임스 왕의 인품에 먹칠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은 한결같이 성스럽지 못한 자리에 동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만일 제임스 왕이 동성연애 같은 부도덕한 일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 결코 부도덕한 자가 만든 성경을 사용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했고 다른 것은 다 무시했다는 사실은 이 위대한 왕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가 번역을 지시한 성경에게 ‘아멘’으로 화답하셨다.

아마도 킹 제임스에 대해서는 전도서 8장 4절에서 솔로몬 왕이 말한 것 이상의 찬사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다음은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서문을 대신하여 왕에게 바친 헌사이다. 이 글을 통해 제임스 왕의 시대와 그가 이룬 업적이 어떠한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왕께 바치는 헌사

본 성경의 번역자들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아일랜드의 군주이

시고 믿음의 옹호자이신 제임스 왕 곧 지극히 높으시고 강력하신 통치자 제임스 왕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존엄하신 주권자(主權者)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곧 모든 긍휼의 아버지께서 고귀하신 폐하를 보내시어 우리 영국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사오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참으로 크고 많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구 세계의 빛나는 별이시던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서거(逝去)하신 후 우리나라의 안녕(安寧)을 바라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야말로 두렵고 짙은 어둠의 구름이 이 땅을 뒤덮어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 불안한 국가를 누가 다스리게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폐하께서 힘찬 태양처럼 나타나사 그러한 모든 억측(臆測)의 안개를 말끔히 일소(一掃)하시고 그로 인하여 불안해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안위(安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확고한 칭호(稱號)를 힘입어 폐하께서 세우신 정부와 폐하의 황태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평화와 안녕과 더불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어 참으로 큰 안위가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다는 복(福)보다 우리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부(富)를 능가하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니 이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 일시적인 세상에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높은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폐하의 고명(高名)하신 전임자께서 물려주신 이 나라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속해서 이어나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유지하며 이를 원근 지방에 확산시키는 일에서 사람들이 확신과 결의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야말로 폐하께 충성을 다하는 경건한 모든 백성의 마음과 폐하를 굳게 결합해 주는 원동력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폐하의 존함(尊擘)이 모든 백성 가운데서 고귀하게 되며 그들이 위로 받는 가운데 폐하를 바라보고 폐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창시자(創始者)가 되시며 거룩한 일꾼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될 것입니다.

실로 백성들의 이러한 만족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늘어나 힘을 얻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폐하의 열심(熱心)이 줄어들거나 차가워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져서 기독교계의 저 먼 곳에서까지도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진리를 옹호하는 글을 쓰사(그 글로 저 죄의 사람에게 치명타를 가해 회복 불능으로 만드셨으며) 또 날마다 집에서 경건하고 식견(識見)이 높은 연설을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자주 들러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며 그곳의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사 양육하시는 아버지로서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이처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열정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 주는 증거가 수없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경 곧 우리 번역자들이 겸손하게 폐하께 바치는 성경을 완성하고 출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보여 주신 뜨겁고도 지속적인 열망(熱望)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사려 깊은 판단으로 우리를 앞서간 훌륭한 분들이 우리말과 다른 외국어로 이루어 놓은 여러 성경들을 비교해 가면서 거룩한 원어에서 더 정확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셨으며, 그 이후에는 그 작업을 맡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그 일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촉구하셨고 이처럼 중요한 일에 마땅히 요구되는 매우 품위 있는 방식으로 그 번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훈과 우리의 지속된 노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교회가 이 작업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크게 소망하면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시며 이 작업을 창시하시고 주관하신 폐하께서 성경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사례를 살펴볼 때 늘 이런 종류의 일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일에 만족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 왔지만 우리는 폐하와 같이 식견이 높고 현명하신 군주께서 이 일을 인정하고 지원해주시기를 감히 바라는 바입니다. 폐하께서 우리의 수고를 승인하고 받아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영예와 위로가 될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함과 혹독한 비판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능히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국내외에서 교황의 추종자들에 의해 모함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해악(害惡)을 끼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무지와 암흑 속에 가두어 두기 원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더욱더 널리 알리는 일을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자만에 차서 자기들의 길만을 고집하는 형제들에게 중상모략(中傷謀略)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틀을 세우거나 만든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내적으로는 진리와 선한 양심의 순결함을 힘입어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서처럼 단순하고도 순전한 길들로 걸으며 평안히 거할 것이며 또 외적으로는 폐하의 은혜와 은총의 강력한 보호를 받아 굳건히 설 것입니다. 이같이 폐하께서 보호해주시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한 수고와 노력에 힘을 북돋아 주어 거친 비판과 무자비한 비난을 이겨내

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께서 많은 행복한 날로 폐하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천상(天上)의 손을 펴사 놀랍고도 비상(非常)한 은혜로 폐하를 부요(富饒)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행복과 지고한 복락(福樂)으로 인해 온 세상이 놀라는 기묘자(奇妙者)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이로써 이 일이 우리의 주(主)시요, 유일한 구원자(救援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제임스 왕(King James)이 몸소 제정한 『흠정역 성경』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으며 특히 틴데일(William Tyndale)이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없이는 흠정역 성경의 출간이 매우 힘들었거나 늦추어졌을 것이다. 이에 본 부록에서는 『폭스의 순교사회』의 틴데일 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한 영어 성경의 역사와 틴데일의 일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경을 우리 평민들의 손에 쥐여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고가 있었는지 기억하고자 한다.

영국과 영어의 역사

영어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영국 민족 및 영어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후 5세기에 로마가 영국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자 브리튼족은 색슨족의 도움을 받아 픽트족과 스코트족의 침략을 막아냈다. 색슨족은 북부지방에서 승리를 거둔 뒤 돌아갔으며 그 후에 영국 남부를 차지하려 했다. 이런 싸움은 거의 150년 동안 지속했고 그동안에 앵글로족, 색슨족, 여러 이교도 등이 고대 영국을 일곱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다. 그 뒤 이 왕국들은 주변의 좀 더 강한 왕국으로 합병되었고 마침내 주후 827년에 에그베르트는 이 모든 왕국을 하나로 통일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이 동안에는 영국 전체에 복음의 등불이 꺼진 상태였고 6세기 후반에 켄트의 왕이었던 에그베르트가 회심한 후에야 비로소 다시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

색슨족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덴마크족이 계속해서 영국을 침략했고 여러 지역을 다스렸다. 그러다가 주후 878년에 알프레드 대왕이 에탄둔에서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게 되었다. 그 뒤 150년 동안 영국인들과 덴마크족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영국 교회는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랑프랭에 의해 재조직되었다. 이 기간에는 앵글로/색슨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에게 전해 주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8세기 초반에는 시편과 복음서를 번역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번역본은 현재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주후 735년에 비디는 복음서를 번역했으며 알프레드 대왕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위하여 스스로 시편을 번역하기도 했다. 10세기 후반에는 아엘프릭 주교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고 이로써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뒤 약 400년 동안은 영어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주후 1066년에서 1150년까지는 색슨족의 언어와 노르만/프랑스어가 같이 쓰였다. 그러다가 1150년 이후에 이 두 개의 언어는 서로 병합되기 시작했고 결국 고대의 색슨어가 아니라 절반만 색슨어라는 의미의 ‘반-색슨’(semi-Saxon) 언어라는 것으로 귀착되었고 그 뒤 1382년에 어느 정도 영어가 정형화된 상태에서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순교자 위클리프

위클리프(John Wycliffe)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그 당시에 카톨릭교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던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서 번역을 시도했다. 비록 그가 만든 영어 성경은 원본이 그릇되었으므로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로마 카

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려 정죄를 받고 출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384년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 번역을 수행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번역 성경은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야 했다. 보통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 데는 열 달 정도가 걸렸고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도서관 사서의 일 년 치 봉급이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성경이 필사되자 마침내 영국 국회는 법령을 제정하여 위클리프의 성경을 보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영국의 아룬델 대주교는 교황에게 ‘저 사악한 위클리프’를 처치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뒤 1408년에 그의 지휘하에 옥스퍼드 회의가 열려 ‘어떤 형식으로든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는 안되며 누구도 그런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결정했고 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뒤 약 100년 동안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위클리프의 성경을 보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위클리프의 성경을 목에 매단 채 화형을 당하며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와 그의 동역자들의 수고로 많은 성경이 필사되어 아직까지 170 권이나 남아있음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영어 성경이 평민들의 손에 들어가자 큰 위협을 느낀 교황 요한 23세는 콘스탄스 공회를 열어 위클리프의 성경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미 죽어 무덤에 안치된 위클리프의 유골을 캐내어 불사를 것을 결의했다. 그 뒤 13년이 지나서 이들은 실제로 위클리프의 무덤을 열고 그의 뼈를 캐내어 불사르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박해를 겪으면서도 성경을 보통 사람들의 손에 쥐여 주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손으로 일일이 필사해야 한다는 제약점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급할 수가 없었다.

구텐베르크와 인쇄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하기 약 100년 전에 독일의 멘즈라는 오래된 마을에 요한 구스플레쉬(John Gooseflesh)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천주교 사제들이 글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양피지를 만들어 어려운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요한은 칼로 무엇인가를 조각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불 옆에서 자기 어머니가 끓이고 있는 자주색 염색 냄비를 지켜 보며 나무에다 자기 이름을 조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글씨를 새긴 나무 조각들 가운데 하나가 염색 냄비 속으로 들어갔다. 얼른 그것을 꺼내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그 옆에 놓여 있던 양피지에 떨어졌다. 그가 나뭇조각을 집어 올리자 그 양피지에 'h'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갔지만 멘즈의 이 소년은 자기가 살던 옛집에서 그 날 일어난 일을 잊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그 당시까지 해 온 것처럼 손으로 책을 필사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으로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조각을 깎아 그 위에 글씨를 새기고 염색하는 잉크를 묻혀 여러 가지 형태로 배열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는 누구나 역사책을 통해 독일의 요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처음 발명했다는 것을 알게 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이 일에도 성경을 널리 보급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참으로 묘하게도 주후 1450년에서 1455년 사이에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은 다름 아닌 라틴어 성경책이었다.

그리스 문화의 복원

인쇄술이 발명되던 그 당시에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터키 사람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며 대부분의 훌륭한 학교들이 몰려 있던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어 학자들은 유럽의 각처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리스어 신약성경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읽어 오던 『구 라틴 별게이트』라는 번역 성경 대신 원어인 그리스어로 쓰인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로 인해 성경을 모든 사람의 언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라고 여러 사람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어에 대한 연구와 인쇄기의 발명 그리고 영어의 정형화 등으로 인해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순교자 틴데일

이 같은 변혁의 시기에 로마 카톨릭주의와 그들의 변개된 사본을 단호히 물리치고 개혁자들과 함께 순교하면서까지 영국의 평민들에게 영어 성경을 전해주고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틴데일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평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읽는 일이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며 킹제임스 흠정역(KJV)과 같은 걸출한 역본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20세기의 현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결국 자기 목숨까지 바친 틴데일에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던 틴데일은 주후 1484년, 영국 웨일즈 지방의 글로우체스터셔의 노스니블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어

릴 때부터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는 어학과 다른 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으며 특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성경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마그달렌 홀에서 지내면서 마그달렌 대학의 몇몇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몰래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들려주었고 성경의 지식과 진리에 대해 교훈을 주었다. 그의 예의 범절과 행동 등이 성경 말씀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참으로 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이며 흠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학교의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던 그는, 1521년에 켄브리지 대학으로 옮겨가서 강사로서 몇 년간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늘린 그는 그 대학을 떠나 자기 고향인 글로우체스터셔로 가서 기사인 마스터 웰치(Master Welch)라는 사람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웰치의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주인인 웰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웰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식탁을 같이하곤 했는데 거기에는 대수도원장, 집사, 집사장,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의사 및 교회의 녹을 먹는 성직자 등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틈나일과 함께 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특히 루터와 에라스무스같이 학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거리와 질문 등에 대해서도 서로 견해를 나누게 되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해 온 틈나일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자기 견해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하곤 했다. 그들의 의견이 자기 의견과 다를 때면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서 그들 앞에서 명백한 성경 구절을 보여 주곤 했으며 이로써 그들의 오류를 논박했고 자기 말을 확증시켜 주었다.

이처럼 그들은 얼마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논쟁을 하다가는 마침내 지쳐서 마음속으로 틴데일에 대한 불평을 품기 시작했다. 일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자 그 지역의 사제들은 선술집이나 다른 곳에서 함께 모여 틴데일에 대해 비난과 폭설을 퍼붓기 시작했으며 그의 말이 이단 교리임을 확증시키려 했고 또한 비밀리에 그를 주교의 종교법 고문(顧問) 및 주교의 관리들 중 다른 이들에게 고소하였다.

이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주교의 종교법 고문이 새로 임명을 받고는 여러 사제에게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틴데일도 그 안에 끼어 있었다. 틴데일이 그들의 위협에 대해 미심쩍어 했는지 혹은 그들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음을 그가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단지 그가 밝히 드러낸 바와 같이 그는 그들의 비밀 고소에 대해 의심을 품었으며 그래서 거기서 가는 길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자기에게 힘을 주실 것을 간구했다.

그가 종교법 고문 앞에 설 날이 오자 그 고문은 틴데일을 심하게 위협하였고 마치 그를 개처럼 취급하며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아무도 고소한 일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의 책임을 물었다. 그 지역의 사제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간신히 그들의 손에서 벗어난 틴데일은 집을 떠나서 다시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거기에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주교의 고문으로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틴데일과 잘 알고 있었으며 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 틴데일은 그에게 가서 자기 마음을 열고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황이야말로 성경이 말해 주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하는가? 그러나 말조심하게, 당신이 그런 의견을 가

진 것을 알게 되면 목숨이 달아날 걸세.’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틴데일은 우연히 어떤 신학자와 사귀게 되었는데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매우 학식이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논쟁을 하다가 마침내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대해 그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그 위대한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다.

‘성경이란 필요 없소.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

이 말을 들은 틴데일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충만한 채 이 같은 신성모독 발언을 참지 못하고는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는 바이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오.’

틴데일에 대한 사제들의 불평은 점점 더해 갔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틴데일을 향하여 짓어댔고 욕을 했으며 그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로부터 많은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결국 그는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장소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 웰치에게 가서 그의 곁을 떠나도 좋다는 호의를 입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인이시여, 내 생각으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없으며 비록 주인께서 그들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시려 한다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인해 많은 불명예를 당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점에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틴데일은 자기 주인의 호의를 입고 곧바로 런던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떠나오기 전 지방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 동안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는 그 당시 런던의 주교였던 톤스탈(Cuthbert Tonstal)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톤스탈의 학식을 매우 높이 평가한 에라스무스의 추천의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만일 자기가 그의 일을 도울 수 있으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의 감사관인 길포드 경에게 자기가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소크라테스의 연설문을 가지고 가면서 틴데일은 그가 자기를 위해 런던의 주교인 톤스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을 고대했다. 그런데 그는 틴데일을 위해 그 주교에게 편지를 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주교를 방문하자고 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서 헬비스웨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주교의 종에게 편지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틴데일에게나 자신의 교회에게나 최상의 것이 되지 않음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그 주교의 눈에 큰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그 주교는 현재 자기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 틴데일을 위해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런던의 주교에게서 거절을 당한 틴데일은 런던의 부시장인 몐무스의 집에 가서 자기를 도와 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러자 그는 틴데일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집에서 틴데일은 매우 착실한 사제로서 밤낮으로 연구를 하며 지내게 되었으며 주인의 호의로 삶은 음식만을 먹게 되었다.

이처럼 1년 정도를 런던에 머물면서 틴데일은 이 세상의 행로가 무엇인지 차츰 깨닫게 되었는데 특히 복음 선포자라 불리는 자들의 행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그들은 교만했으며 스스로 권위를 세웠고 특히 고위 성직자들의 걸치레는 그들의 다른 행실들과 함께 그에게 큰 불쾌감을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주교의 집에서 신약성경을 번역할 수도 없고 또한 영국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뭉무스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지역에서 떠나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 독일로 떠났다. 거기에서 이 선한 사람 틴데일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에 불타서 어떤 힘든 일이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확실성에 대한 깨달음을 자신의 영국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프리스와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그는 성경이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히 읽게 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는 성경이 보통 사람들의 눈앞에 그들의 모국어로 평이하게 주어져서 그들이 스스로 본문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들을 진리 안에 굳게 세울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친다 해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궤변이나 자기들이 고안한 전통 등으로 이 진리를 저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보통 사람들이 성경 본문의 올바른 의미를 찾아낸 경우에 진리의 대적자들이 본문을 조작하여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틴데일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서 가려진 것, 바로 그것이 교회 내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토록 오랫동안 바리새인들 같은 성직자들이 가증한 행위와 우상 숭배를 해 왔지만 성경이 없으므로 찾아내어 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 부패한 성직자들은 전력을 다하여 성경 말씀을 짓누르려고 애를 썼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들이 읽는다 해도 여러 가지 궤변으로 그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흐리게 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각종 가증한 것들을 경멸하는 자들을 위협과 속박으로 얽어맸다. 또한 그들은 본문의 의미와는 다르게 성경을 자기들의 목적

에 맞추어 마구 뜯어고쳤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로서는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다 거짓임을 알고 있다 해도 그들의 교묘한 술책을 이길 방도가 없었다.

이런저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선한 사람 틴데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하여 자기 고국의 단순한 평민들에게까지 큰 유익을 끼치고자 했다. 처음에 그는 독일의 함부르크로 갔다. 그러나 영국의 주교들과 사제들이 정탐꾼들을 고용하여 그의 일을 방해했고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경을 인쇄하는 일도 하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는 신변에 큰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다.

한편 콜론에 인쇄소가 있었으므로 그는 그곳으로 가서 자기의 성경을 인쇄해 줄 인쇄공을 찾아냈다. 그는 영국의 주교들과 사제들이 이 작업이 끝난 것을 알면 자기를 체포해 갈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비밀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숨을 건지려면 빨리 도망가라는 제보가 그에게 들어왔다. 술에 취한 인쇄공으로부터 그의 신약 성경이 거의 인쇄될 단계라는 것을 듣게 된 카톨릭 사제가 그를 체포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간신히 원고들을 챙겨 마틴 루터가 살고 있던 보름스로 도망갔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주후 1524-1525년경에 자신의 영어 신약성경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때 그는 두 종류의 성경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크기가 컸고 다른 하나는 작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영국의 성직자들이 큰 성경들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작은 것들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성경들을 영국으로 보내는 일이었다. 그는 큰 통이나 짐짝에 옷가지나 밀가루 등과 함께 이 성경들을 숨겨 마치 다른 상품처럼 꾸며 영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성경들이 영국에 들어와 판매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성직자들은 항구를 조사하여 성경을 찾아냈고 찾는 대로 불태워 버렸다. 한편 영국 런던의 주교인 톰스탈과 토마스 모어 경은 너무나 화가 나서 틴데일

의 영어 성경을 ‘거짓되고 실수투성이 번역’이라고 깎아내렸으며 또한 그의 역본을 없앨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데 그 당시 포목상이던 패킹턴이라는 사람이 톤스탈 주교와 함께 앤트워프에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틴데일을 사랑하였으나 그 주교에게는 반대로 말을 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던 주교는 어떻게 하면 틴데일의 신약성경을 다 사들여 불태울 수 있을지 그에게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패킹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주시여! 주교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여기 있는 어떤 상인보다도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덜란드 사람들과 틴데일에게서 성경을 사들여 여기에서 판매한 외국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교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그것들을 사들이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교님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인쇄된 것 중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을 다 차지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교는 이제야말로 이 일을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에게 말했다. ‘패킹턴 선생, 부지런히 이 일을 수행하십시오. 그 성경들을 구해주시오.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다 지불하리이다. 내가 그것들을 다 모아 성 바울 십자가 광장에서 불사를 것이오.’

이 일 후에 패킹턴은 틴데일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알려 주고 서로 협약을 맺었다. 그리하여 런던의 주교는 틴데일의 남은 성경을 모두 입수했고 패킹턴은 주교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고 틴데일은 큰돈을 얻게 되었다.

그 후에 틴데일은 동일한 신약성경을 다시 한 번 수정한 뒤 새롭게 인쇄해서 이전의 세 배나 되는 많은 양의 성경을 영국으로 보냈다. 런던의 주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패킹턴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외부에 그토록 신약성경이 많이 돌아다닌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그것들을 다 사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패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저는 그 당시 구할 수 있는 성경을 다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에 더 많은 성경을 인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활자와 인쇄기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쇄기까지 다 사들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대답에 주교는 웃고 말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틴데일을 도와주던 콘스탄틴은 그 당시 영국의 종교법 고문이었던 토마스 모어 경에 의해 어떤 이단 교리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모어 경은 그에게 물었다.

‘콘스탄틴! 내가 묻는 한 가지 질문에 솔직히 답변하기 바란다. 그러면 너를 고소한 다른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호의를 베풀 것을 약속한다. 바다 너머에 틴데일과 조이와 다른 일당이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이니 돈의 출처를 알고 있을 거다. 청컨대 그들을 돕는 자가 누구인지 내게 말하도록 해라.’

이에 대해 콘스탄틴은 대답했다.

‘내 주여,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겠나이다. 우리를 도운 사람은 런던의 주교입니다. 그가 신약성경을 불태우기 위해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유일한 후원금이며 위로금입니다.’

이에 대해 모어 경은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역시 사실이구먼. 왜냐하면 주교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주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했으니까.’

영어 신약성경을 6판까지 출간한 후에 틴데일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번역에 착수했으며 1530년에 창세기와 신명기 번역을 마쳤고 그다음 해에는 모세오경을 마쳤다. 이와 동시에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읽고 읽어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매우 경건하고도 학문적인 서문을 작성했다. 한편 1535년에 그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를 따라가며 많은 도움을 준 커버데일의 도움을 받아 신구약성경 전체를 인쇄했다. 이 책들을 영국으로 보냈을 때 그것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온 영국 민족의 눈에 얼마나 큰 빛을 가져다주었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처음에 틴데일은 영국에서 떠나 독일로 갔으며 거기에서 루터와 학식 있는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했다. 그 뒤 그는 잠시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내려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앤트워프에서 보냈다. 틴데일의 경건한 책들 특히 그가 번역한 영어 신약성경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해외로 퍼져나갔으며 경건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경건치 못한 사람들 곧 일반 백성이 자기들보다 더 현명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진리의 빛으로 인해 자기들의 어둠의 일들이 분별되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켰다.

그때 틴데일은 이미 구약의 신명기를 번역했으므로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이것을 인쇄하려는 생각을 품고 함부르크행 배를 탔다. 그러나 네덜란드 해변에서 배가 좌초하는 바람에 그는 모든 책과 저술물과 필사본과 돈과 시간을 잃게 되었고 하는 수 없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른 배로 함부르크에 갔는데, 거기에는 약속한 대로 커버데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모세오경 전체를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1529년 부활절에서부터 12월까지 경건한 과부인 엠머슨 부인의 집에 머물면서 이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도시에 땀을 많이 흘리게 하는

병이 돌아서 함부르크에서의 일을 급히 끝내고는 다시 앤트워프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의 말로 된 영어 신약성경을 널리 퍼뜨리려고 하셨을 때 틴데일은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경을 번역하면서 서문을 통해 만일 자신의 번역에서 잘못이 발견된다면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그는 지식이 있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번역에서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면 예의를 갖추어 부드럽게 자기들의 학식을 반영하고 수정할 부분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제안했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그 책이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그 성경 안에 수천 개의 이단 교리가 있으므로 그 책을 수정할 필요도 없으며 완전히 파기시켜야만 한다고 큰소리로 주장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평민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으며, 어떤 이들은 성경이 평민들 모두를 이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 틴데일의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왕에게 반기를 들게 할 것이라고 모함했다.

틴데일은 창세기 앞에 있는 서문에서 여러 가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자기의 번역본을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와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저 위대한 책인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과,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비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또한 그는 그들이 자기가 번역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인쇄상의 실수로 만일 거기에 'i' 라는 글자가 없는 구절을 발견하면, 무식한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큰 이단 교리라고 말했음을 보여 주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빼앗아 버리려는 영국 성직자들의 심술궂은 계략은 너무나도 엄청났다. 사실 이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는데도 그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틴데일이 말한 바와 같이 이 같은 그들의 시도는 세상을 어둠 속에 가두어 두고, 헛된 미신과 거짓 교리로 자기들의 야망과 탐욕을 만족시키고, 또한 자기들의 명예를 왕이나 황제보다 더 높이면서 백성들의 양심에 타고 앉아 사람들을 다스려 보려는 그들의 교만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마침내 주교들과 고위 성직자들은 왕의 동의를 얻어냈으며 서둘러서 주후 1535년경에 틴데일이 번역한 신약성경을 금지한다는 선언문을 작성하여 공포했고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틴데일을 자기들의 그물로 사로잡아 그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추진했는가는 이제 곧 밝혀지게 될 것이다.

런던의 등기부에서 모인 주교들과 토마스 모어 경은 앤트워프에 있었던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틴데일에게 속한 것들을 다 열심히 찾아내어 조사했다. 그들은 틴데일이 어디에서 누구를 접대했고, 그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그의 키는 얼마이며,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등을 조사했다. 부지런히 연구하여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업적을 높이 세울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앤트워프에 있던 틴데일은 영국 상인의 집을 지키고 있던 포인츠라는 영국 사람의 집에서 거의 1년 동안 기거했다. 그런데 그곳에 필립스라는 영국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신사처럼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이유로 그곳에 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때 틴데일은 여러 차례 상인들과 함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기회를 통해 필립스는 그와 친숙해지게 되었고 틴데일은 곧바로 그를 크게 신뢰하게 되었으며 자기가 머무는 포인츠의 집으로 그를 데려가기도 했다. 또 그와 함께 한두 차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틴데일은 그와 함께 깊은 친구 관계를 맺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를 포인츠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한편 그는 필립스에게 자신의 책들과 자신이 연구하는 것들 중 비밀에 속한 것들을 보여 주었다. 참으로 틴데일은 이 배신자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인츠는 이 친구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필립스와 알게 되었느냐고 틴데일에게 물었다. 그러자 틴데일은 그가 정직한 사람이며 매우 학식이 있고 사귀기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틴데일이 그에게 것처럼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본 포인츠는 아마도 필립스가 그의 친구들 중의 하나의 소개로 틴데일과 가까워졌으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필립스는 앤트워프에서 이십 마일 정도 떨어진 브뤼셀의 법정에 갔으며, 거기에서 다시 앤트워프로 오면서 황제의 변호사인 검사장과 다른 관리들과 함께 돌아왔다. 그로부터 삼사 일이 지난 후에 포인츠는 앤트워프에서 십팔 마일 정도 떨어진 읍에 가게 되었으며 거기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업을 하게 되었다.

한편 그가 없는 동안 필립스는 포인츠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에게 틴데일이 안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 후 그는 다시 가서 브뤼셀에서 자기가 데려온 장교들을 집 근처 거리와 문 근처에 배치했다. 정오쯤에 그는 다시 돌아와 틴데일에게 가서 사십 실링을 빌려달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침에 이곳과 메클린 사이에 있는 통로를 지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소.’

이에 틴데일은 사십 실링을 그에게 빌려주었다. 사실 참으로 교

묘함이 판치는 사악한 세상 속에서 그는 남을 잘 신뢰하는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에 필립스는 틴데일에게 이렇게 말했다.

‘틴데일, 오늘 저녁에 내 집에서 식사를 함께합시다.’

그러자 틴데일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내가 저녁 먹으러 가는데 당신도 나와 함께 갑시다. 그곳에서는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틴데일은 필립스와 함께 나갔는데 포인츠의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길은 길고 입구가 좁아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갈 수가 없었다. 틴데일은 자기 앞에 필립스를 가게 하려 했으나 필립스는 자기의 사람됨을 보이기 위해 틴데일을 자기 앞에 가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키가 아닌 틴데일이 앞에 갔으며 키가 크고 잘 생긴 필립스가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는 이미 문 양쪽에 장교들을 배치해 놓았고 이들은 입구에서 누가 나오는지 볼 수 있었다. 틴데일 뒤에 선 필립스는 자기 손으로 틴데일의 머리를 가리켜서 장교들이 데려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었다. 틴데일을 감옥에 가둔 후에 장교들은 것처럼 단순한 틴데일을 보고 큰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고 포인츠에게 말했다. 그들은 틴데일을 황제의 변호사에게 데려갔으며 거기에서 그는 식사를 했다. 그 뒤 검사장이 포인츠의 집에 와서 틴데일의 소유물 곧 그의 책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져갔다. 거기에서 틴데일은 앤트워프에서 십팔 마일 정도 떨어진 빌보르드 성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에 홀로 남게 된 틴데일은 변호사와 검사를 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답변하겠다고 말하며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또한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선포했으며 성안에서 그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만일 그가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좋은 크리스천이겠느냐는 진술을 했다. 마침내 심문이 시작되었고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아무런 변호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칙령으로 아우그스부르크 집회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주후 1536년 빌보르드 성에서 사형 집행 장소에 끌려 나와 화형대에 손발을 묶인 채 화형을 당했다. 이들은 그를 화형시키면서 불로 인해 고통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에 동시에 목을 졸라매어 사망하게 (화형시에 목을 졸라매는 행위는 화형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경감해 주는 행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형대에서도 놀라운 열정을 갖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감옥에 있었던 약 2년 동안에 그가 간수와 간수의 딸과 및 그의 다른 가족들을 회심시켰다는 것을 보면,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며 그의 삶이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알 수 있다. 자기가 번역한 신약성경에 관하여 자기의 대적들이 그 성경이 이단적 교리들로 가득 찼다며 심하게 트집을 잡았으므로 틴데일은 친구 프리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의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Crude non lateat te, Vir prestantissime, qd de me statuti sit.
 Quam ob rem tuas inuentionem rogatam habeo, idq; p̄ dnm̄ p̄fctm̄
 ut si mihi p̄ p̄sentē huiusmodi sit, p̄bitas apud dnm̄
 rōnāssimē, si forte dignari velit, de rebz̄ meis quas habet
 mittere, calidiorē auscū, sp̄rigḡ aut̄ p̄tōri i capite minū
 op̄tū p̄petuo carnis, qui p̄tō. te audire nōn sic auget.
 Calidiorē q̄ trāncā, m̄ q̄r quā gō ad v̄dē rōnāssimē p̄tō
 p̄ant ad calidiorē referenda. Duplōis dōtū ē. Causā
 detrahe p̄t atq;. Causā amāz q̄, si mittere velit.
 Habes q̄ apud m̄, rōnāssimē calidiorē ex rōnāssimē p̄ant
 ad p̄ḡm̄ d̄cū d̄. Nocturna t̄zeta calidiorē ḡbit d̄z
 atq; v̄sā hōcēnā habere hōat. Reddōt q̄t ē p̄ t̄ncōz
 p̄bitas p̄bit. Maxime autē m̄, huiusmodi clementiaz
 rōnāssimē, ut ex m̄ ager velit apud dnm̄
 rōnāssimē, quatenus dignari velit, mihi cōcedere
 rōnāssimē, q̄ rōnāssimē ḡbit rōnāssimē rōnāssimē
 ḡbit rōnāssimē, ut ex p̄tō t̄p̄t rōnāssimē. Huiusmodi obligat
 q̄ maxime optat, modo in m̄ t̄p̄t saluti fiat. V̄t
 si aliud cōp̄t de me cepit, aut ex p̄tō p̄bit
 p̄bit rōnāssimē, dei expectans volūntatē ad ḡbit ḡbit d̄cū
 mei. p̄t rōnāssimē, om̄ p̄t t̄p̄t rōnāssimē rōnāssimē d̄cū
 in Tindaly.



... 제 물품들을 여기서 되돌려보내어 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선 따뜻한 모자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추위로 인해 머리에 심한 통증을 겪고 있고, 계속되는 감기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감옥에서 이 증세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가 입고 있는 것은 너무 얇습니다. 또 제 각반을 기용 형견 조각이 필요합니다. 제 외투는 다 닳았고 셔츠 또한 그렇습니다 ... 또한 제가 바라는 것은 저녁에 초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기가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저의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어 문법책,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의 시간을 그것에 관한 연구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 겨울을 나기 전에 제게 어떤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저는 인내하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늘 각하의 마음을 인도하시길 기도하고 바라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죄로 체포되어 1533년 겨울 빌보르드 성에 감금되었던 틴데일이 라틴어로 써서 성주 앞으로 보낸,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의 친필 기록〉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틴데일이 죽은 뒤 2년 만에 이 같은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 1538년에 영국의 헨리 8세는 각 교구의 교회에 큰 성경을 비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뒤 『커버데일 성경』, 『로저스 성경』, 『마태 성경』, 『태버너 성경』, 『크랜머 성경』, 『비숍 성경』 등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 출간되었으나 사실 그 내용은 틴데일이 번역한 것과 거의 같았다. 또한 그의 번역은 1611년에 출간된 KJV에 70-80% 이상 그대로 반영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평민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여 주려 했던 틴데일의 숭고한 정신은 KJV의 번역으로 이어졌고 18, 19세기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로도 이어져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부디 이 작은 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위클리프나 틴데일 그리고 왈텐시스 같은 선구자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올바른 성경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틴데일 성경을 기초로 탄생한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바르게 읽는 성경」, 김문수, 그리스도예수안에.
9.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뉴바이블」,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2.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보트너 저, 이승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 레이시 저,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예.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P스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PV).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사리즈6)」, 낮은울타리.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사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웅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 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져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에델 R.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 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오순절 은사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웅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5. 「성령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6. 「방언의 실체」,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7.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박영돈 저,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IVP).

기타

1. 「성경 바로 보기」, C. 라킨 외,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요한 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3.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A. 레이시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장근두 역, 복있는사람.
5.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6.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7.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8.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9.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디.
10.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 빌 길햄 저, 도서출판NCD엔시디.
12.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A. 레이시,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1.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3.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14.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5.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6.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7. 「내가 왜 믿어야 하죠?」, 김재욱 저, 생명의 말씀사.
18. 「에스라 성경 사전」,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9.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0. 「채림과 휴거: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모리스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1. 「침례교회 바로 알기」, 정동수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2. 「칼빈주의 바로 알기」, 정동수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